

테일러 리드 - 동서 고금의 예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자비의 눈물

 THE LIVES
MEDIA®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자비의 눈물

저자:

테일러 리드(Taylor Reed) 기자가 동서양의 고대 예언을 바탕으로 집필.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자 서문

시대의 아픔 중에는 오직 신의 눈물로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걸까요? 세상의 격변 속에서 소리가 아닌 고요한 비통함으로만 전해지는 경고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가슴 아픈 질문들로부터 작가 테일러 리드의 책, 《마지막 종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예리한 언론인이자 연구가로서의 기반과 영적 수행자로서의 깊이를 겸비한 테일러 리드는 우리를 독특한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여정은 한 신도가 성모의 눈물을 목격하고 "왜 그분은 우셔야만 했을까?"라고 자문했던 성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된 내면의 탐사입니다.

이 책은 멀리서 관망하며 분석하는 연구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확정적인 주장을 펼치는 책도 아닙니다. 대신, 작가는 우리를 공감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현대 사회의 '병상일지'를 통해 그 눈물의 원인을 찾아보고, 동서양의 예언서에 담긴 그 메아리에 귀 기울이며, 마침내 모든 경고와 징조가 무한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여정입니다.

작가 자신의 시각과 깨달음으로 조명된 이 여정은 우리를
이성의 혼란에서부터 믿음의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선택에 대한 희망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느
끼는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눈물 한 방울
의 메아리이며, 우리 각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양심을 일깨
우는 종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드림



서문

(테일러 리드 - Taylor Reed)

저는 예언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 여 년간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저는 검증 가능한 자료와 연결 가능한 논리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적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제 세계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라는 질문을 유형의 증거에 기반하여 파헤치는 세계였습니다. 기자로서, 직업적 습관은 제가 항상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즉 검증 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한 이미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를 통해 무언가를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겉모습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예언도 아니었고, 밤하늘에 나타난 장엄한 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휴대전화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 제가 그동안 추적해왔던 어떤 선정적인 뉴스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닌 고요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하얀 도자기로 만들어진 성모 마리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가에서부터 검붉은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절규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침묵의 눈물은 제가 들어본 가장 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질문이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우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건을 좇는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본 자식의 절규였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가진 모든 것—기자의 두뇌, 연구가의 신중함, 그리고 신도의 간절한 마음—을 총동원하여, 제가 결코 가보리라 생각지 못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신성한 눈물 한 방울의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일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현대 사회에 대한 통렬한 관찰에서부터 수 천 년 된 동서양의 예언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로 이끌 것이며, 마침내 우리 시대의 양심과 선택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을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건조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신의 근심을 이해하려는 저의 노력입니다.

서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힘겹게 꿰맞추는 과정에서,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경전들을 깊이 읽으며 깨닫게 된 진선인(真善忍)의 원리가 이 ‘여정’의 길을 더욱 명료하게 밝혀주는 나침반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이 외부의 관찰자가 아닌, 함께 경청하는 동반자로서 이 탐험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그 눈물이 저 혼자만을 위해 흐른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울리는 ‘종소리’는 아마도 종말을 예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일깨우고 돌아오도록 부르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책장들 사이에서, 당신 자신만을 위한 종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 * *

제 1 장: 신은 왜 울어야 하는가?

나는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대한 ‘록 페스티벌’의 기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레스석에 서 있었다...

사실,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됐다...

내가 협력하는 한 신문사의 상사인 존이 어제 오후 늦게 보낸 이메일은 간결했고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테일러, 내일 저녁 시립 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있어. 요즘 잘나가는 시끄러운 록 밴드 중 하나야. 당신이 거기 있어 줬으면 해. '폭발적인', '한 세대의 목소리' 같은 관점의 기사를 써줘. 뭘 해야 할지는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 있다.

공기는 사람들의 열기, 조명 장비에서 나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 담배 연기, 은밀히 퍼지는 대마초 냄새, 코를 찌르는 향수, 그리고 무대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속 덩어리들의 열기에 데워진 땀 냄새로 숨 막힐 듯했다. 레이저 조명이 인공 연기로 가득 찬 하늘을 가로지르며 칼날처럼 번쩍었다. 바람은 고함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날려 보낼 힘이 없었다.

경기장은 더 이상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드럼 비트, 발 구르는 소리, 미친 듯이 흔드는 머리를 하나하나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무대 뒤 거대한 LED 화면에는 이교도적인 상징들과 경련하

는 듯한 이미지들이 교차하며 나타났다. 붉게 타오르는 눈, 음양 기호로 그린 해골, 비디오 게임처럼 편집된 전쟁 장면들.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소리를 지르며 각자의 세계에 빠져들 뿐이었다.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그물치마를 입은 한 소녀가 휴대전화로 친구를 찍고 있었다. 친구가 기절한 척하는 동안, 그녀는 영상의 편집 각도를 계산하며 중얼거리면서 필터를 조정했다. 그들은 장난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의식의 일부였다. "숨 가쁠 때 울리는 게 바이럴 되기 제일 쉬워." – 나는 그녀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 두 명이 말다툼을 시작했다. 원인은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렸다는 것이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먹이 날아가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제 3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갔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 행동 개시 신호를 보낸 것처럼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한 소녀가 외쳤다.

"이 장면 끝내준다! 캡션은 이렇게 달아야지. '생존자의 눈에 비친 지옥!'"

나는 영상을 찍지 않았다. 사진도 찍지 않았다. 녹음기는 재킷 주머니에서 계속 켜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기사로 묘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 * *

무대 위, 기술팀이 바닥 조명을 낮추기 시작했다. 사운드는 전자 드럼 소리에서 동굴 속에서 울리는 징 소리처럼 길고 낮은 진동음으로 점차 바뀌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조명이 눈부시게 터져 나왔다.

메인 밴드가 등장했다.

리드 싱어는 잿빛 긴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위는 쇠사슬과 금속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축축한 바닥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젤로 곳곳이 세워져 악마의 비늘처럼 세 가지 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양 관자놀이에 는 목까지 이어지는 붉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인

사도, 소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이크를 들어 올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비명을 질렀다.

비명은 돌에 굽히는 금속 소리처럼 날카로웠고, 거의 30초간 이어졌다.

안무가 시작됐다.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명 박자에 맞춰 경련하고, 허리를 굽히고, 척추를 비틀며 울부짖는 동작들이었다. 다른 멤버들은 맨손으로 드럼을 치며, 마치 소환 의식에서처럼 팽팽한 가죽을 세게 두드렸다. 무대 뒤 화면에는 불타는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깜빡이는 숫자들, 코드 라인, 그리고 나선형으로 활짝 열리는 문들이 번갈아 나타났다.

가사는 의미가 불분명했다. 그저 "문을 열어라", "해방하라", "파괴하라", "피" 같은 단어들이 최면을 걸 듯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군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대의 일부였다. 치켜든 팔,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뒤틀리는 몸, 허공을 응시하는 흰자위 가득한 눈.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무도 옆에 누가 서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옆구리에 찬 가방끈을 짊어쥐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냉기는 조용한 예감 같았다.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내가 이름 없는 의식 속에 서 있다는 것을—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 *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깜빡이는 조명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은 듯했다. 불빛이 터질 때마다 다른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휘둥그레진 눈, 크게 벌린 입, 내민 혀, 마치 접신이라도 한 듯 높이 든 손. 반기독교적인 상징들, 사악한 눈의 그림, 기묘한 기호들이 티셔츠, 깃발, 문신에 흩어져 있었다—너무 많아서 무엇이 유행이고 무엇이 의도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그리고 문득 내 딸이 생각났다.

며칠 전, 릴리가 내게 돈을 좀 달라고 했었다. 반 친구가 "아주 핫한" 콘서트에 가자고 했으며, 일찍 예매하면 표가 반값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마감에 쫓기고 있어서 자세히 묻지도 않고 평소처럼 돈을 보내주었다.

지금,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딸애를 어디선가 봤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가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애는 이제 겨우 열여섯이다. 만약 저 군중 속에서 있다면, 만약 소리치고 몸을 흔들고 있다면, 만약 "모든 것을 파괴하라-마지막 문을 열어라" 같은 가사를 듣고 있다면... 어떡하지?

* * *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무대로 시선을 옮겼다.

리드 싱어는 새로운 무대를 시작했다. 그는 노래하지 않았다. 주문을 외듯,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읊조렸다.

"마지막 문을 열어라.

오래된 기억을 파괴하라.

과거의 자아를 죽여라.

새로운 불을 맞이하라."

한 구절 한 구절 읊을 때마다, 군중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조명은 즉시 피처럼 검붉은 색으로 바뀌었고, 아래에서 비스듬히 비추어 그의 얼굴이 산 채로 처형당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두 명의 백댄서가 무대 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손과 무릎을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댄 채, 갑자기 감전된 것처럼 목을 뒤로 젖혔다. 광경은 마치 산 제물을 바치는 의식 같았다. 경기장 안의 공기는 산소가 빨려 나간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 * *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보소서. 제 딸 릴리와 그 아이의 세대를 보소서. 당신을 멀리한 공허함이 아이들의 영혼에 남긴 것을 저는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무의미한 절규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지켜보고 계신지요?"

나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무언가—무엇이든—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무언가를 원했다.

* * *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가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한 장, 원본 기사 링크 하나,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만 있었다.

"테일러, 이 사진 믿을 만한지 한번 봐봐!"

* * *

성모상이었다. 하얀 도자기로 빚은. 작은 기도실에 놓여 있었고, 전등 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성모상의 오른쪽 눈가에서...

검붉은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진이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 * *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음악 소리도, 군중도 잊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주위의 온 세상이... 침묵에 잠긴 것 같았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일깨워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단 1 분도 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 * *

나는 여전히 휴대전화 속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바로 그때 비가 쏟아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바람도, 천둥소리도 없었다. 그저
묵직한 빗방울들이 갑자기 무대 지붕을 때리고, 마치 누군
가 물이 가득 담긴 하늘을 찢어버린 듯 관중석으로 쏟아져
내렸다.

인파의 바다는 처음에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초간의 정적. 그러다 마지막 겉옷을 벗어 던진 듯 환호성
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더 크게 소리치고, 더 미친 듯이
춤추며, 흠뻑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내리쳤다. 비는
공연 초반부터 억눌려왔던 35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집
단적인 갈증 해소의 의식과도 같았다. 흠뻑 젖은 살갗 한
뼘 한 뼘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셔츠는 피부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은 야생의 뿌리처럼 풀어헤쳐졌다. 아무도 도망
치지 않았다. 아무도 비 피할 곳을 찾지 않았다.

레이저 조명이 빗줄기 사이로 계속 번쩍이며,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은 환영을 만들어냈다.

리드 싱어는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혀 빗물이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게 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우리는 씻겨졌다! 이것은 부활의 불이다! 하늘은 필요 없다! 신은 필요 없다!”

군중은 최면에 걸린 듯 따라 외쳤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는 군중이 가수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으로 따라 외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온몸이 차갑게 젖었다. 반은 비 때문이었고, 반은... 그때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다시 한번 성모상을 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덮었다. 돌아섰다.

망설임 없이.

* * *

나는 뒤쪽 기술용 출입구를 통해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그곳에서는 몇몇 보안 요원들이 양철 지붕 아래서 빗소리를 들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무도 내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마도 빗소리와 음악 소리 속에서 나는 그저 이름 없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을 것이다.

큰길로 나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선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내가 약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다. 음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마치 열병의 메아리처럼 귓속에서 박동을 쳤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다. 텅 빈 동시에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 * *

택시가 출발하기 전, 나는 젖은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딸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그 애가 경기장 안에 있다면 함께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이윽고 약간 나른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이에요. 영화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나는 숨을 내쉬었다.

아주 길게…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막 솟아오른 듯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계속 보렴.”

“네, 엄마도 빨리 들어와서 쉬세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좌석에 몸을 기댔다. 비는 여전히 차창 밖으로 고르게 쏟아졌다. 가로등 불빛이 물결을 뚫고 들어와 너털너털한 빛의 띠를 만들었다.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열었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성모 마리아상 피눈물”

“우는 성모상 진짜 가짜”

“포토샵 종교 기적 사기”

구글은 여러 결과를 쏟아냈다.

“우는 성모상 현상: 기적인가 사기인가”

“교회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믿음은 여전히 퍼져나가”

“디지털 사진 전문가, 비정상적 징후 분석”

“포토샵인가 기적인가? 인터넷 여론 격렬한 논쟁”

나는 기사 제목들을 훑어보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설득당할까 두려워서도, 그 기이한 일을 믿게 되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 눈빛—성모상의 눈빛—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기사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었다.

* * *

나는 거의 10 시가 다 되어 아파트에 도착했다. 비는 여전히 지붕 위로 고르게 떨어졌고, 그 묵직한 박자는 멈출 기미 없이 이어졌다... 복도 불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임을 알 수 있을 만큼은
밝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젖은 옷을 재빨리 갈아
입은 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치 낯선 땅에서 막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곳이 거짓되었
기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적나라해
서, 내 안의 모든 익숙한 개념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 * *

나는 평소처럼 관성에 따라 신문사에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편집기가 하얗게 나타났다.

나는 첫 줄을 입력했다.

불의 메아리: 젊은 세대,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다

나는 평소처럼 계속 쓸 생각이었다. 매끄러운 요약, 멋진 사진과 함께 몇 개의 인용문, '개인의 자유'와 '예술적 창조'에 대한 몇몇 언급들.

나는 표면을 붙잡고, 거친 부분들을 다듬어내어, 내일 아침 독자들이 쉽게 삼킬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 * *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열었다.

성모상 사진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고요했다. 설명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다.

그저 오른쪽 눈가에서 검붉은 피 한 방울이 흘러나와 하얀 도자기 얼굴 위로 번져 있었다.

조금 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휴대전화로 재빨리 검색했었다. 선정적인 제목들, 상반된 주장들을 훑어보았다. 어떤 기사도 클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다시 한번. 제대로.

* * *

나는 브라우저를 열었다. 검색어를 다시 입력했다.

“성모 마리아상 피눈물: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각 링크를 클릭했다.

가톨릭 웹사이트의 기사들이 있었다.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반론을 제기하는 포럼의 글들도 있었다. 산화 반응과 염분 침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나는 각 문단을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 * *

각 기사 아래에는 하나의 작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탈리아의 작은 경당에서 비슷한 현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는 비꼬았다. “홍보팀 일 잘하네. 성모상에 피 흘리는 포토샵을 해놔도 믿는군!”

한 의사는 도자기 재료 위에 가짜 혈흔이 생기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어머니는 딸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전했다. “성모님이 우신다면, 누가 성모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부 읽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모든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 * *

그리고 나는 다시 화면 앞에 앉았다.

편집기로 돌아왔다.

나는 기존의 서두를 전부 지웠다.

제목도 없었다. 정해진 관점도 없었다.

그저 한 줄을 입력했다.

왜 성모상은 눈물을 흘렸나?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 순간에 내게 온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성모님은 저 광란의 콘서트 현장을 목격하며 울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을 보며 울고 계셨던 걸까...?’

나는 한동안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방금 쓴 제목을 다시 지우고 이렇게 썼다.

시대의 병상일지.

커서가 깜박였다.

이름 없는 기다림의 박동처럼.

나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 * *

나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올랐다.

그저 어둠을 향해 옆으로 누웠을 뿐이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뒤틀린 음악 소리, 경련하는 불빛, 그리고 성모상의 이미지가 맴돌았다. 침묵했지만, 어떤 말보다도 깊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권태와 혼란, 그리고 마치 큰불이 꺼진 뒤의 재처럼 스며드는 옅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만이 있었다.

나는 그런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잠시 멈추기 위해서였다.

* * *

내일 아침, 나는 잠에서 깰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끝까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 성모상은 울었는가?

그리고, 정말로 무엇 때문이었을까?

* * * * *

제 2 장: 시대의 병상일지

첫 번째 관점: 창조적 영혼의 타락 (문화 & 예술)

나는 쓰다 말았던 분석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오래된 폴더 안에는 내가 이전에 작업하던 초고가 있었다.
제목은 ‘음악이 더 이상 예술이 아닐 때’였다.

바로 첫 부분에 나는 이렇게 썼다.

“예술은 한때 영혼의 길을 비추는 햇불이었다. 이제
그것은 환상과 조종된 본능을 비추는 볼록 거울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문장들을 처음 입력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
한다. 분노가 아니었다. 안타까움이었다.

* * *

나는 유튜브를 열고, 알고리즘의 추천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날의 시각 문화가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는 듯, 주도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했다. “2020 년대 최
고 인기 뮤직비디오”

가장 먼저 나타난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 젊은 아이돌 그룹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지 불과 몇 초 만에, 내 머릿속의 분석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직업적 메커니즘처럼.

멜로디는 신경 자극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각 훅(hook, 디지털 콘텐츠에서 즉각적인 주의를 끄는 기법)이 나올 때마다 흥분과 폭발적인 느낌을 만들어냈다.

안무는 칼군무였고, 매끄러우면서도 뚝뚝 끊어지는 동작은 비인간적인 수준에 이르러, 마치 악마 무리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가사는 4~6 개의 단어 주기로 구성되어 광고 패턴처럼 반복되었다.

영상은 번쩍이고, 장면은 급하게 전환되며, 조명은 차가웠고, 특수 효과는 과도했다.

가수들과 댄서들은 머리를 온갖 청록자황색으로 물들였고, 다양한 문신을 새겼으며, 의상은 영화 속 악마의 복장과 똑같았다.

화면 속의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악마의 도구였다...

진정한 표정은 없었다. 여백도 없었다. 이야기의 맥락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암호화된 조각들일 뿐이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독시키기 위해서.

* * *

나는 이 현상을 외면해왔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 배후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면해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음악 현상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인격과 감성을 형성하는 전 지구적인 심리 생태계였기 때문이다.

* * *

나는 20 여 년 전, 대학 초년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K 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소위 ‘글로벌 음악 문화’라는 것이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다.

나는 마이클 잭슨 열풍이 기숙사를 홍수처럼 휩쓸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내 친구들은 무대 위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회전, 모든 눈빛에 열광했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모르겠어? 이건 상징이야. 위대하다고.”

나는 물었다. “어디가 위대한데? 메시지, 아니면 기술?”

그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느끼면 돼.”

그 말은 조용한 충격처럼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 * *

나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든 노래가 기도인 교회 음악 속에서 자랐다.

동양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고금(古琴) 연주곡
이나 아시아 시골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민요 속에서 또
다른 깊이를 발견했다.

그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다. 자극적이지도 않았다.

처음 5 초 만에 당신을 “와우”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면, 그것은 아주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다. 마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맑은 물줄기처럼.

* * *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음악은 역설 그 자체다.

화려할수록 공허하고.

소란스러울수록 고요하며.

육욕을 자극할수록 진정한 감정을 잃어버린다.

나는 예술이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타락하는 퇴보다.

* * *

나는 수첩의 메모를 다시 들춰보았다. 굵게 밑줄 친 한 문장이 있었다.

“가장 교묘한 타락은 완벽함으로 포장된 타락이다.”

젊은 아이돌들은 무대 위에서 ‘자기 해방’에 대해 외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검열된 상품이다. 키, 목소리, 발음 방식, 심지어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된 감정까지도.

나는 포장된 상품처럼 생산된 합창단을 본다.

나는 비발디(18 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의 한 협주곡을 떠올린다. 그곳에서는 모든 박자의 오르내림이 우주의 심장 박동 같았다.

나는 비교한다. 그리고 몸서리친다.

* * *

우리는 예술 속의 고요함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음악은 한때 신성한 것과 연결되는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오락 도구가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음악을 쓰는 사람은 없다. 그저 ‘플랫폼에서 시청자를 15 초간 붙잡아 둘’ 음악만 있을 뿐이다.

나는 마지막 문장들을 입력했다.

“진정한 음악은 인간을 승화시킨다. 오늘날의 음악은 그들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고, 저항하고,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의지를 갖지 못할 것이다.”

* * *

나는 타이핑을 멈추고 일어섰다.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랐다.

뮤직비디오의 이미지들이 여전히 등 뒤 화면에서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작년에 굶게 그어놓았던 한 줄이 있었다.

“예술이 더 이상 빛을 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인류 마음속의 검은 그림자가 된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대표적으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과 같은 현대 밴드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추앙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권위 있는 음악상을 수상했고,

심지어 어떤 그룹은 유엔 본부에 초청되어 전 세계 앞에서
영예를 안기도 했다!!

* * *

기억은 나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었다. 회화.

뉴욕에서, 나는 한 현대 미술 전시회장에 들어간 적이 있
다. 그곳에는 수억 달러짜리 ‘걸작’이 전시되어 있었다.

몇몇 얼룩진 색과 마치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장난친 듯
한 흔적이 남겨진 거대한 캔버스 덩어리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감정도, 깊이도 없었다. 영혼에 와닿
는 그 어떤 울림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소개판을 읽었다.

“이 작품은 현대 질서의 붕괴 앞에서 예술가가 겪는
내면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한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도 소개 문장이 그림 자체보다
더 공들여 다듬어진 듯했다.

* * *

저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앞에서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 수학, 예술이 신성한 기하학의 협주곡 속에서 하나로 모이는 곳이었죠.

저는 당나라 시대의 한 불상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천 년도 더 전에 새겨진 자비로운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날 소위 ‘최고의 예술’이라 불리는 것들은 저를…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수치입니다.

빌럼 데 쿠닝의 추상적인 소용돌이 덩어리인 ‘인터체인지’는 3 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같은 작가의 뒤틀린 얼굴과 기괴한 몸을 그린 ‘여인 III’는 1 억 3,750 만 달러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크 로스코의 ‘No. 1 (레드 앤 블루)’는 그저 두 개의 색 덩어리를 겹쳐 놓은 것뿐인데, 7,510 만 달러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울의 ‘라이엇(Riot)’은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RIOT 이라는 네 글자만 덩그러니 인쇄되어 있는데, 2,990 만 달러였습니다.

만약 예술이 영감을 주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 그림들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한 블로그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림 자체의 혼란스럽고, 뒤틀리고, 기괴한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여전히 영혼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며, 심지어 메스꺼움을 느낄 것이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이나 어디에선가, 코끼리에게 붓을 쥐여주고 캔버스에 마구 그리도록 훈련시킨 다음, 그것을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라 부르며 경매에 내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몇몇 ‘거장’들과 비교하면, 그 코끼리의 그림이 오히려… 더 보기 편할 정도입니다!

저는 원고에 신랄한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현대 예술계의 ‘눈부신’ 진화 속도라면, 머지않아…
똥 한 무더기를 그린 그림이 ‘반지구중심주의 작품’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10 억 달러에 팔리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과장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한 ‘현대 예술가’가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여놓고 ‘코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
12 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재미있다고 느낀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스트모던 사상의 정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요?
저는 그것을 인류의 양심을 향한 마성(魔性)의 마지막 조롱이라고 부릅니다.

* * *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예술이 도덕 없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혼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다.”

* * *

나는 영화로 넘어갔다. 한때 정점이라 여겨졌던 ‘종합 예술’의 한 형태.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영화는 도리(道理)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마치 관객들이 더 이상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액션 장면, 화려한 특수 효과, 비이성적인 폭력, 그리고 과시적인 육욕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

나는 수백 개의 이런 종류의 댓글을 읽었다.

“플롯은 필요 없고, 폭발 장면만 멋지면 돼.”

“각본은 구멍투성이지만, 남자 주인공의 비주얼과 복근이 영화 전체를 살렸어.”

“깊이를 요구하지 마. 사람들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 도피를 위해 보는 거야.”

그리하여 예술은 스스로 탈바꿈했다. 영성으로 가는 다리에서... 중독성 있는 오락 도구로.

* * *

나는 아이작 와츠가 작곡한, 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익숙한 찬송가 ‘Joy to the World’를 떠올렸다.

웅장하지 않다. 음향 필터도 없다. 그저 선한 것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박한 노랫말일 뿐이다.

그 음악이 밤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이 받쳐 올려지는 것을.

하지만 오늘날, 영화관에서 나는 그저 압도당하고, 피곤하고, 텅 빈 느낌만을 받는다.

* * *

나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들을 입력했다.

“예술의 가장 교묘한 타락은,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을
을 빛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창조’라는 이름으로 그
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질문.

“우리는 무엇을 대가로 치렀기에… 이것을 창조의
자유라고 부르는가?”

* * * * *

**두 번째 관점: 지식인의 타협과 지성의 쇠퇴 (언론
& 소셜 미디어)**

나는 컴퓨터에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다시 열었다. 약 1
년여 전에 내가 작성했던 기사였다.

원래 제목은 ‘어둠으로 가득 찬 한 학교의 내부’였다.

하지만 편집을 거쳐 공개적으로 게재된 제목은 이것이었
다.

“교사, 학생을 입원할 때까지 폭행: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한다. 분노. 혼란.

내 탐사 보도는 원래 학교의 침묵 메커니즘, 체계적인 은
폐, 그리고 피해자가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깊이 파고들었
다. 하지만 그 전체 부분—2,000 자가 넘는—은 편집 과정
에서 삭제되었다. 그들은 몇몇 충격적인 세부 사항만 남겨
두고, 대중의 분노를 약간 덧붙여 1 면에 실었다.

* * *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한때 수많은 원로 기자들을 존경했었다. 분쟁 지역에서 소식을 전하고, 은폐된 사건들을 파헤쳤던 사람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나는 그들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이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상만으로는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제 4 의 권력’이라 불렸던 언론은, 이제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과 대중 감정의 뒤에 서 있다.

옛날에는 기자가 되려면 도덕성, 용기, 그리고 폭넓은 사회적 지식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글 쓰는 사람이 틱톡 트렌드를 따라잡고 페이스북에서 ‘예술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줄만 알면 될지도 모른다.

* * *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몇몇 인턴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언론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도 주문에 따라 글을 써야 했던 적이 있다.
“18-25 세 여성 독자층 조회수 증가, 감성적이고 논쟁적인 요소 추가.”

한번은 편집장이 내게 이런 제목을 제안했다. “가수 X 의 전 연인, 그해 결별에 대해 갑자기 입을 열다.”

나는 물었다. “이게 교육 주제와 무슨 상관이죠?”

그는 간단히 답했다. “정치 뉴스를 누가 읽나? 일단 조회수 끌기 위해 이 한 줄 넣고,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지.”

* * *

나는 휴대전화를 열었다. 화면을 넘겼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각각의 플랫폼은 끝없는 짧은 동영상 컨베이어 벨트 같았다. 15 초, 30 초, 60 초. 모든 것이 주의를 꼭 붙잡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가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에서 한 신경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짧은 콘텐츠 구조는 가벼운 중독처럼 정신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되면, 그것은 인간의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선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주의력의 파편화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1000 자짜리 긴 글을 읽지 못한다.

세 문단에 걸친 논점을 따라가지 못한다.

심지어 오늘날의 글들은 매 줄마다 ‘끊어 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냥 넘겨버릴’ 테니까.

* * *

나는 수첩에 한 줄을 그었다.

“진실을 이해하는 데는 10 분이 걸린다.

거짓말이 분노를 유발하는 데는 5 초면 충분하다.

오늘날의 미디어 세상에서—과연 무엇이 이길까?”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독립적인 사고의 불씨를 지킬 수 있는 곳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곳은 개인이 가장 주도적이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것이다.

하나만이 아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거의 모든 플랫폼이 일제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남자의 목소리를 잠가버렸다.

당신이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냉엄한 사실로 남는다. 한 개인이 ‘익명의 위원회’들의 클릭 몇 번만으로 공적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대통령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가 ‘문전박대’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 일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이었다.

소셜 미디어는 이제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된다. 이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방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 * *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이제 저급한 ‘오락성’ 콘텐츠가 판치는 혼돈의 장이 되어버렸다...

소위 ‘열린 공간’이라는 그것은, 실제로는 각자가 이미 믿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일련의 반향실(echo chamber)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40 억 명이 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대화 능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는 전례 없이 거대한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인 사고 능력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1 분 책 요약’을 본다.

토론 하나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저 중간에서 발췌한 한 문장을 골라, 배경 음악을 입히고 자극적인 제목을 단다.

* * *

한번은 갓 졸업한 한 학생에게 물었다.

“읽는 거 좋아해요?”

그녀는 대답했다.

“매일 아침 5 분짜리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해요. 더 길면 귀찮더라고요.”

‘읽기 귀찮아하는’ 사회가 반드시 무지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기를 꺼리고, 토론을 두려워하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기를 좋아하는 사회는, 확실히 지성의 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 * *

나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입력했다.

“일단 진실을 이해하는 데 10 분이 걸리고, 거짓말이 분노를 유발하는 데 5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성이 스스로 멸종하는 것이다.”

나는 화면을 꺾다. 그리고 자문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원고를 제출한다면,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 * * * *

세 번째 관점: 기반의 혼란 (도덕 & 사회)

그날 밤, 나는 한 뉴스를 읽었다.

한 중학교의 후배 학생들이 교실 문을 잠그고, 음악 교사에게 슬리퍼를 던진 뒤, 그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도전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선생님이 노래를 못하면 당해야지.”

사건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밈(meme)을 만들고 리믹스 음악을 붙이는 사람들만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교사 때문이 아니었다. 이 사회 때문이었다. 도덕적 혼란이 더 이상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

* * *

나는 옛 교리서에 적힌 한 구절을 기억한다.

“가정은 신께서 인간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주신 첫 번째 기반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때 기반이었던 그것은 장애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성별, 역할, 의무가 모두 휴대전화 앱처럼 선택 가능한 ‘현대적 가정’ 모델을 장려한다.

* * *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의 현실을 기록할 뿐이다.

모든 개념이 재정의될 수 있을 때, 기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 * *

나는 한 학생이 부모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부모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틱톡에서는 다르게 가르쳐요!”

한 좌담회에서, 한 교사가 이야기했다.

“제 7 학년 학생이 제게 고백하더군요. 자기는 오직... 유튜브 쇼츠에만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은 ‘구식’이고, 친구들은 ‘판단’하니까요.”

* * *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이제 한 세대의 정신적 부모, 가상 교사, 시뮬레이션된 절친이 되었다.

반면 자녀와 부모,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색하고, 냉담하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했다.

도리가 가정과 학교 구조에서 분리될 때, 아이들은 어디에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가?

* * *

사회악은 오래전부터 더 이상 ‘먼’ 문제가 아니었다.

학내 마약 문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금융 사기, 그리고
만연한 음란물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런 것들이 현대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옛날에는 그것들이 사회악이라 불렸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성 해방’으로 위장된다.

* * *

나는 한 내부 설문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80% 이상의 어린이가 12 세 이전에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일부는 심지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없이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터넷에는 음란 만화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다.

* * *

그 외에도, 현실과 인터넷 양쪽에서 사기, 절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난해서 훔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유명해지고 싶어 훔치는 사람도 있다.

더 충격적일수록, 더 많이 공유된다.

더 뻔뻔할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사회는 잘못된 것을 생존의 도구로 변질시켰다.

* * *

아마도 나를 가장 고뇌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한 흐름이다.

“성적 자유.”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동성 결혼(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비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때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현대적 인권’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나는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자문할 뿐이다.

만약 한 아이가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게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까?

만약 성별이 단지 ‘느낌’에 불과하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 * *

나는 믿는다.

천리(天理)는 변하지 않는다.

성별은 관점이 아니다.

윤리는 다수에 의해 다시 쓰일 수 없다.

자연에 반하고, 양심에 반하며, 전통문화에 반하는 것들은,
비록 법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결코 사회의 건강한 기반이
될 수 없다.

* * *

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으며 마무리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그것을… 정상 상태라고 부른
다면, 우리는 그 몸을 치료할 수 없다.”

* * *

네 번째 관점: 권력과 믿음의 공허함 (정치 & 종교)

권력: 민주주의 장막 뒤의 유령

어느 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 채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 간의 생방송 토론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서로를 공격했다.

“당신은 교육 예산을 삭감해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실제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몇 가지 익숙한 구호를 받아 적었다.

“정의를 위하여”, “신뢰 재건”, “제도 혁신”...

하지만 모든 것이 공허했다. 아무도 감히 ‘정의’가 무엇인지, ‘제도’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정의하지 못했다.

* * *

나는 20 년 넘게 정치-사회부 기자로 일했다. 나는 한때 권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더 많이 접할수록 나는 더 깊이 깨달았다.

현대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지와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세 방향의 영향력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진다.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대중 매체.

배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그룹.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얕아지고 조종하기 쉬운 유권자의 취향.

한 정치인이 언론과 협력하지 않으면, 비방을 당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대중의 입맛에 맞추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밀려날 것이다.

권력은 임기만큼만 지속되기에,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

* * *

나는 선거운동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 친구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도덕 교육 개혁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지 않나요?”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런 건 표가 안 돼. 하지만 후보가 아기와 악수하는 영상은 표가 되지.”

* * *

반면,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 자체를 대표한다.

그곳에서 권력은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된다. 모든 정책은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 당을 보호하고,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국민은 섬겨야 할 주체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이나 유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은 자의적이고 비인간적이 된다. 감시할 자유 언론이 없고, 반박할 야당이 없으며, 진정한 민의가 없을 때, 권력은 절대적이 되고, 또한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나는 수첩에 결론을 내렸다.

“민주주의든 독재든, 권력이 도덕적 기반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어둠의 게임일 뿐이다.

그때 국민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정해진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

* * *

종교: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종소리

어느 날 오후, 나는 도심의 한 오래된 성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여느 때처럼 규칙적으로. 하지만 안에는 세 명의 노인이 조용히 묵주를 굴리고 있을 뿐이었다.

긴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다. 눈에는 빛이 없었고, 속삭이는 기도 소리도 없었다.

종소리는 울렸지만, 더 이상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없었다.

* * *

나는 큰 성당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모든 것이 웅장했다. 합창단, LED 화면,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하지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카메라를 조정하고, ‘좋아요’를 누르느라 바빴다.

믿음은 이제 파티를 위한 장식 배경에 불과했다.

* * *

오늘날 많은 사찰과 교회는 이제 이벤트 센터처럼 변했다.

어떤 곳은 입장권을 팔 듯 공덕금을 받고, 어떤 곳은 행운의 부적이나 풍수 용품, 병에 담긴 성수를 파는 매대를 열며, 또 어떤 곳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조상 제사 의식을 라이브 스트리밍한다.

일부 개인들은 ‘승려’나 ‘목사’라는 겉모습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기를 치며, 심지어 신도를 학대하기도 한다.

* * *

더 나쁜 것은, 세계 여러 곳에서 종교가 전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성전(聖戰)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총을 쏜다.

교리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다른 성별과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차별하고 살해한다.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공격한다.

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전쟁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없다.

* * *

나는 문득 성경 속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신성한 장소가 장사치들의 시장으로 변한 것에 분노하셨다.

그분은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일반 독자를 위한 부연 설명: 이것은 신약성경의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께서 종교의 오염을 정화하신 것을 보여주며, 믿음의 신성한 품격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이다.)

* * *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주여, 만약 오늘날 당신의 집이 정말로 시장이 되었다면... 부디 한 번 더 그곳을 청소해 주소서. 당신께서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믿음이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닐 때, 인간은 혼돈의 바다 한 가운데서 방향 없이 표류할 것이다.

한 사회는 금이나 석유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도리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권력이 썩고 믿음이 왜곡될 때, 그때가 바로 문명의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 * *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밝았고, 수
많은 메모와 인용문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내가 방금 지나온 모든 주제들—음악, 예술, 소셜 미디어,
정치, 종교—는 각각 흩어진 조각들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마치 모든 혈관이 쇠약해져 가는 하나의 심장으로 이어지
는 것처럼.

형태는 다르고, 여러 분야에서 표현되었지만, 나는 깨달았
다.

그 모든 증상들은 하나의 뿌리 깊은 병의 근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신(神)과의 단절,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 기준
에 대한 거부였다.

우리는 성현(聖賢)들이 세운 도덕적 기반을 버렸다.

우리는 경전을 비웃고, 신앙을 조롱하며, 신성한 가르침을 정치적 구호와 도덕 마케팅 캠페인으로 대체했다.

우리는 마천루를 짓고, 화려한 불빛의 금융 중심가를 건설했지만, 각 사람의 내면의 빛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양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온함은 없다.

* * *

나는 수첩에 마지막 한 줄을 기록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지만,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 바벨탑은 바로 그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신의 눈물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리라.”

* * *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깊었다. 도시는 여전히 환했지만, 내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병상일지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양심 있는 의사라면, 진단만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환자의 몸 안과 밖, 양쪽에서 더 깊은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

인간은 그러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어떠한가?

이 행성과 우주가 스스로의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다른 증상들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 * *

제 3 장: 돌의 눈물, 강물의 피

나는 노트북 옆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시대의 병상일지’ 원고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우는 성모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얀 도자기 눈가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 한 방울.

그것은 낙인처럼, 말 없는 질문처럼 남았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의 신호일까?

나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알아내야 한다는 충동이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물은 단 하나의 독립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울음소리’ 중 하나일 뿐일까?”

“그리고 그 모든 울음소리는 하나의 공통된 고통, 하나의 공통된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존의 마감 시한이나 신문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강박적인 이끌림 때문에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체계화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가장 비극적인 색채를 띤 기이한 현상들에 집중했다. 가장 상징성이 높은 징후들에.

나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검색했다. 보고서들을 깊이 파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찾아냈다...

* * * * *

1 단계: 비극적 징후 수집

사건 파일 #1: 성스러운 존재들의 눈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대륙에서 일어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다. 모두 믿음과 신성함의 상징인 성상(聖像)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1953 년, 이탈리아 시라쿠사. 한 젊은 부부의 집에 있던 작은 석고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손수건을 가져와 그 눈물 몇 방울이라도 적셔가기를 소망했다. 언론은 떠들썩했다. 교회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눈물을 검사했고, 진짜였다. 그들은 성상의 구조를 확인했지만, 어떤 배수관이나 기술적인 구멍도 없었다. 마침내, 바티칸은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20 년 후, 일본 아키타. 작은 수녀원의 한 성모상이 100 번 이상 피와 눈물을 흘렸다. 아그네스 사사가와라는 한 수녀는,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끔찍한 형벌이 내릴 것이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일본 언론에 의해 무시당하다가, 1988 년 바티칸이 조용히 검증하고 나서야 공인되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태국, 대만, 브라질, 캐나다에서.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비디오가 있고, 사진이 있었다. 일부는 신속하게 검열되었다. 하지만 흔적은 포럼이나 비공식 네트워크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오슝의 작은 사찰에서 관음보살상이 눈물을 흘렸다. 상파울루의 한 목조 예수상

은 부활절 미사 중에 피눈물을 흘렸다. 토론토의 한 성모상은 신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떨어뜨렸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가?

대개는 침묵했다. 혹은 부인했다. 아니면 재빨리 ‘모세관 현상’이나 ‘비정상적인 습기’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과학자들은 신중했다. 일부는 기술적인 가설들을 제시했다. 속이 빈 석고가 습기를 빨아들이거나, 온도에 따른 팽창과 수축, 혹은 물이 스며드는 균열 등… 하지만 신도들과 독립 언론인들을 포함한 현장 조사자들은 실지 검증을 통해 반박했다. 내부에는 물이 없었고, 관도 없었으며, 물방울은… 실제 눈물과 같은 생물학적 특징을 띠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했는가?

현상이 있는 곳에 순례자가 있었다. 자녀의 치유를 빌기 위해 데려온 어머니들이 있었다. 빗속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상을 본 후 자살하려던 생각을 접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종교계는 분열되었다. 일부 사제, 승려, 수사들은 그것이 기적이며, 천상계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 미신으로 불릴까 두려워했고, ‘영적으로 무지한 대중’과 동일시될까 두려워했다.

나는 각 사건을 기록했다. 각 얼굴을. 각 눈물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내가 수집하는 것이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울음소리였다.

* * *

사건 파일 #2: 붉게 변하는 강

만약 눈물이 신성한 고통의 상징이라면, 피처럼 붉은 강은 아마도 전 인류를 향한 경고일 것이다.

나는 2010 년 이후로 강, 운하, 심지어 호수까지 예고 없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검붉은 색으로 변한 수십 건의 사례를 찾아냈다. 명확한 오염원도 없었고, 대부분은 의문 부호로 끝났다.

중국에서, 동양 문명의 살아있는 상징인 양쯔강은 2012년 충칭을 지나는 구간이 피처럼 붉게 변한 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관영 매체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토사 때문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류와 하류는 여전히 맑은데 왜 특정 구간만 그랬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는 2011년 베이루트강이 갑자기 피처럼 붉게 변했다. 정부는 도축장에서 나온 폐수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근처에 도축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땅의 피’이며, 신성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7년 메단의 델리강이 하룻밤 사이에 선홍색으로 변했다.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정부는 한 공장을 탓했지만, 이름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독립 언론은 이후 그 시점에 생산 공정을 변경한 제조업체가 없었음을 발견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021년 여름 텍사스의 한 강줄기가 붉게 물든 적이 있다. 환경보호청(EPA)은 적조나 광물 반응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 주민 그룹이 샘플을 채

취해 독립적으로 검사한 결과, 조류의 흔적도, 중금속도, 그 어떤 합리적인 기술적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눈으로, 나는 그 강들을 상처 입은 혈관처럼 보았다. 지구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직 고해되지 않은 죄를 예고하듯, 붉은 상처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 * *

사건 파일 #3: 여름에 내리는 눈

만약 눈물이 슬픔의 상징이고, 붉은 강이 응보라면, 한여름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나는 이례적인 강설에 대한 정보들을 추적했다. 단순히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비논리적인 시기와 장소에서 내린 눈이었다.

2019 년 6 월, 인도 북서부. 바깥 온도는 섭씨 38 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고, 15 분 동안 가볍게 눈이 내렸다. 주민들은 영상을 찍었고, 정부는 “대기 중 화학 반응으로

인한 백색 먼지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 그것은 진짜 눈처럼 손 위에서 녹았을까?

2021 년 7 월, 알제리 사하라 사막. 뜨거운 모래 언덕 위로 얇은 눈이 덮였다. 측정된 온도는 섭씨 40 도였다. 과학자들은 대기층의 교란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왜 인근 지역에서는 비슷한 징후가 전혀 없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눈이 더 이상 겨울에만 내리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음력으로 이미 여름에 접어드는 4 월, 5 월, 심지어 6 월에도 폭설이 내렸다는 기록이 많았다.

허베이, 내몽골, 혹은 창바이산(백두산)에서는 다른 많은 지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동안, 하얀 눈이 거리를 뒤덮었다.

언론은 그것을 ‘기후 변화’라고 불렀다. 네티즌들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불렀다.

반면 나는, 단 한 가지만을 느꼈다. 하늘이 무언가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나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한 고대 한자 포럼에서 ‘육월비상(六月飛霜)’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였다. 한 사용자가 이렇게 썼다. “하늘이 6 월에 눈을 내리는 것은, 오직 천지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구절을 저장했다. 마치 고대의 암호를 곧 풀어낼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 * *

다른 징후들

눈물뿐만이 아니었다. 피나 눈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흩어져 있는 뉴스들을 보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물고기 떼가 해안으로 뛰어올라 집단 폐사했다. 철새들이 항로를 이탈해 도시로 돌진하며 집단 자살했다. 해가 두세 개 동시에 뜨는 현상—‘환일(幻日)’ 현상이라 불리지만, 그 빈도가 이례적으로 잦았다. 계절에 맞지 않는 천둥 번개 현상, 맑은 하늘에 번쩍이는 푸른 빛, 땅속에서 울리는 굉음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기이한 기상 이변도 있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음력 설, 나는 베트남 북부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선달그믐 밤, 나는 축제 분위기로 들뜬 한 관광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설맞이 장난감을 사며,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느라 북적였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달 없는 음력 30 일의 모든 밤처럼. 갑자기, 밤 10 시가 가까워질 무렵,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는 굵고 세차게 내렸고, 이윽고—나는 숨을 멈췄다—차가운 얼음 알갱이들이 도로와 양철 지붕, 차량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른들은 머리를 감싸 쥐며 황급히 달아났다. 모두가 당황했다. 북부의 겨울에 가랑비는 흔한 일이지만,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선달그믐 밤, 베트남 북부의 여러 성(省)에서 우박이 동시에 쏟아졌다는 것을. 하노이, 타이응우옌, 푸토, 뚜옌꽁 등... 모두 비슷한 현상이 기록되었다.

나는 그때 몇몇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칠십 평생 이런 설은 처음 보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때가 바로 ‘코로나’라는 이름
의 이상한 바이러스에 대한 첫 소식이 국제 뉴스에 등장하
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될 줄 몰랐다. 하지
만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다. 마치 본 적 없는 암흑의 시대
로 통하는 문이 막 열린 것처럼.

이런 기이한 기상 현상들은 보통 정부와 과학계에서 피상
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나는 천상(天上)이 인
간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 *

사색(思索)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화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성상
들, 검붉은 강물, 사막의 모래를 뒤덮은 눈이 있었다.

나는 옛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하늘은 울고, 땅은 진동하며, 산은 부르짖고, 강은 붉어진다.”

돌의 눈물. 강물의 피. 여름의 눈. 겨울의 우박. 별들의 혼란. 생명들의 절망.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비통한 합창곡을 함께 연주하는 듯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

나는 곧 알아낼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전에, 나는 그 구절의 흔적을 따라가야 했다. “육월비상(六月飛霜).”

* * * * *

2 단계: 해독의 열쇠 – “6 월의 눈”

나는 화면 앞에서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물 흘리는 성상들, 핏빛 강물,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은 눈…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내 시선은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한 구절에 멈췄다. ‘6 월의 눈(六月飛霜)’.

고대 한자 연구 포럼의 한 댓글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고대 한자였다. 글쓴이는 단 한 줄의 짧은 글만 남겼다.

“하늘이 6 월에 눈을 내리는 것은, 오직 천지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문장을 두 번, 그리고 세 번 다시 읽었다. 기이한 감각이 가슴속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마치 언어의 암호가 아닌, 도리(道理)의 암호를 막 만진 것 같았다.

“육월비상(六月飛霜)” – “6 월의 눈”.

내가 아는 모든 문화권에서 6 월은 하지(夏至)의 달이며, (북반구에서는) 태양 빛이 가장 높고 강렬한 때이다. 그때는 눈이 내릴 수 없다. 자연의 질서가 뒤바뀌지 않는 한. 하늘이 감응해야만 한다. 우주의 법리가 어긋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원인은 바로 너무나도 큰 원한이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육월비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은유인가, 아니면 실존했던 이야기인가?

그 결과, 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전 희곡 중 하나인 관한경(關漢卿)의 ‘두아원(竇娥冤)’으로 이끌렸다.

* * *

그녀의 이름은 두아(竇娥)였다.

난세에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젊은 부인.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아 또한 가난한 집안에 며느리로 팔려갔다. 남편이 일찍 죽은 후, 그녀는 시아버지와 함께 외롭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한 억울한 사건 속에서, 탐욕스러운 한 지주가 그녀를 차지하려는 계략으로 그녀에게 독살 누명을 씌웠다. 정작 범인은 그 자신이었음에도. 증거가 없고, 그녀가 한사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리는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처형되기 전, 두아는 형장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간청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하늘이시여, 세 가지를 증명해 주소서.

첫째, 제 피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솟구칠 것입니다.

둘째, 한여름 6 월에 하늘에서 흰 눈이 펄펄 내릴 것입니다.

셋째, 제가 죽은 뒤 이 지역은 3 년간 가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피는 솟구쳐 위로 날아올랐다. 6 월 한가운데, 하늘에서는 갑자기 흰 눈이 내렸다. 그리고 그 후 3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에서는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수 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하늘과 땅의 감응과 원한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6

월의 눈'은 상식에 어긋나지만 천리(天理)에는 맞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간결한 표현이 되었다.

* * *

나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권력도, 목소리도 없는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하늘이 그녀를 대신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리에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은 천장을 향했다. 이미지들이 다시 떠올랐다.

불타는 모래 언덕을 하얗게 뒤덮은 사하라 사막의 눈.

한 재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안, 인도 한여름에 15분간 내린 눈.

여름에 여러 지역에서 내린 중국의 눈.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절대로.

만약 단지 극한의 기후 현상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정확한 시점과 특별한 맥락, 그리고 ‘원한의 기운(怨氣)’이라는 개념과 그토록 일치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번에는 간체자로 “六月飛霜”이라는 세 글자를 다시 입력했다. 수많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자들은 그것을 ‘감응(感應)’ 현상이라고 불렀다. 일부 동양의 영성 연구가들은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고, 공의가 뒤집히면, 하늘과 땅의 정기(正氣)가 혼란에 빠진다고 믿었다. 여름의 눈과 같은 기이한 자연 현상은 물리적인 혼란이 아니라, 도리적인 피드백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 * *

나는 몸을 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영감이 솟구쳤다. 나는 수첩을 펴고, 첫 줄에 바로 써 내려갔다.

“만약 하나의 억울한 사건 때문에 6 월에 눈이 내릴 수 있다면, 사막 곳곳에서, 메마른 땅 위에서 내리는

눈은 침묵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한 하늘과 땅의 절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계속해서 썼다.

“만약 성상이 울 수 있고, 강이 붉어질 수 있으며, 하늘이 겨울에 우박을 내리고 여름에 눈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 지리, 시간의 모든 장벽을 넘어 대기권을 꿰뚫고 부르짖는 거대한 원한이 있어야만 한다.”

처음으로, 흩어져 있던 현상들이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는 불상과 성모상은 인간 세상의 고통에 대한 감응이었다.

핏빛 강물은 아직 그 대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흘러진 피였다.

그리고 여름의 눈은 가장 명백한 징후였다. 너무나 큰 죄악이 숨겨져 있고, 하늘과 땅이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늘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침묵 앞에서 하늘이 무력한 것이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열었다.

나는 더 이상 기이한 현상들을 찾지 않았다. 나는 잊혀진 사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개되지 않은 박해 사건들. 언론의 어둠 속에 갇힌 억울한 사연들.

이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우리 시대에, 하늘이 여름에 눈을 내리게 할 만큼 거대한 원한은 무엇인가?”

그 질문... 그것이 열쇠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 * * * *

3 단계: 열쇠의 적용과 사건 해결

“만약 하나의 억울한 사건 때문에 6 월에 눈이 내릴 수 있다면, 사막에 내리는 눈, 푸른 하늘 아래 내리는 눈, 돌의 울음소리와 강물의 핏빛 속에서 내리는 눈은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원한을 가리키고 있어야만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적이었다. 시대의 가장 큰 원한을 추적하는 것.

나는 모든 기록을 다시 펼쳤다. 더 깊은 방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숨겨진 박해’, ‘양심수’, ‘신앙 탄압’, ‘주인 없는 시신’ 같은 키워드들. 처음의 결과는 혼란스러웠다. 수백 개의 이름, 수천 개의 사건. 하지만 그러다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파룬궁(法輪功).

나는 멈칫했다.

나는 파룬궁에 대해 꽤 많이 읽어본 적이 있었다. 특히 이 수련법의 신앙과 도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큰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기자처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하나로 꿰기 위해서였다.

* * *

파룬궁은 무엇인가?

선전 매체들이 떠들어대던 ‘사이비 종교’가 아니었다. 나는 기록 영상을 직접 본 적이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원에서 수련하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고, 이른 아침의 햇살이 평온한 얼굴들을 비추는 모습. 구호도, 정치도 없었다. 부드러운 동작과 강조되는 세 글자, 진(真)·선(善)·인(忍)만이 있었다.

파룬궁은 1990년대 초 중국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가져다주는 건강과 도덕적 이로움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수련자 수는 약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너무나 큰 숫자였다. 중국 정권이 우려하기 시작할 만큼 큰.

그리고 마치 독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듯, 1999년 7월 탄압이 시작되었다.

충격적인 질문들

나는 적어 내려갔다.

평화로운 기공 수련이 왜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는가?

단지 명상만 하는 사람들이 왜 고문을 당하고, 감금되며, ‘사상범’이라 불렸는가?

그리고 왜, 수많은 증인과 조사관들에 따르면, 그들은 ‘인체 장기 산업’의 공급원이 되었는가?

나는 국제 자료들을 계속 읽었다.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이었던 데이비드 킬고어와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한 보고서는, 중국에서의 생체 장기 적출 활동에 대한 5 만 페이지가 넘는 조사 자료를 종합했다. 보고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결론을 내렸다. “이 행성에서 전례 없던 사악함.”

나는 얼어붙었다.

* * *

장기 주문—그리고 생명의 대가

나는 사실 확인을 시작했다. 서구 국가에서 신장 하나를 이식받으려면 대기 시간은 보통 6 개월에서 몇 년이다. 간과 심장은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불법 의료 단체들과 의료 관광 업체들이 홍보하는 정보에 따르면, 대기 시간은 불과 며칠에서 몇 주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끔찍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 인권 의사가 인터뷰에서 답했다.

“중국에는 살아있는 장기 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이미 혈액 데이터가 저장된 수감
자들을 검사하고, 적합한 사람을 골라, 장기를 얻기
위해 죽입니다.”

나는 얼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살아있는 장기 은행?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나는 한 증언을 읽었다.

“저는 노동 수용소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파룬
궁 수련생들의 피를 검사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
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 후, 몇몇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
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가족에게는 사망 통지
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장례식도 없었습니
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신성한 성상들이 눈물을 흘리고, 강물
이 핏빛으로 변하며,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이미지들이 이

제는 총알이 아닌 수술로 이루어지는, 비전통적인 집단 학살의 침묵의 증거처럼 떠올랐다.

* * *

인체 표본 전시회—그리고 상업화된 악(惡)

또 다른 뇌리에 박힌 세부 사항. ‘인체 표본화’된 시신 전시회.

2018 년, 소피아 벨이라는 한 기자가 호치민시에서 그런 전시회를 본 적이 있었다. 전시회 이름은 ‘인체의 신비’였다. 그녀는 임신 7~8 개월 된 태아를 드러낸 채 해부된 여성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신 기증 출처도, 유족의 동의도 없었다. 나중에 그녀는 발견했다.

그 시신들은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인체 표본화 공장들은 1999 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했다.

설립자는 독일인 군터 폰 하겐스였지만, 대규모 감금 시설이 있는 다렌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귀한 장기는 강탈되어 팔렸다. 남은 시신은 표본화되어 전시되었다.”

“희생자는 살해된 후, 과학과 예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욕당했다.”

* * *

믿을 수 없는 숫자

나는 계속 읽었다.

‘대학살(The Slaughter)’의 저자 에단 굿맨은, 2000 년에서 2008 년 사이에 6 만 5 천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를 적출당하기 위해 살해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몇 년간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단체들까지 표적이 되면서, 이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었다.

나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다.

나는 병원 데이터, 이식 수술 건수, 병상 수, 의사 수… 모든 것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보여주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장기 이식 건수가 그들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의 양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해부된 바로 그 육체들 안에 있다는 것을.

* * *

신성한 성상들, 돌의 눈물로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키타의 성모상은 101 번 피눈물을 흘렸다.

가오슝의 관음보살상은 칠월 보름에 눈물을 흘렸다.

쓰촨성 지진 추모식에는 눈이 내렸다.

텍사스의 작은 강은 한 조사관이 중국의 장기 이식에 대한 보고서를 막 발표한 직후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감히 단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자연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희생자들을 대신해 말하고 있다는 느낌.

* * *

침묵의 선고

나는 한 희생자의 아버지인 류쓰위안 씨의 말이 떠올랐다.

“딸아이가 장기를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비인간성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시신이 표본화되어 전시되고, 상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들의 악에는 바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나는 기자였다. 나는 온갖 종류의 죄악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이름 붙일 수 없고, 보고서로 쓸 수 없으며, 어떤 법적 범주에도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들은 오직 이렇게만 불릴 수 있었다. 반인류 범죄.

* * *

마지막 말—하지만 끝은 아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눈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방금 얼음이 떨어진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쓸 것이다. 단지 기사가 아니다. 고발장이다.

침묵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그리고 마치 여름에는 눈이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양심의 고발장.

* * * * *

장자석(藏字石)과 하늘의 심판

만약 피의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땅이 말할 것이다. 만약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돌이 쓸 것이다. 만약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하늘이 손을 쓸 것이다.

나는 내가 수집한 것들—신성한 성상들의 눈물, 핏빛으로 변한 강, 한여름의 눈—이 이미 극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이야기에 닿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물에 녹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 돌에서 나타난 것. 수억 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한 고대의 돌덩이가 갑자기 갈라져… 하나의 판결문을 드러낸 이야기.

그 이름은 장자석(藏字石)이었다.

* * *

산사태가 드러낸 선언문

2002 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핑탕현 창푸촌에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주민들이 확인하러 갔다가, 거대한

바위 하나가 둘로 쪼개진 것을 발견했다. 기이한 점은 산사태 자체가 아니라, 막 갈라진 바위의 안쪽 면에 있었다. 석회암 층 깊숙이 새겨진 여섯 글자의 한자 한 줄이 있었다.

「中國共產黨亡」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

그 글씨는 아무도 새기지 않았다. 인공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중국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암석은 약 2 억 7 천만 년 전의 것으로, 페름기에 속했다.

기이한 현상.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

처음에는 현지 당국이 꽤... 들뜬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 돌을 “장자석(藏字石, 글자를 품은 돌)”이라 부르며, 전시를 허가하고, 안내판을 만들고, 심지어 브로셔까지 인쇄했다. 하지만 곧, 더 기이한 일이 나타났다. 공식 자료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글자인 “망(亡)”자를 지워버렸다. 즉, 그들은 오직 「中國共產黨」(중국공산당)이라고만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 간 사람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망(亡)”자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깊으며,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정권은 조용히 언론 보도를 중단했다. 기자들은 취재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독립 학자들, 현지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미 사진과 영상을 찍어 국제 포럼에 올린 뒤였다. 그리하여, 현대의 가장 장엄하고 위험한 기이한 현상 중 하나가 드러났다. 하늘이 돌에 판결을 쓴 것이다.

* * *

역사를 가르는 균열

돌덩이는 돌로 쪼개졌다. 한쪽은 “중국공산당”, 다른 쪽은 “망(亡)”. 균열 구조는 마치 레이저로 자른 듯 깔끔하고 단호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흥미로운 지질 현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는 성상들, 계절을 잊은 눈, 핏빛 강들을 지나온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돌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고발장으로 보았다. 하늘로부터 온 선서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존재해 온 국가이다. 하지만 그 어떤 세력도 자연이 이처럼 목소리를 내게 한 적은 없었다. “망(亡)”이라는 글자는 고대 한(漢) 문화에 따르면, 단순히 정치적 ‘멸망’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을 잃고(망본, 亡本), 덕을 잃으며(망덕, 亡德),

명을 잃는 것(망명, 亡命)으로, 즉 도리와 운명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

* * *

하늘은 아무도 왜곡할 수 없는 언어로 썼다

인류 역사상, 글자로, 그림으로, 천문으로, 은유로 된 예언들은 있었다. 하지만 2 억 7 천만 년 된 돌덩이가, 아무도 쓰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지울 수 없는데, 한 획 한 획 정확하고 무서울 정도로 명확한 의미를 담은 여섯 글자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우연의 일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나.

나는 화면 앞에 앉아, 장자석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했다. 글씨의 새김, 부식 정도, 암석 구조를 대조했다. 관영 지질 학자들의 반박 글도 읽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핵심 질문은 피했다. “왜 하필 그 6 글자인가? 왜 선언문처럼 그토록 명확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 * *

하늘은 도(道)를 거스르는 자를 벌한다

나는 고서(古書)에서 인용문들을 찾기 시작했다. 예언의 말씀들, 예언서들. 그리고 나는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다.

“하늘은 백성을 낳아 도로써 기르게 하니, 도를 거스르는 자는 하늘이 벌한다. 「天生民以養道，逆道者，天誅之。」”

(천생민이양도, 역도자, 천주지.)

이 말은 고대 중국의 가르침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또한 서경(書經)에서 한 구절을 찾았다.

“하늘이 보는 것은,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天之見，如水之照。」”

(천지견, 여수지조.)

(하늘의 눈은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 아무도 숨길 수 없다.)

나는 수백 건의 장기 강탈 보고서를 떠올렸다. 나는 출처 없는 인체 표본화된 시신들을 떠올렸다. 나는 딸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목메어 말하던 아버지 류쓰위안 씨를 떠올렸다. “저는 제가 악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께서 읊조리시던 한 옛 시 구절을 떠올렸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天網恢恢，疏而不漏。」”

(천망회회, 소이불루.)

* * *

모두가 여름의 눈을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둘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한 장면을 상상했다. 한 관광객이 장자석(藏字石) 앞에서 있다. 그는 글씨를 읽는다. “중국공산당… 망(亡)?” 그는 사진을 찍는다. 그러다 가이드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

를 돌린다. 그리고 그 구역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리고... 모두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돌 속에. 역사 속에.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균열 속에.

모두가 강물의 피를 보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눈물 흘리는 불상을 믿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6 월의 눈 아래 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자석을 부정할 수 없다. 아무도 그 새겨진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도 하늘을 ‘기소’할 수 없다.

* * *

망(亡) – 끝인가, 아니면 마지막 경고인가?

나는 수첩에 썼다.

“만약 반인류 범죄가 인간에 의해 심판받지 않는다면,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만약 하늘의 판결이 이미 피로, 눈으로, 돌로 새겨졌는데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악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장자석의 ‘망(亡)’ 자는 선포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그것은 아직 마지막 경고라고. 벼락이 내리치기 전에 들어 올린 팔처럼. 하늘의 불길이 휩쓸기 전에 내리는 마지막 계명처럼.

* * *

제 3 장 결론:

나는 이 장의 제목을 ‘돌의 눈물, 강물의 피’라고 지었다. 내가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눈으로가 아니다. 영혼으로. 양심으로. 나는 점쟁이가 아니다. 예언가도 아니다. 나는 그저 잊혀지고, 부정당하고, 혹은 진실의 밑바닥에 묻혀버린 것들을 그러모으는 한 명의 기자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질문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 하늘을 향해 똑바로 던지고 싶은 질문.

“하늘이 울고. 돌이 썼으며. 강이 붉어졌을 때.

인류여, 무엇을 더 기다리며 깨어나지 않는가?”

* * * * *

제 4 장: 메시지의 근원 –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거대한 원한과 하늘과 땅의 징조에 대한 조각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자, 나는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시작했던 조사 여정은 나

를 새로운 문턱으로 이끌었다. 나는 깨달았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의 ‘사건’의 흔적만을 좇는다면, 나는 영원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신성한 눈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견고한 지식의 토대를 쌓고, 여러 시대에 걸친 성스러운 존재들의 언어 자체를 해독해야만 했다.

나의 탐구는 이제부터 새롭고, 더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잠시 개인적인 감정에서 물러나 연구자의 신중함과 방법론으로 예언이라는 강에 접근해야 함을 알았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 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이 ‘목소리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예언에 대해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른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예언가들에게 ‘말한’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어떤 다른 세계에서 온 유형의 목소리였을까, 성스러운 존재들의 가르침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의 깊은 잠재의식에서 번쩍이는 빛이었을까, 혹은 단순히 하늘과 땅이 조용히 보낸 징후들이었을까?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언적 메시지가 인간에게 전달되었다고 여겨지는 무수히 많은 형태를 본다. 이 다양성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과연 단 하나의 ‘발신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지니고 각기 다른 ‘경청’ 방식을 요구하는 무수한 정보 채널들일까?

1. 직접적인 계시: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 온 목소리

세계의 수많은 주요 영적 전통과 종교에서,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 형태는 하나의 공동체, 나아가 전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의 가장 지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원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신, 부처, 하느님, 혹은 그분들의 사자들이 선택된 개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메시지, 가르침, 경고 또는 약속을 주도적으로 전달할 때이다.

우리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지침을 받아 유대인의 신앙과 율법의 토대를 마련한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혹은 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을 통해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말씀들이 수십억 이

슬람 신도들의 삶의 지침서인 쿠란으로 집대성된 예언자 무함마드도 있다. 불교 전통에서도, 조사(祖師)들과 대제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나 다른 세계의 부처, 보살들로부터 미래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에서 비롯된 예언들은 종종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그것들은 단순히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우주와 인생, 도덕적 길과 영적 수양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은 한 민족의 운명, 한 종교나 법문(法門)의 흥망성쇠, 혹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 큰 전환점과 관련될 수 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왜 하필 그 특정 개인들이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전들은 종종 그들을 매우 확고한 믿음을 가졌거나, 순수한 영혼을 지녔거나, 수많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 그 성심을 증명했거나, 혹은 이미 정해진 사명을 지닌 인물로 묘사한다.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 오는 ‘목소리’는 영적인 ‘귀’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넓고 청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듯하다. 이는 또한 더 높은 세계와의 연결이 쉽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수신자 측의 준비와 일정한 의식 주파수의 상응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2. 특별한 능력으로 미래 보기: 천목(天目)과 천기(天機)의 제약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 ‘전달’되는 성격의 계시 외에도, 역사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 정보 접근법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일부 개인이 특별한 능력이나 수련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스스로 ‘보거나’ ‘느낄’ 수 있을 때이다. 이것은 특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일반인에게는 감춰진 정보의 흐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뛰어난 ‘감각’을 소유한 것과 같다.

많은 문화권, 특히 동양에서는 종종 ‘천목(天目)’ 또는 ‘제 3 의 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이는 인간이 3 차원 공간과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일정한 경지에 이른 예언가, 도사, 고행 수련자들은 이 능력을 열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때, 미래의 그림들, 곧 닥칠 변고들이 마치 미리 찍어둔 영화를 보듯 그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국가의 시국과 운명에 대한 신묘한 예언을 했던 제갈량이나, 수 세기에 걸쳐 놀랍도록 적중한 예언서를 남긴 베트남의 짙썬 응우옌 빈 키엠 같은 인물들은, 후세에 종종 이러한 ‘미리 보는’ 능력을 소유한 기재(奇才)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단지 논리적 추론이나 시국 분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실제로 ‘목격’한 듯하다.

그러나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처럼 명확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예언가들은 모든 것을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의 예언은 종종 은유적인 언어, 함축적인 시, 후세 사람들이 깊이 사색하고 현실과 대조해야만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예언서로 둘러싸여 있다. 왜 이런 ‘모호함’이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를 영적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깊은 도리, 즉 ‘천기누설 불가(天機不可洩)’—하늘의 비밀은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로 이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미래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무형의 제약, 불문율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개입하여, 인간이 성장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마주해야 할 시련과 선택의 기회

를 교란할 수 있다. 천기를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말하는 자 자신과,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인연이나 심성이 부족한 듣는 이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깨달은 존재들조차, 미래의 중대한 사건이나 후세에 나타날 구세주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구체적인 날짜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분들은 징후, 상징, 비유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곤 했다. 예를 들어, 한 구세주가 동방에서 강림할 것이라거나, 토끼의 해에, 혹은 그분이 지닐 품성과 사명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 이러한 전달 방식은 희망을 열어주면서도, 인간이 단순히 외부의 확인만을 기다리는 대신, 믿음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수양을 통해 깨닫도록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인간 세상에 필요한 ‘미(迷)’의 상태를 유지하여, 선을 향한 선택이든 악을 향한 선택이든 모든 것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한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서, 함축적인 예언시들은 아마도 예언가들이 후세를 일부러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우주의 깊은 법칙을 준수하는 방식일 것이다.

3. 특별한 의식 상태와 고대의 방법들

성스러운 존재들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나 천목과 같은 특별한 능력으로 미래를 ‘보는’ 경우 외에도, 인류 역사는 인간이 예언적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무수한 방법과 의식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종종 평범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나 우주의 깊은 잠재된 층에서 오는 정보를 ‘수신’하려는 인간 측의 주도적인 노력이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이미지 중 하나는 아마도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있던 예언가들일 것이다. 피티아(Pythia) 여사제들은 정화 의식을 치른 후, 땅의 갈라진 틈에서 솟아나는 일종의 기체(프네우마, pneuma)를 흡입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그들을 무아지경(trance) 상태로 이끌었고, 그 상태에서 그들은 종종 모호하고 다의적인 신탁을 내뱉었으며, 다른 사제들이 이를 다시 해석해야 했다. 이 현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델포이 신탁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 대륙의 수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샤먼(shaman)들도 변성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춤, 반복적인 리듬의 노래, 특정한 북이나 악기 사용, 또는 때로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약초 사용일 수 있다. 이 무아지경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여행하고, 신령이나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며, 공동체에 닥칠 재앙이나 행운에 대한 징조를 볼 수 있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도가(道家)의 수련 문파나 고행하는 요가 수행자들도 깊은 선정(禪定)의 경지에 이르는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었다. 그 경지에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져 물질적 감각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우주 운행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시간의 흐름, 혹은 과거나 미래의 이미지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것은 의식으로 인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특별한 투명성과 예민함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내면으로부터의 개방이다.

방법은 다르지만—기체, 약초, 음악 같은 외부 요소를 사용하거나, 내관(內觀), 깊은 명상에 이르기까지—공통된 목표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자아’, 즉 세속적인 걱정, 편견, 물질세계에 대한 집착에 의해 제한된 개인

적 의식을 잠시 내려놓거나 초월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아’가 가라앉을 때, 더 넓고 포괄적인 인식의 공간이 열릴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이 평범한 의식 상태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정보의 흐름, ‘목소리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존재하며 무수한 문화권에서 실행되어 온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물질적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존재와 지식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가 듣고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안다면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인류의 깊은 믿음을 보여준다.

4. 예지몽(豫知夢)과 내면의 목소리

신의 계시나 특별한 의식 상태를 이끌어내는 고대의 방법들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정보 채널 외에도, 더 가깝고 사적인 또 다른 예언 메시지의 원천이 있다. 우리 대부분이 한두 번쯤은 경험했거나 들어봤을 법한 것, 바로 예시적인 꿈과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다.

예로부터 꿈은 영적 세계로 통하는 신비한 문,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메시지를 담은 꿈, 즉 사소한 개인사부터 공동체의 중대한 변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는 이미지들이 기록되고 소중히 다루어졌다. 성경은 파라오에게 징조를 해몽해 준 요셉의 꿈이나, 다른 왕들과 예언자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양에서도 제왕이나 고승들은 종종 특별한 꿈에 의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를 예견했다.

그렇다면, 예지몽과 그저 우리의 낮 동안의 걱정이나 인상을 반영할 뿐인 혼란스럽고 단편적인 일상적인 꿈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지몽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맥락이 있으며, 강렬한 감정적 인상을 남긴다고 묘사한다. 그것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잠에서 깬 후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을 남겨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게 한다. 때로는 미래 사건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 꿈을 꾸 사람이 스스로 숙고하고 사색해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은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꿈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들은 수호신이나 돌아가신 친족의 영혼이 알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자

신 속 더 깊은 인식의 층—잠재의식, 혹은 아마도 ‘원신(元神)’의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의 흐름에 닿은 것—이 깨어난 것일까? 나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꿈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때로는 잠의 고요함 속에서, 낮 동안의 의식의 소음이 가라앉았을 때,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꿈과 더불어, ‘내면의 목소리’—또는 직관, 영감이라고도 불리는—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믿는 미세한 정보 채널이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 추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느낌, 불분명한 충동,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감각들이다. 한 어머니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갑자기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영감을 받는 경우,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경로를 바꾸기로 결정하여 사고를 피하는 경우, 혹은 큰 사건을 앞두고 모호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험들은 드물지 않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현상들을 무의식적 정보 처리,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환경 신호에 대한 민감성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관과 영감은 더 큰 의

미를 지닌다. 그것은 더 광대한 지혜, 개인적 이성을 초월한 ‘앎’과의 연결로 간주된다. 내면의 고요함을 단련하고, 안에서 오는 미세한 진동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이 말 없는 ‘목소리들’에 더 민감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꿈이든 직관이든, 그것들은 모두 정보의 원천이 단지 외부 세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각 사람의 내면에도 경이로운 능력, 우리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더 광활한 현실과 연결되는 채널들이 숨겨져 있다.

5. 말 없는 ‘징조(徵兆)’ : 하늘과 땅이 말할 때

말, 글, 꿈, 또는 개인적 직관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외에도, 또 다른, 더 오래되고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예언의 형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 세계 자체에서, 하늘과 땅의 기이한 현상에서 오는 말 없는 ‘징조’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먼 옛날부터 인간은 우주가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늘과 땅의 큰 변동은 종종 인간 세상의 중대한 변화와 상응하거나 그것을 예고한다고 믿었다.

많은 문화권에서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장기적인 가뭄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이나, 혜성,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은 기이한 천체의 출현은 종종 중요한 징조로 간주되었다. 그것들은 신들의 분노의 표시, 전쟁, 혼란, 한 왕조의 멸망, 혹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나 죽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고대 바빌론, 이집트, 중국의 점성가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별들의 운동을 기록하는 데 공을 들였으며, 그 움직임 속에 국가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현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소하고 우연해 보이지만 기이하고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옛사람들은 징조로 여겼다. 한 고목이 갑자기 말라죽었다가 다시 새싹을 틔우거나, 희귀한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혹은 돌이나 구름에 기이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언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우리 시대에 꽤 유명하고 가까운 예로, 2002 년 중국 구이저우성 핑탕현에서 발견된 ‘장자석(藏字石, 글자를 품은 돌)’ 사건이 있다(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대한 바위가 둘로 쪼개진 단면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약 2 억 7 천만 년 전 고대 생물의 화석으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연적인 글자들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 중국 공산당은 망한다)’으로 읽혔다. 이 사건은 중국 공식 언론 기관들이 앞의 다섯 글자(‘중국공산당’)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애써 설명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징조로 여겨졌다. 믿든 안 믿든, 이는 ‘돌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질적’ 징후 외에도, 큰 변고를 앞두고 나타나는 감응적인 ‘징조’, 즉 집단적이고 비종교적인 예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동물의 이상 행동이 기록되거나, 뚜렷한 원인 없이 주민 공동체에 불안하고 무거운 감각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이것은 옛사람들의 말처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는다(同聲相應, 同氣相求)’는 현상일 것이다. 우주의 에너지장에 큰 변동이 생길 때, 민감한 생명들의 의식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말 없는 징조들을 해석하는 데는 섬세한 관찰력, 자연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문화적 상징과 음양오행 법칙(동양 문화에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물론, 모든 이상한 현상이 다 징조는 아니며, 자의적인 추측은 미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조물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마도 인식의 자기 제한일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은 비록 모호해 보일지라도, 다양한 예언 형태의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인간과 광활한 우주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테일러 리드의 견해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것들을 통해, 예언의 ‘목소리’는 무수한 다른 채널을 통해 인간에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스러운 존재들의 직접적이고 장엄한 계시부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현자들의 명확한 ‘봄’, 고대 의식을 통한 변성 의식 상태, 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꿈, 직관의 조용한 목소리, 심지어 하늘과 땅 자체에서 오는 말 없는 징조에 이르기까지. 각 채널은 저마다의 특성, 저마다의 ‘언어’를 지닌 듯하며, 아마도 우리 각자의 다른 인식 수준에 와닿을 것이다.

이 다양성을 보면서, 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큰 질문 하나가 생겨났다. 이 모든 ‘목소리들’ 뒤에 단 하나의 근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들은 실제로 다층적인 현실, 각

기 다른 세계를 반영하며, 각 세계는 수신자의 수준과 사명에 맞는 자신만의 소통 방식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감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아마도 그 답은 이 두 가능성 사이 어딘가에 있거나, 심지어 우리가 현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형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순수한 우연을 넘어서는 어떤 곳에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 ‘말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것이 도덕적 가르침이든, 재앙에 대한 경고든, 혹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든, 예언적 메시지들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아마도, 그 ‘목소리’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메아리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을 구별할 만큼 영혼의 고요함이 충분한가? 우리 현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만큼의 겸손함과, 비록 그것들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그 메시지들에 직면할 만큼의 용기가 있는가?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예언이 끈질기게 존재해 온 것은, 더 위대한 것과 연결되고자 하는,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의미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선천적인 갈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어디에서 왔든, 아마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더 책임감 있는 의식으로 미래를 바라볼 기회이자 일깨움 일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올 때,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그것들이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언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늘 전해온 것처럼 ‘적중’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적중’은 명백한 사실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의 결과인가?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예언서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며 계속 탐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 * * *

제 5 장: 시간의 흔적 – 적중 (的中)과 해석의 기술

예언적 메시지가 인간에게 전달되었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길—신성한 계시에서부터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나 하

늘과 땅의 창조에 이르기까지—을 함께 살펴본 후,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될 하나의 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 예언들은 ‘진짜’일까?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의식 속에 예언이 불러일으킨 매력, 신비, 그리고 경외심은 아마도 대부분 그것들의 기적적인 능력, 즉 ‘적중’하는 능력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대의 글귀, 머나먼 과거의 예언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 일을 놀라울 정도로 묘사하는 순간이다.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야와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한 본능적인 호기심이 있는 듯하다. 운명은 정말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모두에게 시간의 책장이 넘겨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을 ‘본’ 개인들이 있는 것일까? 예언의 ‘적중’ 현상이야말로 이러한 질문들을 키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다. 그것은 인과 법칙과 자유 의지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동시에, 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 나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예언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몇몇 주목할 만한 ‘적중’ 사례들

을 함께 되짚어보고, 객관적인 태도로 그것들에 접근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걸음 물러서서, 해석의 기술에 담긴 도전과 함정들을 분석하고, 예언의 미래 접근 방식을 현대 과학의 렌즈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긍정이나 부정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계속해서 형성해 온 한 현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다.

1. 시간을 초월한 예언들: 주목할 만한 ‘적중’ 사례

적중했다고 전해지는 예언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은, 마치 각 책장과 글귀마다 신비와 매력이 숨겨진 고풍스러운 도서관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전설이 된 이름들이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통상적인 논리 법칙에 도전하는 듯한 예언서들이 있다. 해석이 항상 도전적인 기술이고 회의론이 늘 필요한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역사적 사건 사이의 기이한 ‘일치’가 항상 우리를 멈춰 서서 사색하고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나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함

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들의 강렬한 생명력을 함께 ‘목격’하고, 이후 더 깊은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1. 노스트라다무스 (프랑스, 16 세기): 시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시구들

가장 심오한 영향력을 미친 서양의 예언가를 꼽으라면, 아마도 미셸 드 노스트라담, 즉 노스트라다무스(1503-1566)를 능가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유럽의 격동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가였다. 그의 필생의 역작인 《예언(Les Propheties)》은 1555 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거의 천 편에 달하는 4 행시(콰트렌, quatrain)를 포함하고 있고, ‘백시선(Centuries)’(각 백시선은 100 개의 콰트렌으로 구성됨)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 시구들의 신비와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그 언어이다. 고대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오크어의 복잡한 혼합에, 수많은 자작어, 은유, 도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축약형들이 더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당시 교회의 박해를 피하거나, 자신의 메시지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인

연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해독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문체를 사용했다고 믿는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능력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콰트렌 중 하나는 1666 년 런던 대화재를 묘사했다고 여겨지는 백시선 제 2 권, 4 행시 51 편이다.

"Le sang du juste à Londres fera faute,
Bruslez par foudres de vingt trois les six,
La dame antique cherra de place haute,
De mesme secte plusieurs seront occis."

(임시 번역:

“정의로운 자의 피가 런던에서 부족하리라,
스물하고 셋에 여섯을 더한 벼락 불에 타리라,
고대의 부인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리라,
같은 종파의 많은 이들이 살해되리라.”)

많은 연구가들과 노스트라다무스 애호가들은 주목할 만한 ‘일치점’들을 지적했다. ‘스물하고 셋에 여섯을 더한 (vingt trois les six)’이라는 구절은 보통 $20 \times 3 + 6 = 66$ 으로 해석되어, 1666 년을 암시한다. 런던 대화재는 바로 그해에 발생하여 도시의 대부분을 불태웠다. “고대의 부

인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리라”는 런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던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이 화마에 심하게 파괴되어 후에 재건축되어야 했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로운 자의 피가 부족하리라”와 “같은 종파의 많은 이들이 살해되리라”는 인명 피해(공식적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재산과 삶의 파괴는 매우 심각했다)와 관련이 있거나, 정신적 상실과 혼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억측에 불과하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언어는 여러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읽고 역사적 사건과 대조해 볼 때, 기이한 유사성에 소름이 돋지 않기란 어렵다.

또 다른 예로,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과 자주 연결되는 백시선 제 2 권, 4 행시 24 편이 있다.

"Bêtes farouches de faim fleuves tranner;
Plus part du champ encontre Hister sera,
En caige de fer le grand fera treisner,
Quand rien enfant de Germain observera."

(임시 번역: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 강을 헤엄쳐 건너리라,

전장의 대부분은 히스터(Hister)에 맞서게 되리라,
위대한 자는 쇠창살 속에 끌려다니게 되리라,
독일의 아이가 아무것도 살피지 못할 때.”)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히스터(Hister)’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히틀러(Hitler)’의 철자를 바꾼 것이거나, 심지어 히틀러가 태어난 곳(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암인, 다뉴브 강의 지류인 인 강 근처)인 다뉴브 강 하류 지역의 옛 이름이라고 여긴다. ‘독일의 아이(enfant de Germain - ‘Germain’은 German, 즉 독일일 수 있음)’와 전쟁의 배경(‘전장의 대부분’)은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강화한다.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나 ‘쇠창살 속에 끌려다니게 되리라’ 같은 이미지 또한 나치 정권의 잔혹한 본성과 일부 핵심 인물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한 묘사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히스터’가 실존하는 지명이며, 히틀러와의 연결은 나중에 과장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 세계의 격변 속에서 일부 노스트라다무스의 콰트렌들이 연구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최근의 세계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는 1999 년에 시작된

중국에서의 파룬궁(法輪功) 탄압 사건과 자주 연결되는
백시선 제 10 권, 4 행시 72 편이다.

"L'an mil neuf cens nonante neuf sept mois,
Du ciel viendra un grand Roy d'effrayeur:
Ressusciter le grand Roy d'Angolmois,
Avant que Mars regner par bonheur."

(임시 번역:

“1999 년 7 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Angolmois)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
화성(Mars)이 행복으로 통치하기 전후에.”)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 사건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놀라운 일치를 지적한다. ‘1999 년 7 월’은 바로 장쩌민(江澤民)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중공)이 진선인(真善忍) 원리에 기반한 평화로운 명상 수련법인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공식적으로 개시한 시점이다. ‘하늘에서 온 공포의 대왕’은 탄압의 본질, 즉 국가가 주도하고 전국적으로 파괴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하향식 공포 정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99 년 7 월의 세계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중국에서 수

천만 명의 평화로운 시민들을 겨냥한 탄압의 시작과 비교할 만한 규모와 전 지구적 영향력을 가진 다른 테러 사건이나 정치적 격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앙골무아의 대왕을 부활시키기 위해’라는 구절은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이다. 가장 널리 퍼진 해석은 ‘앙골무아(Angolmois)’가 ‘몽골인(Mongolois)’의 철자를 바꾸거나 변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방향으로 본다면, ‘몽골의 왕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공포의 대왕’(탄압 세력)의 본질이 과거 몽골의 정복 전쟁에서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잔혹하고 호전적이며,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파괴하는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혹은, 그 세력이 마치 정신적으로나 통치 방식으로 ‘몽골화’된 것처럼, 자국민에게 억압적이고 외래적인 통치 형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분석가들, 특히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예언을 조명하는 이들은, ‘앙골무아’라는 단어에 대해 전체 콰트렌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앙골무아’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중국어 구절, 예를 들어 ‘암공문(暗共門)’을 음차하거나 암호화한 방식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앙골무아’를 읽어본다면, ‘암(暗)’은 어둡고 숨겨져 있다는 의미이고, ‘공(共)’은 ‘공산주의’와 관련되며, ‘문(門)’은 문, 문파, 또는 길을 의미하므로, ‘암공문’은 ‘공산주의의 비밀 문파/관문’ 또는 ‘어둠 속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대왕’(장쩌민과 중공으로 추정)이 ‘암공문의 왕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1999년 7월의 잔혹한 탄압을 실행하기 위해, 이 정권이 공산주의 시스템에 내재된 가장 어두운 본성, 비밀 통제 메커니즘, 기만적이고 사악한 수법들을 총동원하여 일으켜 세워야 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숨겨진 공산주의라는 ‘사문(邪門)’ 자체의 권력을 드러내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인 ‘화성(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이 행복으로 통치하기 전후에’라는 맥락 속에 놓으면, 전체 예언은 강력한 내적 논리를 지닌 그림을 그려내는 듯하다. 이처럼, 1999년 7월, 독재적이고 잔혹한 통치 세력(‘하늘에서 온 공포의 대왕’)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행동의 깊은 목적은 공산주의 시스템의 본질과 비밀 메커니즘(‘암공문을 부활시키는 것’)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은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현존하며 지배하고 있고, 모든 행동(탄압을 포함하여)

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 관점에서 전체 콰트렌의 의미를 간결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9 년 7 월,
하늘에서 한 공포의 대왕이 오리라:
암공문(공산주의의 본질/비밀 메커니즘)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인민의 행복을 명분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탄압을 실행하기 위해).”

물론, 이것은 여전히 추측성 해석이며,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글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의 예언들이 깊이 성찰되고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될 때, 아마도 저자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거나 후세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일부러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의미의 층들을 열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이 해석이 비록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파룬궁 탄압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고대 시구들이 여전히 새로운 맥락 속에서 ‘읽히고’ ‘해독’되며, 시대의 근심과 열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익숙해 보이는 단어들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 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콰트렌에서 이와 같은 ‘우연의 일치’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16 세기의 글귀가 수 세기 후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깊은 문제들에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이성이 항상 사후 해석을 경계하라고 속삭이지만, 이 시구들이 주는 뇌리에 박히는 힘과 시사하는 바는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접근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의 언어는, 앞서 말했듯이, 매우 모호하고 상징성이 높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매력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 해석들이 항상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 세기에 걸쳐 노스트라다무스의 시구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격동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계시로서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연구가로서의

나에게, 그것들은 단지 ‘예측’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두려움, 희망, 그리고 열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1.2. 20 세기 서양의 초능력 예언가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로운 예언서를 남긴 고전적인 예언가들 외에도, 20 세기는 대중과 연구계의 큰 주목을 받은 특별한 초능력을 소유한 개인들의 등장을 목격했다. 그들은 암호화된 시를 남기지 않았고, 그 정보의 출처는 여전히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보통 더 직접적인 메시지, 즉 ‘리딩(reading)’을 제시했다. 가장 두드러진 두 인물은 아마도 에드거 케이시와 진 딕슨일 것이다.

에드거 케이시 (“잠자는 예언가” - 미국, 1877-1945)

에드거 케이시는 종종 “잠자는 예언가” 또는 “전인적 의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의 삶과 능력은 20 세기에 가장 신중하게 기록되고 가장 많이 연구된 영적 현상 중 하나이다. 켄터키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징후를 보였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자신의 실성증(失聲症)을 스스로 치료하려는 노력 중에, 자신을 최면이나 깊은 잠과 같은 상태로 이끌었을 때 비로소 발견되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종종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자연 요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적적인 것은, ‘잠자는’ 동안 케이시는 무한한 지식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그는 그 원천을 ‘정보(The Information)’ 또는 ‘아카식 레코드(Akashic Records)’라고 불렀다. 이는 신비주의 학파와 힌두교의 한 개념으로, 모든 생명체가 모든 생애에 걸쳐 겪은 모든 생각, 행동, 감정을 저장하는 일종의 ‘우주 도서관’으로 여겨진다. (보통 그의 아내나 비서였던) 안내자의 질문을 받으면, ‘잠자는 케이시’는 명료하고 상세하게 대답했으며, 깨어났을 때의 ‘평소의 케이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의학 용어까지 사용했다.

에드거 케이시의 14,000 건이 넘는 ‘리딩(readings)’은 그가 버지니아 비치에 직접 설립한 연구 및 계몽 협회(A.R.E.)에 기록되어 보관되었다. 이 리딩의 대부분은 건강과 치유에 관한 것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영적, 철학적 문제, 전생, 그리고 개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예측도 다루고 있다.

케이시의 ‘리딩’을 살펴보면, 적중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례들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의학 분야에서는, 케이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때로는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의 질병을 단지 그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정확하게 진단한 수많은 기록이 있다. 그는 병명을 밝힐 뿐만 아니라, 장기 의 상태, 병의 근본 원인(때로는 심리적 요인이나 전생의 업보와 관련된 경우도 있었다)을 상세히 묘사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종종 식단, 가벼운 운동, 약초 요법, 피마자유 찜질, 또는 척추 교정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당시의 정통 의학에 절망했던 많은 환자들이 그의 지침을 따름으로써 건강을 되찾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제안한 많은 요법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신체의 알칼리화, 또는 마음과 육체의 연관성 등은, 그의 시대를 수십 년 앞서간 현대의 전인적 의학과 기능 의학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세계 사건에 관해서는, 케이시의 가장 두드러진 예측 중 하나가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 붕괴에 대한 경고였다. 1929 년 초, 미국 경제가 극도의 낙관주의로 ‘광란의 20 년대(Roaring Twenties)’를 겪고 있을 때, 케이시는 몇몇 리딩에서 사람들에게 신중할 것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므로 시장에서 돈을 뺄 것을 조언했다. 그해 10 월, ‘검은 화요일’ 사건은 1930 년대 내내 이어진 대공황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의 경고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마찬가지로, 1930 년대에 전쟁의 망령이 유럽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 케이시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개 과정을 예견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독재 세력의 부상, 국가 간의 동맹, 그리고 세계를 집어삼킬 전면적인 충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이후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으로 현실이 되었다.

지질학 분야에서도 케이시는 많은 주목할 만한 예측을 내놓았지만, 그 적중률과 검증 가능성은 더 복잡하다. 그는 미래의 지구 표면에 일어날 큰 변화들, 즉 행성의 지축 이동, 지진, 화산 폭발, 많은 해안 지역(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침몰, 그리고 그가 여러 리딩에서 역사와 고대 문명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던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을 포함한 새로운 땅이 대양 바닥에서 솟아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오늘날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지진 활동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케이시의 이러한 예언들이 점차 적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학적 변고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그의 일부 예측은 그가 묘사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먼 미래에 속해 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예언에 접근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에드거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의 예측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삶 그 자체였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고, 소박하게 살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고, 종종 건강에 대한 리딩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가 남긴 일관성, 상세함,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정보는, 기록된 기적적인 치유 사례들과 더불어, 에드거 케이시를 독특한 영적 현상으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에게, 그의 이야기는 현대 과학이 아마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할 지식이 원천과 잠재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진 딕슨 (미국, 1904-1997)

20 세기 미국 초능력 및 예언계에서 매우 유명했던 또 다른 인물은 **진 딕슨**이다. 그녀는 점성가이자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며, 유명 인사, 국가 및 국제 정치 사건에 대한 예측을 자주 내놓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했던 에드거 케이시와 달리, 진 딕슨은 보통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환시’나 ‘영감’을 받았으며, 때로는 꿈을 통하거나 그녀가 자주 사용했던 도구인 수정 구슬을 들여다볼 때 그러했다.

진 딕슨의 명성은 그녀의 가장 유명한 예측 중 하나가 비극적으로 적중한 것처럼 보인 후에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바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1952 년 《퍼레이드(Parade)》 잡지와 인터뷰에서 그녀는 1960 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이 승리할 것이며, 그가 이후 첫 임기 중이 아닐지라도 재임 중에 암살당하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민주당원인 존 F. 케네디가 1960 년에 당선되고 이후 1963 년 11 월에 암살당하자, 진 딕슨의 예언은 다시 회자되며 널리 퍼졌고, 그녀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다.

케네디에 대한 예측 외에도, 진 딕슨은 적중했거나 적어도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보인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다른 예언들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마하트마 간디의 죽음, 인도의 분할,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 혹은 다른 몇몇 유명 인사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또한 선거 결과, 정치적 변동, 그리고 때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도 자주 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예언가들과 마찬가지로, 진 딕슨의 모든 예측이 사실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그녀가 상당수의 틀린 예측도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958 년에 제 3 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소련이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일부 선거 결과 예측도 부정확했다. 이 현상은 때때로 ‘진 딕슨 효과(Jeane Dixon effect)’라고 불리는데, 이는 사람들이 적중한 예측(hits)에만 집중하고 수많은 틀린 예측(misses)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딕슨이 오랫동안 미국 대중에게 미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녀는 대통령 부인 낸시 레이건(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아내)을 포함한 몇몇 권력자들의 비공식적인 조언자였으며, 낸시 레이건은 대통령의 일정을 정하는 데 그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삶과 예언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진 딕슨의 사례를 돌아켜볼 때, 나는 기이하게 적중한 것처럼 보이는 ‘밝은 점들’과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의 ‘흐릿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본다. 이것은 예언 능력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능력인가, 아니면 때로는 명확한 신호를 잡지만 때로는 잡음이 끼거나 잘못 해독되는 일종의 정보 ‘채널’과 같은 것인가? 그리고 한 예언가의 명성이 전반적인 정확도보다는 몇 번의 극적인 ‘한 방’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

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후 부분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다.

진 딕슨의 이야기,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의 이야기는 20 세기에, 점점 더 과학과 기술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사회 속에서도,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초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매우 강했음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에 도전하고 현실의 다른 차원에 대해 시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소리’이다.

1.3. 동양의 지혜: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예언들

우리가 이전 부분에서 함께 탐구했듯이, 서양의 예언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비로운 시구를 통해서든 에드거 케이시와 진 딕슨의 특별한 상태에서 온 메시지를 통해서든, 미래에 대한 인류의 인식 흐름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이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동양으로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그곳의 고대 지혜는 종종 개별적인 사건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운명, 역사의 흥망성쇠 주기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며, 그 안에 사회 도덕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동양의 예언들은 종종 다른 품미, 아마도 더 거시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사회, 국가의 운명이 하늘과 땅의 법칙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더 명확하게 느끼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 마전과(馬前課) (제갈량 저술로 추정 - 중국, 삼국시대):

‘마전과’는 간결하지만 중국 문화에서 매우 유명한 예언서로, 삼국시대의 걸출한 군사(軍師)인 제갈량(181-234)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작품은 14 개의 ‘과(課, 교훈 또는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는 촉한(蜀漢) 시대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한 왕조 또는 주요 역사적 시기를 예측하는 4 행시이다. ‘마전과’의 간결함과 높은 상징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게 했다.

우리는 명확하게 적중했다고 여겨지는 몇몇 과를 함께 살펴보자.

➤ 제 1 과 (촉한 예언):

원문 한자: 「無力回天, 鞠躬盡瘁 陰居陽拂, 八千女鬼」

한자음: “무력회천(無力回天), 국궁진채(鞠躬盡瘁)
음거양불(陰居陽拂), 팔천여귀(八千女鬼)”

의미: 하늘의 뜻을 돌릴 힘이 없으니,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네 음이 머물고 양이 스러지니, 팔천 명
의 여자 귀신이라.

해석: 첫 구절은 제갈량의 일생을 묘사한 것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漢)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국궁진채, 사이후이(鞠躬盡瘁, 死
而後已)”(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는 그의 유명한 말이다. “음거양불”은 촉
한의 쇠퇴를 가리킨다. “팔천여귀(八千女鬼)”는
‘위(魏)’자를 파자(破字)한 것으로, ‘八’+‘千’+‘女’+
‘鬼’ = ‘魏’가 되어, 촉한이 결국 위나라에 멸망할
것을 암시한다.

➤ 제 5 과 (당나라 예언):

원문 한자: 「十八男兒， 起於太原 動則得解， 日
月麗天」

한자음: “십팔남아(十八男兒), 기어태원(起於太原)
동즉득해(動則得解), 일월려천(日月麗天)”

의미: 열여덟 사내아이, 태원에서 일어나네 움직이면 풀리니, 해와 달이 하늘에서 빛나네.

해석: “십팔남아(十八男兒)”는 ‘십(十)’, ‘팔(八)’, ‘남(男)’을 합치면 당나라의 성씨인 ‘이(李)’자가 된다. 이연(李淵)은 태원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일월려천(日月麗天)”(해와 달이 하늘에서 아름답다)은 ‘명(明)’자로 파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당나라의 번영과 화려함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측천무후(무조 – 武曌, ‘조(曌)’자는 ‘일(日)’, ‘월(月)’이 위에, ‘공(空)’이 아래에 있어 하늘의 해와 달이라는 의미도 된다)를 암시할 수도 있다. “동즉득해”(움직이면 풀린다)는 창업 초기의 순조로움을 가리킬 수 있다.

➤ 제 6 과 (송나라 예언):

원문 한자: 「二十九換, 春夏秋冬 神州出現, 盡在其中」

한자음: “이십구환(二十九換), 춘하추동(春夏秋冬) 신주출현(神州出現), 진재기중(盡在其中)”

의미: 스물아홉 번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주(神州)에 나타나니,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네.

해석: 송나라(북송과 남송)는 319 년간 지속되었으며, 18 명의 황제를 거쳤다. “이십구환”(스물아홉 번 바뀐다)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일부는 연도나 황제의 수, 또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신주(神州)”는 중국의 다른 이름이다. 연구가들은 여전히 “이십구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과는 송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테일러의 잠정적 평가: ‘마전과’는 다른 예언 방식을 보여준다. 간결하고, 응축적이며, 매우 함축적인 글자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한 왕조 전체의 운명을 담아낸다. 해석에는 문화, 역사, 그리고 파자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 **짱찐 예언 (응우옌 빈 키엠 - 베트남, 16 세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흐름 속에서, 짱찐 응우옌 빈 키엠(1491-1585)은 걸출한 문화적 명인이자 시인, 교육가였으며, 또한 민간에 깊이 파고든 예언서를 남긴 예언가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 특히 구전되거나 《백운암시집(白雲庵詩集)》이나 《정선생국어(程先生國語)》에 기록된 예언 구절들은 시국에 대한 해박한 통찰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이한 예측을 담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놀랍도록 적중했다고 여겨진다.

짱찐의 예언들은 보통 개괄적이며, 은유적인 이미지와 평민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격동의 역사적 시기에 정치 세력과 일반 민중 모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횡산일대, 만대용신(橫山一帶, 萬代容身)”**: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로, 중요한 역사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응우옌 킴의 둘째 아들인 응우옌 호앙이 매형인 찐 끼엠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사람을 보내 짱찐에게 의견을 물었다. 짱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산(造山) 위를 기어가는 개미 떼를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다. “횡산일대, 만대용신”(호아인선 산맥 한 줄기면, 만대토록 몸을 보전하리라). 응우

옌 호앙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순화(順化) 지역(호아인선 산맥 남쪽)의 진수사(鎭守使)로 보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남쪽 지방 응우옌 가문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찐-응우옌 분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 예언은 단지 상황에 대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한 가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베트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과 같았다.

- **막(莫) 왕조와 찐(鄭) 씨에 대한 예언:** 레-막-찐의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찡찐의 예언은 종종 각 세력이 자문을 구하는 원천이 되었다. 여러 다른 판본과 이야기가 있지만, 일부 구절들은 막 왕조의 존망이 찐 씨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예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막 왕조가 찐 씨 세력의 존재에 의존하여 생존했다거나, 막 왕조의 붕괴가 어떤 세력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있다. **테일러 리드 주:** 이 역사적 맥락에서 각 예언 구절의 절대적인 정확성과 구체적인 해석을 검증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민간에서의 그 생명력과 당시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프랑스 식민 시대와 국토 분단에 대한 예언:** 일부 예언들은 연구가들과 민간에 의해 19, 20 세기 프랑스 식민 시대와 국가의 큰 변동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구구건곤이정(九九乾坤已定)/청년고월자연(靑年古月自然)” 구절은 종종 $9 \times 9 = 81$, 즉 81 년간의 프랑스 식민 시대 (1862 년부터 1945 년까지는 83 년, 또는 1884 년부터 1945 년까지는 61 년으로, 다른 계산 방식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를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靑年)’을 합치면 ‘주(主)’자가 되고, ‘고월(古月)’을 합치면 ‘호(胡)’자가 되어, 주권을 되찾는 데 있어 호(胡)씨 성을 가진 지도자의 역할을 암시한다.

혹은 국토 분단과 전쟁을 암시하는 구절들: “마제양각영웅진(馬蹄羊脚英雄盡)/신유년래견태평(申酉年來見太平)”(말발굽과 양의 발굽에 영웅이 다 하니/신년과 유년에 이르러 태평을 보리라)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전쟁과 그 종결 시점과 연관 짓는다.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언들이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되어 여러 역사적 시기

를 거치며 민족의 걱정과 희망을 반영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의 예언 외에도, 짱찐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대해 적중한 예언들로도 유명하며, 이는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 **정치 세력에 대한 조언:** 응우옌 호앙뿐만 아니라, 레 왕, 찐 씨, 막 왕 모두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사람을 보내 짱찐에게 의견을 물었다. 막 왕조에게 그는 “까오방은 비록 작으나, 가업을 이을 수 있다(高憑雖淺, 可延數體)”고 조언했고, 과연 막 왕조는 탕롱에서 세력을 잃은 후 까오방으로 물러나 거의 80 년을 더 존속했다. 쇠약해진 레-찐 세력에게는 “절을 지키고 부처를 섬기면 공양밥을 먹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이는 레 왕을 섬기는 명분(부처를 섬기듯)을 굳건히 지키면 오랫동안 녹(祿)을 누릴 수 있다(공양밥을 먹듯)는 의미였다.
- **응우옌 꽁 뜨와 신성한 사당에 대한 예언:**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짱찐이 자신보다 200 년 이상 후의

역사적 인물인 응우옌 쑹 뜨를 예언한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응우옌 쑹 뜨가 젊고 오만하여 집을 짓기 위해 신성한 사당을 헐려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말리며 사당의 비석에 새겨진 짱찐의 예언 한 구절을 보여주었다. “명명십사, 대지출영웅/파전, 건로, 출성인/기인명뜨, 자공/파사지후, 공명시성(明命拾肆, 大地出英雄/破田, 見路, 出聖人/其人名著, 字公/破寺之後, 功名始成)”(명명제 14 년, 큰 땅에서 영웅이 나타나리라/밭을 깨고, 길을 내고, 성인이 나타나리라/그 사람 이름은 뜨, 자는 쑹/절을 부순 후에야, 공명을 이루리라). 응우옌 쑹 뜨는 이를 보고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사당을 헐기로 결정했다. 과연 그 후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고 많은 공을 세웠다. 이 예언은 이름과 자, 출현 시기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과 관련된 ‘절을 부수는(파사, 破寺)’ 행동까지 정확히 말하고 있어, 후세 사람들이 짱찐의 예언 능력을 더욱 흠모하게 만들었다.

테일러의 잠정적 평가:

짱썩의 예언은 동양 예언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실용적이고, 민족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띤다. 짱썩의 깊이는 단지 ‘보는’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있는 자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함축적이면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었다.

● 매화시(梅花詩) (소옹 - 중국, 송나라 시대):

‘마전과’ 외에도, 북송 시대의 뛰어난 철학자, 사학가이자 예언가인 소옹(邵雍, 1011-1077)의 ‘매화시(梅花詩)’ 역시 유명한 예언서로, 그의 시대 이후 수 세기에 걸친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작품은 총 10 수의 칠언절구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는 하나의 역사적 시기에 대응한다. ‘매화시’는 섬세한 언어, 풍부한 이미지, 그리고 높은 상징성으로 유명하다.

몇 가지 예를 함께 살펴보자.

➤ 제 1 수 (북송 왕조 예언):

원문 한자:

「蕩蕩天門萬古開,

幾人歸去幾人來。

山河歷歷觀天地,

一旦浮雲暗帝臺。」

한자음:

“탕탕천문만고개(蕩蕩天門萬古開),

기인귀거기인래(幾人歸去幾人來).

산하역력관천지(山河歷歷觀天地),

일단부운암제대(一旦浮雲暗帝臺).”

의미 (참고):

드넓은 하늘 문 만고에 열리니,

몇 사람 돌아가고 몇 사람 오는가.

산하는 뚜렷하여 천지를 보니,

하루아침에 뜬구름이 황제의 궁궐을 가리네.

해석: 네 구절의 시는 송나라의 시작(‘하늘 문 만고에 열리니’)과 변동, 변화(‘몇 사람 돌아가고 몇 사람 오는가’)를 묘사한다. 마지막 구절 “일단부운암제대”(하루아침에 뜬구름이 황제의 궁궐을 가리네)는 1127년 정강의 변(靖康之變)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북송의 휘종과 흠종 두 황제가 금나라 군대에게 잡혀가면서 북송 왕조가 막을 내렸다. ‘부운(浮雲, 뜬구름)’은 종종 외세의 침략이나 찬란함을 가리는 예기치 않은 변고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 제 6 수 (청나라와 한족의 왕위 회복 예언):

원문 한자:

「漢水茫茫不復流,

徒將忍氣吞殘候。

諸侯亂世紛紛擾,

幾見牛郎又見牽。」

한자음:

“한수망망불부류(漢水茫茫不復流),

도장인기탄잔후(徒將忍氣吞殘候).

제후난세분분요(諸侯亂世紛紛擾),

기견우랑우견견(幾見牛郎又見牽).”

의미 (참고):

한수(漢水)는 아득하여 다시 흐르지 않고,

다만 숨을 참고 남은 제후들을 삼키려 하네.

제후들이 난세에 어지러이 소란하니,

몇 번이나 견우를 보고 또 직녀를 보았던가.

해석: “한수망망불부류”(한수는 아득하여 다시 흐르지 않고)는 보통 한(漢)족의 운이 쇠하여 더 이상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운 것을 암시한다. “도장인기탄잔후”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인내나 권력 이양과 관련될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절 “제후난세분분요, 기견우랑우견견”은 청나라 말기, 여러 세력이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되며, 마침내 한족이 회복되는(견우가 직녀를 다시 만나는 것 - 재회, 회복) 시기를 묘사한다. 이는 보통 1911 년 신해혁명(辛亥革命)과 연결되는데, 이 혁명으로 청나라가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 제 10 수 (20-21 세기 특별한 시기 예언):

원문 한자:

「火龍提爪日月傷,

擾洛中原百鍊鋼。

一圭雞三點血,

桃花笑逐浪滔滔。」

한자음:

“화룡제조일월상(火龍提爪日月傷),

요락중원백련강(擾洛中原百鍊鋼).

일규계삼점혈(一圭雞三點血),

도화소축랑도도(桃花笑逐浪滔滔).”

의미 (참고):

화룡(火龍)이 발톱을 세우니 해와 달이 상하고,

낙양과 중원을 어지럽히니 강철이 백 번 단련되네.

하나의 규(圭), 닭, 그리고 세 방울 피,

복사꽃이 웃으며 도도한 물결을 쫓아가네.

해석: 이 시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20 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특히 파룬궁 탄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화룡제조일월상”(화룡이 발톱을 세우니 해와 달이 상하고): ‘화룡(火龍)’은 종종 붉은색, 즉 공산주의의 상징과 연결된다. ‘일월(日月)’은 합쳐서 광명과 정의를 의미하는 ‘명(明)’자가 될 수 있다. 이 구절은 정신적,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파괴와 탄압을 암시할 수 있다.

“요락중원백련강”(낙양과 중원을 어지럽히니 강철이 백 번 단련되네): 중원(중국)에서의 혼란, 투쟁, 숙청, 그리고 혹독한 단련을 묘사한다.

“일규계삼점혈”(하나의 규, 닭, 그리고 세 방울 피): ‘계(雞)’는 닭이다. ‘일규계(一圭雞)’는 파자(破字)가 가능하다. ‘계(雞)’자에서 ‘일(一)’과 ‘규(圭, 土 두 글자가 겹쳐진 모양)’ 부분을 빼면 ‘조(鳥)’ 부수가 남는다. ‘삼점혈(三點血, 세 방울 피)’은 물 수변(氵)을 ‘인(忍)’자에 더해 ‘탁(濁, 더럽고 흐리다)’자를 만들거나, 혹은 잔혹한 박해와 유혈을 암시할 수 있다. 일부 해석은 ‘일규계’를 닭 모양의 중국 지도와 연결하고, ‘삼점혈’을 ‘진선인(真善忍)’을

중시하는 파룬궁을 비롯한 신앙 단체에 대한 탄압과 연결 짓는다. ‘진선인’ 세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더럽혀지는 것도 하나의 해석 방식이다.

“도화소축랑도도”(복사꽃이 웃으며 도도한 물결을 쫓아가네): ‘도화(桃花)’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봄, 또는 이(李)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암시할 수 있다(‘도리(桃李)’가 종종 함께 쓰이고, ‘이(李)’자는 ‘목(木)’과 ‘자(子)’로 구성되기 때문). “소축랑도도”(웃으며 도도한 물결을 쫓는다)는 어려움과 시련(거센 파도)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 즉 정신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소옹의 ‘매화시’는 정제된 시어와 풍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 층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시들을 해석하는 데는 종종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직관의 결합이 요구된다. ‘매화시’의 예언들은 단순히 사건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과 흥망성쇠의 이치에 대한 평가를 넉넉히 담고 있다.

● 유백온(劉伯溫)의 예언 (중국, 명나라 시대):

본명이 유기(劉基)인 유백온(劉伯溫, 1311-1375)은 명나라의 가장 유명한 개국 공신 중 한 명이자, 군사 전략가, 정치가, 문인이었으며 위대한 예언가로도 여겨진다.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예언서들, 예컨대 《소병가(燒餅歌, 불에 구운 떡 노래)》, 《금릉탑비문(金陵塔碑文)》, 혹은 《추비도(推碑圖, 밀고 미는 비석 그림)》는 널리 퍼져 명나라 시대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고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이 작품들에서 몇몇 대표적인 구절, 특히 중대한 사건들과 적중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절들에 집중해 볼 것이다.

➤ **소병가(燒餅歌 – 불에 구운 떡 노래):** 이 작품은 명 태조 주원장과 유백온 사이의 문답 형식으로 제시된다.

☆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부상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이전 판본과 동일하게 유지)

《소병가》에는 송정제가 자결하고 만주족 군대가 중원을 점령하는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

는 구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此時廟社屬弟兄，自相殘殺又何從。」

(차시묘사속제형, 자상잔살우하종)

→ 이때 사직은 형제에게 속하니, 서로 죽이는데 어찌 따르리오?

「待到萬子萬孫盡，十六人為首始安寧。」

(대도만자만손진, 십륙인위수시안녕)

→ 만백성의 자손이 다 없어질 때를 기다리니, 열여섯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야 비로소 평안해지리라.

☆ **말세와 재앙에 대한 예언:** 《소병가》는 또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전, 마지막 단계의 혼란스러운 시기, 즉 도덕이 쇠퇴하고 천재인재가 끊이지 않는 시기를 묘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世界談笑愚中愚，信者餓死疑者肥。」

(세계담소우중우, 신자아사의자비)

→ 세상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니, 믿는 자는 굶어 죽고 의심하는 자는 살찌네.

「十份子失，九不全，民眾苦不堪言。」

(십분자실, 구불전, 민중고불감언)

→ 열 중에 아홉을 잃고, 그 하나도 온전치 못하니, 백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네.

- **금릉탑비문(金陵塔碑文 – 금릉탑의 비문):** 이 비문은 유백온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나라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다.

☆ **20 세기 중국의 거대한 변동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이전 판본과 동일하게 유지)

《금릉탑비문》의 많은 구절들은 후세 연구가들에 의해 신해혁명, 중일전쟁, 국공내전과 같은 사건들에 들어맞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人口有十一，三丁有一丁。」

(인구유십일, 삼정유일정)

→ ‘인구(人口)’는 ‘구(口)’와 ‘인(人)’으로 구성되어 총 11 획이니, 장(蔣)씨를 암시한다.
→ ‘삼정유일정(三丁有一丁)’은 ‘丁’자 세 개가 모인다는 뜻으로, ‘모(毛)’자를 가리킨다.

「二四八，蔣江出。」

(이사팔, 장강출)

→ ‘이사팔(二四八)’은 2, 4, 8 로, 시점이나 군사 암호(팔로군과 관련될 수 있음)를 암시한다.

→ ‘장강출(蔣江出)’: 장(蔣)이 강을 건너 후퇴함(장제스가 타이완으로 후퇴한 것을 암시).

☆ **대재앙과 생존의 길에 대한 경고:** 《금릉탑비문》에는 또한 말세의 끔찍한 대재앙에 대한 매우 주목할 만한 구절들이 있으며, 희망을 암시한다.

「人人歡樂，個個憂愁。有飯無人食，有衣無人穿。」

→ “사람마다 즐거워하고, 귀신마다 슬퍼하네. 안개가 산 정수리를 감싸고, 한 줄기 물이 이어지네.”

이 구절은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 즉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을 묘사한다.

「輕氣揚，濁氣沉。肉佛在世，說是非。」

→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오르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네. 육신을 지닌 부처가 세상에 있어, 시비를 논하네.”

「若問瘟疫何時現，但看九冬十月間。」

→ “역병이 언제 나타날지 묻는다면, 다만 구월 동짓달과 시월 사이를 보라.”

(‘구동시월(九冬十月)’은 보통 늦가을에서 초겨울, 즉 음력 9-10 월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天有眼，地有眼，人人都有一雙眼，天也翻，地也翻，逍遙自在樂無邊。」

(천유안, 지유안, 인인도유일쌍안, 천야번, 지야번, 소요자재낙무번.)

→ 하늘에도 눈이 있고, 땅에도 눈이 있으며, 사람마다 한 쌍의 눈이 있네. 하늘도 뒤집히

고, 땅도 뒤집히니, 소요하며 즐거움이 끝이 없으리라.

이 구절은 하늘과 땅의 공평함을 강조하며, 모든 일이 목격되고, 큰 변동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한다.

특히, 희망의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절들이 있다.

「能解金陵塔，方稱是賢人。」

→ “금릉탑을 풀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현인이라 칭하리라.”

「能解其中味，賜你黃金帶。」

→ “그 안의 맛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황금 띠를 하사하리라.”

여기서, ‘맛을 풀다(解味)’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시와 예언을 깊이 읽고 이해하여 내면의 안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황금 띠(黃金帶)’는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명예, 이익을 상징한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신적 가치로 돌아설 때만이, 인간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부 해석은 또한 재앙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도(大道)’나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과 관련 짓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마음과 본성을 닦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이다.

- **추비도(推碑圖 - 비석을 미는 그림):** 이 작품은 종종 말법 시대, 대재앙, 그리고 미륵불(또는 한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매우 상세한 예언으로 언급된다.

☆ **대재앙에 대한 묘사:** 《추비도》는 끔찍한 재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十愁天下亂悠悠”(십수천하난유유)

→ 열 번째 근심은 천하가 아득히 혼란스러운 것이요

“九愁屍體枯骨無人收”(구수시체고골무인수)

→ 아홉 번째 근심은 마른 시신과 뼈를 거두는 이 없는 것이요

“八愁道路艱難無人行”(팔수도로간난무인행)

→ 여덟 번째 근심은 길이 험난하여 다니는 이 없는 것이라.

☆ **미륵불과 진선인(眞善忍) 세 글자에 대한 예언:** 이것은 《추비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 중 하나이다. 유백온은 이렇게 썼다. “미륵불이 보산에 앉아, 진법을 설하여 원래의 사람들을 구원하네. (彌勒佛坐寶山，講說眞法度原人。)”

그리고 특히, 그는 세 가지 핵심 글자를 언급했다. “가장 높은 하늘의 부처는 진선인 세 글자 부처요, 중하의 인민은 모두 세 글자 부처에게 귀의하니, 세 글자 부처 앞에서 경계를 넘는 자는, 불국 선경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上上天皇佛 眞善忍 三字佛，中下人民 皆歸三字佛，得在三字佛前 過邊境，佛國仙境 樂無邊。)”

이 구절은 ‘진선인(眞善忍)’이 핵심 원리이며, 구원 받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 * *

유백온의 예언들은, 그것이 《소병가》 이든, 《금릉탑비문》 이든, 혹은 《추비도》 이든, 모두 수 세기를 관통하는 드넓은 시야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과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으며, 결정적인 시기에 인류를 위한 희망과 길을 드러낸다. ‘진선인’과 같은 원리를 구원의 길로 언급한 점은 매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다.

* * *

짙은 응우옌 빈 키엠, 제갈량(‘마전과’를 통해), 소옹(‘매화시’를 통해), 혹은 유백온의 예언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동양 예언 지혜의 몇 가지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과 깊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첫째, 그것들은 종종 거시적인 규모를 가지며, 한 국가, 한 민족 전체의 운명, 혹은 왕조의 흥망성쇠에 초점을 맞춘다.

이 예언가들은 역사의 큰 흐름, 사회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듯하다.

둘째, 이 예언들은 종종 역사적 주기, 즉 성(成)-주(住)-괴(壞)-멸(滅)과 흥망의 순환을 강조한다. 이는 역사가 일련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르며, 한 주기의 끝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연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 도덕과 인과 법칙(因果法則)의 요소는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시종일관된 주제이다. 도덕의 쇠퇴, 인심의 타락은 종종 혼란, 천재지변, 그리고 멸망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도덕적 가치를 유지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은 안정과 발전의 토대이자, 재앙을 극복하는 길로 여겨진다. 이것은 단지 예언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가르침이기도 하다.

넷째,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동양 예언들, 특히 마지막 시기나 말겁(末劫)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한 구세주(救世主)나 대법(大法)의 출현이라는 거대한 희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유백온과 같은 예언가들이 미륵불과 ‘진선인(真善忍)’과 같은 원리를 재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열쇠’로 언급한 것은, 구체

적인 사건 예측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구원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깊은 갈망에 닿는다.

표현 방식 또한 매우 특징적이다. 은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이미지, 함축적인 시문, 그리고 파자(破字)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예언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할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깊은 의미의 층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찰, 사색, 그리고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전 부분에서 훑어본) 동양과 서양 예언의 비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열망, 변동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구원이거나 더 나은 새로움에 대한 희망은 인류의 깊은 공통점인 듯하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은 단지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방대한 예언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예언의 흐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보의 폭발과 세계의 끊임없는 변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

로 이 시대에도, 미래에 대한 메시지나 예지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의 예언적 목소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들은 과연 고대의 예언들을 계승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색채를 띠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함께 탐구할 내용이다.

1.4. 현대의 예언적 목소리: 시대에 대한 꿈과 예감

이전 항목의 끝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를 담은 과거의 방대한 예언 유산을 숙고한 후,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예언의 흐름은 거기서 멈췄을까? 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현대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일까? 모든 개인이 ‘발신원’이 될 수 있는 정보 폭발의 시대에, 우리는 미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고 분별해야 할까?

예언의 흐름은 단지 고대의 문서나 과거 현자들의 예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빠르고 복잡한 변동 속에

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사건을 미리 보거나 꿈이나 직관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고전적인 의미의 ‘정통’ 예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내용들은 때때로 공동체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반영한다.

● 타츠키 료(たつき 諒) (일본): ‘적중’하는 꿈의 예언가

최근 몇 년간, 특히 영적 현상과 예언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는 일본의 만화가인 타츠키 료 여사이다. 그녀의 특별한 점은 예언 방식이 전적으로 꿈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예언적인 꿈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 꿈들은 종종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적중한다고 말한다.

➤ 과거에 기록된 예측들:

널리 공유된 정보(그리고 그녀가 이전에 출판한 작품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타츠키 료는 꽤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여겨지는 몇몇 예측을 하여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예언했다고 주장한다. 1999 년에 출판된 《내가 본 미래(私が見た未来)》라는 작품에서, 그녀는 표지에 “2020 년 대재앙”이라고 적었고, 만화 속에는 미스터리한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질병을 일으키고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들이 있었다. 이전의 한 재앙(2011 년 일본 대지진 쓰나미 재앙으로 추정되며, 해당 표지에는 “2025 년 7 월 대재앙”에 대한 예측도 함께 나타나 있다) 이후 10~15 년 후에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세부 사항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그녀는 일부 유명 인사의 죽음(예: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 다이애나 비)이나 일본 내 특정 자연재해와 같은 다른 몇몇 사건들도 정확히 예측했다고 전해진다.

➤ **예언 방식과 특징:**

특별한 점은 타츠키 여사가 종종 자신의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꿈 일기에 기록하고, 그 후에

야 출판한다는 것이다. 그녀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는 ‘적중’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준다. 그녀의 예측에 사용된 언어는 고대 예언서보다 보통 더 직접적이고 은유가 적으며, 꿈에서 본 구체적인 사건이나 이미지를 묘사한다.

➤ **필요한 신증함:**

물론, 나는 타츠키 료 여사와 같은 사례에 접근할 때, 항상 연구가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현대의 예언,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들을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우연의 일치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세부 사항을 재해석하여 ‘궤맞추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된 ‘적중’ 사례들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더 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현재와의 연결:**

내가 이 글을 쓰는 시점(2025 년 6 월 말)에, 타츠키 료라는 이름은 일본과 필리핀과 관련된, 2025 년 7 월 5 일에 일어날 수 있는 ‘대재앙’에 대한 그

녀의 예측과 맞물려 다시 한번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 예측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이는 제 7 장에서 현대적 맥락에서의 예언을 논의할 때 다루어질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단지 현대에 ‘예언적 목소리’가 꿈이라는 매우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써 타츠키 료 여사를 언급하고자 한다.

● 큰 변고를 앞둔 개인적 예감과 직관:

타츠키 료 여사처럼 체계적이거나 꿈을 통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도, 아마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건을 앞두고 비정상적인 ‘예감’이나 ‘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앞둔 모호한 불안감일 수도, 가족에 대한 이름 없는 걱정일 수도, 혹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사고, 혹은 중요한 개인적 변고를 앞두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종종 명확한 ‘예언’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구체적인 날짜나 세부 사항이 없지만, 그것들은 인간이 미래의 ‘진동’이나 주변 에너지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여전히 탐구 중인 의식의 한 측면인 직관의 표현일 수 있다.

이 책의 맥락에서, 비록 전통적인 의미의 예언은 아닐지라도, 개인적인 ‘예감’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우리 자신과 삶의 보이지 않는 흐름에 더 깊이 연결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 * *

타츠키 료와 같은 ‘현대의 예언가들’의 출현이나, 예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과연 고대의 예언가들이 소유했던 것과 동일한 잠재능력의 새로운 발현일까? 아니면 시대의 변동에 대한 일부 개인들의 특별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일까?

진실과 거짓 정보가 뒤섞인 세상에서, ‘현대의 예언적 목소리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정신과 비판적 사고

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치 있는 메시지나, 적어도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소리들’은 옳고 그름이나 검증 여부와 상관없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인간의 깊은 불안과 열망에 닿는다는 점이다. 즉,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열망, 안전해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다.

* * *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비로운 시구부터, 에드거 케이시의 특별한 상태에서의 ‘리딩’, 째썬, 제갈량, 소옹, 유백운의 역사를 이끈 예언들, 심지어 현대 만화가인 타츠키 료의 예지몽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훑어보면서,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 시간을 초월한 듯한 메시지들의 기이한 매력을 느끼셨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다고 여겨지는 사례들, 과거의 말이 현재나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듯한 경우들을 ‘목격’했다. 다의적인 시구, 함축적인 예

언서부터, ‘리딩’이나 꿈속의 더 직접적인 묘사에 이르기까지, 표현 형식의 다양성은 예언 정보에 접근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풍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들과 작품들은 전설이 되었고, 많은 민족의 문화 및 영적 유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수 세기, 심지어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오랜 생명력은, 그것들이 인간 의식의 매우 근본적인 무언가—미래에 대한 호기심, 법칙을 찾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통상적인 감각을 뛰어넘는 인식의 층이 있다는 믿음—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탐구하고 성찰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는, 다음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연의 일치’나 ‘적중’이 매우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명백해 보이는 ‘일치’의 이면에 우리가 인지해야 할 마음과 언어의 도전과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예언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는 한 걸음 물러

서서, 열린 마음과 신중한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적중’ 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탐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는 ‘해석의 기술과 적중의 함정’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것이다.

2. 여러 관점에서 본 ‘적중’: 해석의 도전과 함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목할 만한 예언의 ‘적중’ 사례들을 함께 살펴본 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분명 각기 다른 감정들이 일었을 것이다. 감탄, 호기심, 그리고 아마도 약간 회의감까지. 과거의 한마디가 미래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탐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저는, 이 ‘적중’의 본질을 더 객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물러설 필요를 느낀다. 과연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명확할까?

● 예언 언어의 모호성과 다의성:

많은 예언들, 특히 고대 예언서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시, 혹은 《매화시》, 《마전과》의 시들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들이 종종 상징성이 높고 은유적이며 매우 다의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옛 예언가들은 미래의 사건을 뉴스 보도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대신, 그들은 여러 가지 연상과 의미의 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와 단어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불타는 용’은 전쟁, 혁명, 파괴적인 권력자, 혹은 심지어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이 마른 강’은 한 왕조의 멸망, 장기적인 가뭄, 혹은 정신적, 문화적 상실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한편으로는 예언에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깊이를 더하여,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사색할 가치를 지니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을 위한 매우 넓은 공간을 열어준다. 같은 예언 구절, 같은 시 한 편을 두고, 다른 시대의 독자들은 각기 다른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면서도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나는 자문한다. 과연 이 다의성 자체가 예언들이 적절히 조정될 만큼 충분히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상황에 ‘영원히 살아남아’ ‘적중’하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이것은 예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것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 사건 발생 후의 ‘궤맞추기’ (사후 예측 / 소급 적용):

이것은 우리가 예언의 ‘적중’ 가능성을 고찰할 때 인지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 ‘사후 예측(Postdiction)’ 또는 ‘소급 적용(Retrofitting)’은, 예언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했다기 보다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인간이 그 사건에 부합하도록 고대 예언의 세부 사항을 재해석하거나 찾아내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다.

상상해보자.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역사의 큰 변고가 있는 후, 사람들은 종종 고대 예언 문헌들을 다시 뒤적이며, 방금 일어난 사건과 ‘비슷해’ 보이거나 연상될 수 있는 구절이나 단어들을 찾아내려 애쓰는 경향이 있다. 비록 모호할지라도 몇몇 ‘일치점’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쉽게 외친다. “정말 맞네! 예언가 X 가 이미 예고했었어!”

나 자신도 연구 과정에서, 그러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흥분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연관성’들은 때때로 예언 자체의 명확함보다는 우리의 의미 ‘부여’ 노력에 의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형적인 예이다. 고어와 여러 언어가 혼합되고 상징으로 가득 찬 그의 콰트렌은, 후대의 수많은 해석가들에게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같은 콰트렌이 수 세기에 걸쳐 프랑스 왕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히틀러에서부터 더 현대적인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었다. 과연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본’ 것일까, 아니면 해석가들이 일치점을 찾아내는 데 ‘창의적’이었던 것일까?

이것이 모든 ‘일치’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예측’ 경향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사건 후’의 해석에만 근거하여 한 예언의 세부적인 예측 능력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을 피하고, 더 신중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우리가 예언에 접근할 때(그리고 사실 삶의 다른 많은 정보에 대해서도) 종종 나타나는 또 다른 심리적 ‘함정’은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향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존 믿음이나 가설을 확인해주는 정보만을 찾고, 기억하며, 우선시하고, 해석하는 반면,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언 분야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예언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는 그 사람의 ‘적중한’ 예언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적중’은 그의 믿음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확한 예언이나 빗나간 예측들은 무시되거나, ‘잘못된 해석’,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치부되거나, 혹은 단순히 잊혀질 수 있다.

한 예언가가 수백 개의 예측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그중 단 몇 개만이 인상적으로 ‘적중’한다면, 사람들은 그 ‘적중’ 사례들을 쉽게 기억하고 대부분의 실현되지 않은 예측들은 간과할 것이다. 이때 확증 편향이 작용하여, 실제 성공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예언가가 ‘매우 뛰어나다’거나 ‘매우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나 자신도 예언에 대해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 편향에 대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만 했다. ‘적중’ 이야기의 매력은 때때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잊게 만든다. “이 사람의 다른 예언들은 없는가? 그것들도 적중했는가? 맞고 틀린 비율은 얼마인가?” 확증 편향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선별된 ‘증거’에 쉽게 설득되지 않고, 더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 바넘 효과 / 포러 효과:

바넘 효과(또는 포러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미래에 대한 묘사가 실제로는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심리 현상을 묘사한다. 이 효과의 이름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말로 유명했던 서커스 단장 P.T. 바넘의 이름에서 따왔다.

예언의 맥락에서, 특히 개인적인 예언이나 ‘시국’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에서 바넘 효과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예언들은 매우 개괄적인 방식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사회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묘사들은 그 일반성 때문에 여러 다른 시점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쉽게 ‘일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정말 맞네! 이게 나에게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발언들이 거의 모든 상황이나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예언이 바넘 효과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특히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명확한 시점이 없는 예측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 효과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으로 정보적이고 특수한 예측인지, 그리고 무엇이 누구나 자신에게 ‘맞다’고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발언인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해석가의 역할:

예언의 ‘적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해석가의 결정적인 역할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언의 언어는 종종 모호하고 다의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예언의 의미는 문헌 자체에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 연구가, 혹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콰트렌, 같은 짱썬의 예언, 혹은 《매화시》의 같은 시 한 편을 두고, 다른 시대의 다른 해석가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준거 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해를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 같은 해석가라 할지라도,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는 시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해석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가? 한 예언에 대해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해석이 주관적이며 해석가의 관점에 의존하는가?

한 예언이 ‘적중’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그 적중은 예언 자체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언의 세부 사항들과 실제 사건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해석가의 재능(또는 기교) 때문인가? 이것은 때때로 매우 미묘한 경계이다.

나는 해석가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때로는 과도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언의 번역본과 분석들을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가의 배경, 동기, 그리고 방법론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틀렸거나 근거 없는 예측일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믿어지고 퍼져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이끄는 경우이다.

전형적인 예로 종종 드는 것이 은행이나 주식 시장의 붕괴에 대한 예언이다. 만약 X 은행이 곧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또는 ‘예언’)이 있다면, 그것을 믿는 예금자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이러한 대량 인출 행위는, 처음에는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지라도, 결

국 그 은행을 실제로 위기와 파산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다. 최초의 예언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 실현’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나 충돌에 대한 예언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믿어진다면, 의심과 적대감, 그리고 전쟁 준비 행동을 증가시켜 결국 실제 전쟁이 발발하게 만들 수 있다. 혹은 반대로, 화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 노력을 촉진하여 마침내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비록 모든 예언이 ‘자기 충족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예를 들어, 지진에 대한 예언이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 행동과 심리와 관련된 예언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것은 믿음의 힘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로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

예언 언어의 모호성, ‘사건 발생 후의 궤맞추기’ 경향, 확증 편향, 바넘 효과, 해석가의 역할, 그리고 일부 예언의 ‘자기

충족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거치면서, 아마도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의 가치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가?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 주관적인 억지, 혹은 심리적 '함정'에 불과한가?

저는 수년간의 탐구와 성찰 끝에, 그 답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심리적, 인지적 요소들은 실재하며, 우리가 예언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은 예언 현상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명료한 시각, 즉 진실을 찾는 연구가로서 필요한 신중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직면하면서, 저는 고뇌를 느낀다. 믿음과 맹신(盲信) 사이의 미묘한 경계, 상징의 시사와 해석의 강요 사이, 진정한 투시 능력과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 사이의 경계에 대한 고뇌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이, 현대 과학이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 현상들 앞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우리가 통상적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을 반박하기 위해 이성적 분석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더 깊은 차원을 감지하고 탐험할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진솔하게 열린 사고방식으로 예언에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판하는 것은 미신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해석에 이끌리지 않기 위함이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구체적인 예측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가치를 품고 있을 수 있는 메시지들—그것이 도덕적 교훈일 수도,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경고일 수도, 혹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일 수도 있는—을 듣고, 느끼고, 사색하기 위함이다.

‘해석의 도전과 함정’을 깨닫는 것은 예언이라는 강의 매력이나 잠재적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 탐험의 여정에서 더 분별력 있는 ‘뱃사공’이 되어, 굽이치는 물길과 보이지 않는 물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배를 조종하는 법을 알고, 그럼으로써 그 강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아마도, 예언을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적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

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들이 우리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삶과 우주,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사색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각 예언의 정확성에 대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더 큰 그림을 본다면, 과연 예언은 그것이 보여주는 바를 가지고 현대의 예측 방법들, 특히 과학적 예측과 어떻게 비교 또는 대조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미래 접근 방식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함께 알아볼 내용이다.

* * *

3. 예언과 과학적 예측: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예언의 매력적인 ‘적중’ 사례들과 그것을 해석하는 데 따르는 도전과 함정들을 함께 살펴본 후, 저와 아마도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현대인

이 발전시켜 온 미래 예측 방법들, 특히 과학적 예측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들은 완전히 분리된 두 세계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접점, 차이점, 그리고 유사점이 있는가?

● 과학적 예측: 이성과 데이터로 미래를 파악하려는 노력

과학적 예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체계적인 과정을 상상한다.

- **토대:** 과학적 예측은 보통 물질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이미 발견된 자연 법칙, 수학적 모델, 통계, 그리고 논리적 분석에 기반한다.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과거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그것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미래를 외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나 경향을 도출한다.
- **방법:** 이 과정은 모델 구축을 포함한다(예: 날씨 예측을 위한 기상 모델, 성장 예측을 위한 경제 모델, 질병 확산 예측을 위한 역학 모델). 이 모델들은 새로운 데이터나 이해가 추가될 때마다 지속적

으로 검사, 수정, 개선된다. 결과는 종종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일정한 확률을 가진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다.

- **목적:** 과학적 예측의 주요 목표는 보통 매우 현실적이다. 즉, 조기 경보(예: 태풍, 홍수, 지진)를 제공하고, 여러 분야(경제, 보건, 농업, 도시 계획)에서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위험을 관리하고, 인간이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더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성격:** 과학적 예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항상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검증 가능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예측은 원인을 분석하여 모델과 방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오차를 용납하며 그것을 발전 과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과학은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쥐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분명히, 과학적 예측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하려는 인간 지성의 노력의 산물이자 강력한 도구이다. 그것은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예언 (이 책에서 탐구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더 깊은 인식의 층에서 온 다른 접근 방식인가?

과학적 예측과 나란히 놓았을 때, 예언(이 책에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방식, 즉 예언가, 예언서, 계시, 꿈에서 온 메시지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 **토대:** 제 4 장에서 논의했듯이, 예언 정보의 출처는 매우 다양하며, 종종 전통적인 과학적 방식처럼 일반적인 논리나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스러운 존재로부터의 계시일 수도, 특별한 능력(천목)을 가진 사람들의 ‘봄’일 수도, 변성 의식 상태, 예지몽, 혹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가들, 특히 수련자들이 현대 실증 과학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공간, 우주 법칙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역사는 아마도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짜인 ‘각본’일 수 있으며, 예언은 바로 그 각본의 일부를 ‘미리 보는’ 행위일 수 있다.
- **방법:** 과학적 예측이 분석과 모델링에 의존한다면, 예언은 종종 직관, 감응, 혹은 ‘초자연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논리적 계산 과정의 결

과가 아니라, 때로는 일반적인 감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혹은 ‘아는’ 행위이다.

- **목적:** 예언의 목적 또한 단순히 구체적인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는 듯하다. 경고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많은 예언들은 그 안에 깊은 도덕적,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고, 인과 법칙을 상기시키며, 선을 향한 길을 장려하고, 혹은 우주와 운명의 더 큰 법칙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때로는, 미래의 일부를 미리 아는 것이 인간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히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천의(天意)’를 깨닫고 현재에서 더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 **성격:** 예언을 ‘검증’하는 것은 과학적 예측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해석의 기술, 믿음,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한 예언이 어떤 사람, 어떤 문화권에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몇몇 세부 사항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반박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깊

은 의미는 은유적 층위나 정신적 메시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핵심적인 차이점들:

위의 비교를 통해, 나는 예언과 과학적 예측 사이에 방법론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최종 목적에서도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 **정보의 출처와 현실 접근 방식에 대하여:** 현대 과학은 주로 감각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 내의 유형의 물질 세계를 탐험한다. 그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셀 수 있는’ 것에서 법칙을 찾는다. 반면, 예언은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온 정보에 닿는 듯하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혹은 우리가 물질과 시간에 대해 현재 이해하는 바를 뛰어넘는 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는 다차원적 현실을 시사한다.
- **방법론과 사용 도구에 대하여:** 과학은 논리, 분석, 수학적 모델, 실험을 사용한다. 예언은 직관, 영적

개방, 특별한 의식 상태, 혹은 미세한 메시지에 대한 감응에 의존한다. 과학자의 도구는 기계와 실험실이고, 예언가(특히 수련자)의 도구는 바로 그들 자신의 정화되고 제고된 의식일 수 있다.

- **목적과 최종 의미에 대하여:** 과학적 예측은 보통 물질적 삶에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즉 삶의 질 개선, 천재지변 예방, 경제 발전을 지향한다. 반면, 많은 예언들, 특히 위대한 예언들은 더 큰 사명을 지닌다. 즉, 양심을 일깨우고, 도덕적 쇠퇴를 경고하며, 신불(神佛)과 인과 법칙의 존재를 확증하고, 인류의 구원이나 정신적 전환을 위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일어나는가’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도 관심을 둔다.
- **신뢰도 및 ‘적중’ 가능성 평가 방식에 대하여:** 앞서 말했듯이, 과학적 예측은 데이터로 검증될 수 있으며, 오차는 과정의 일부이다. 예언은 더 복잡하다. 그것의 ‘적중’은 종종 믿음, 해석 능력과 결부되며, 때로는 사건이 한참 지난 후에야 ‘적중’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 예언이 사건의 세부 사

항에서는 적중하지 않더라도, 그 경고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과연 만나는 지점이나 상호 보완의 공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나란히 놓았을 때, 내 안에서는 큰 질문 하나가 나타났다. 과연 그것들은 완전히 대립하고, 서로를 배척하는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우주와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는 여정에서 서로 만나고, 심지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가?

찬란한 성과를 거둔 현대 실증 과학은 우주, 의식, 그리고 생명의 거대한 신비에 직면하면서 점차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듯하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으로는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 과연 현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예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감지하거나 ‘본’ 우주의 어떤 ‘법칙’, 에너지의 흐름, 혹은 현실의 차원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위대한 과학자의 직관이 때로는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견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경우들을 생각한다. 그 직관이 예언가들의 ‘감응’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과학이 우리가 ‘예언’이라고 여기는 일부 현상들의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깊은 명상 상태의 뇌에 대한 연구, 잠재의식에 대한 연구, 특별한 꿈에 대한 연구, 혹은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양자물리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예언가들이 이미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문들을 어느 정도 열어줄 수 있을까?

성찰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는 예언이 과학을 대체하기 위해 있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니라고 느낀다. 각 방법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과학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해하고 개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언, 특히 영적 메시지를 담은 예언들은 우리가 핵심 가치를 찾고, 선을 향하며, 우리가 보통 보는 것보다 더 광대하고 의미 있는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

아마도, 진정한 과학적 태도는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일 것이다. 어쩌면 미래에, 인류의 인식이 더 발전했을 때, ‘과학’과 ‘영성’, ‘예측’과 ‘예언’ 사이의 경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질의 법칙과 정신, 운명의 법칙

을 모두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이해, 즉 ‘새로운 과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언들, 예언서들은 아마도 선현들이 남긴 힌트, ‘흔적’일 것이며, 우리가 더 광대한 현실의 그림, 우리가 점차 발견해 나가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과학’에 대해 사색하도록 초대하는 것일 수 있다.

4. 테일러 리드의 견해:

이 장에서 우리가 함께 탐험한 모든 것—‘적중’하는 예언의 매력, 해석 기술의 도전과 함정, 그리고 예언과 과학적 예측의 비교—을 돌이켜볼 때, 저는 이 주제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느낀다. 분명, 예언에서의 ‘적중성’은 ‘옳다’ 또는 ‘그르다’로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연구가로서, 그리고 저와 같은 영적 성찰자로서의 여정은 항상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개별 예언의 정확성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려는 노력이 때때로 그것들이 가져

다줄 수 있는 더 깊은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적중’이 항상 예언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예측이 현실이 되는지 여부보다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 사색을 유도하는 가능성, 그리고 인간이 선을 향하고 더 의식적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위대한 예언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온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것들은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종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종소리와 같다.

예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건강한 회의론의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 나는 맹목적인 미신을 옹호하거나, ‘예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믿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현재의 이성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기꺼이 들으려 하면서도, 온 마음과 정신으로 끊임없이 사고하고, 분석하며, 느끼는 것—그것이 아마도 가장 적합한 길일 것이다.

현대의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적중을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언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인간의 인식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그것들이 인간 의식 속 매우 근본적인 무언가—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열망,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열망, 그리고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열망—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색으로부터, 내 안에서는 더 큰 질문 하나가 생겨나, 우리를 여정의 새로운 측면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각 예언의 옳고 그름이나 ‘적중’ 수준에 대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과연 전 세계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예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거대한 주제, 보편적인 메시지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큰 변동, 정화, 그리고 새로운 황금시대의 재탄생에 대한 열망과 같은 주제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우리를 그토록 흔들고 일깨우는 것일까? 그리고 어둠에 대한 경고 속에서, 희망의 빛줄기, 밝혀진 등불은 어디에 있는가?”

* * * * *

제 6 장: 시간을 초월한 주제 들 – 격변, 정화 그리고 부활의 희망

제 5 장에서 예언이라는 ‘강’의 굽이치는 물길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지나오면서, 우리는 예언의 ‘적중’과 그 해석 기술의 도전과 함정들을 함께 고찰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마도 더 중요하고 보편적인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 머나먼 시대에서 왔거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들은 마치 거대한 주제, 익숙한 모티프,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 주제들은, 마치 우주 교향곡의 주선율처럼, 수 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인류 의식의 깊은 곳을 건드린다. 그것들은 거대한 변동, 혼란스러운 시기,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재앙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정화,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끝, 그리고 더 찬란한 ‘황금시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부활의 희망을 심어준다.

이 제 6 장에서 내가 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은 큰 질문은 이것이다. 왜 변동, 재앙, 한 주기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부활에 대한 열망의 이미지들이 그토록 인류의 의식을 사로잡는가? 그것들은 단지 뿌리 깊은 두려움일 뿐인가, 아니면 우주와 생명의 더 깊은 법칙을 반영하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어둠에 대한 경고 속에서, 예언가들이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밝힌 희망의 빛줄기, 등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언이라는 강이 전하고자 하는 공통된 패턴과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들을 찾기 위해, 이 ‘메아리들’에 함께 귀 기울일 것이다.

1. 격변의 메아리: 대재앙과 말겁(末劫) 시대에 대한 경고

전 세계 예언들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마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주제 중 하나는, 변동, 혼란, 천재지변, 인재(人災), 그리고 도덕적 쇠퇴로 가득 찬 한 시기에 대한 묘사이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 시기를 ‘말겁 시대’, ‘세상의 종말’, ‘칼리 유가’, 혹은 간단히 ‘마지막 시기’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언어와 이미지는 다를지라도, 이 경고들 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

● 여러 문화권의 예시들을 엮어서:

➤ 서양:

- ✧ 성경 (요한계시록):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시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 하나일 것이

다. 성 요한의 계시록은 세상에 닥칠 끔찍한 재앙들을 생생하고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즉, 전쟁(아마겟돈), 기근, 역병, 적그리스도의 출현,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다. ‘일곱 인’, ‘일곱 나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의 이미지는 대재앙의 고전적인 상징이 되었다.

✧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 바이킹 신화에서 라그나로크(‘신들의 황혼’)는 일련의 종말론적 사건들로, 긴 겨울(핀불베트르), 아스 신족과 암흑 세력(예: 서리 거인, 늑대 펜리르, 바다뱀 요르문간드) 간의 끔찍한 전투를 포함하며, 많은 주요 신들(오딘, 토르, 프레이르, 헤임달, 로키)의 죽음과 불과 물에 의한 세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거 케이시와 같은 예언가들:** 제 5 장에서 언급했듯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콰트렌에서 참혹한 전쟁(현대 무기 포함), 지질 변동, 기근, 역병의 이미지들을 자주 언급했다. 에드거 케이시 또한 지구 표면의 큰 변화, 지축 이동, 지진, 화산 폭발, 그리

고 전면적인 갈등에 대해 경고하는 ‘리딩’을 남겼다.

➤ **동양:**

☆ **불교 (말법시대 개념):** 불경에서, 말법시대(末法時代)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마지막 단계로, 그분의 가르침이 점차 쇠퇴하고, 승단이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중생은 마음이 강박하여 교화하기 어렵고, 사회 도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통, 천재(수재, 화재, 풍재 등), 인재(전쟁, 기근, 역병), 그리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인심으로 묘사된다.

☆ **힌두교 (유가 주기):** 힌두 철학에 따르면, 우주는 유가(Yuga)라는 큰 주기에 따라 운행된다. 현재 우리는 마하 유가(네 유가의 한 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시기인 칼리 유가에 살고 있다. 칼리 유가는 도덕적 쇠퇴, 갈등, 거짓, 탐욕, 질병, 그리고 인간 수명 단축의 시대로 묘사된다. 인간은 진리(다르마)에서 멀어지고, 전통적 가치가 뒤집힌다. 이곳은 새로운

사트야 유가(진리의 황금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악이 우세해 보이는 단계이다.

☆ **짱썬 예언(베트남), 중국 예언서들 (예: 유백온, ‘매화시’):** 짱썬의 예언들도 종종 “피가 강을 이루고, 뼈가 산을 쌓는” 장면, “말은 거꾸로 달리고, 사람은 이리저리 달아나는” 장면을 언급하며, 혼란, 전쟁, 왕조 교체를 묘사한다. 유백온의 《소병가》, 《금릉탑비문》이나 소옹의 《매화시》와 같은 작품들에도 재앙, ‘열에 일곱이 죽는’(십분자칠, 十份子失) 참상, ‘산에 흰 뼈가 가득한’(백골만산, 白骨滿山) 광경,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다.

➤ **다른 원주민 문화들 (예: 마야, 호피):** 복잡한 달력 체계를 가진 고대 마야인들도 ‘세계’나 큰 시간 주기의 끝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예: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긴 했지만 2012 년 제 13 박툼 주기의 끝). 북미의 호피족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된 ‘정화의 날(Day of Purification)’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 이때 세계는 더 평화로운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기 전에 큰 변동, 전쟁, 그리고 파괴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또한 이 시기를 예고하는 ‘징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 경고에 대한 공통된 특징과 더 깊은 해석들:

여러 다른 예언 출처에서 온 대재앙과 말겁 시대에 대한 묘사들을 살펴보면, 나는 몇 가지 두드러진 공통된 특징들과, 특히 현재 세계의 상황과 대조해 볼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해석들을 발견했다.

➤ 핵심 원인 또는 징조로서의 사회 도덕 쇠퇴:

성경, 불교, 힌두교에서부터 동양의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예언들은 대재앙의 시기가 종종 도덕과 정신적 가치의 심각한 쇠퇴와 함께하거나 그에 의해 예고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기만적이며, 잔인해지고, 사회 규범이 뒤집히며, 신불(神佛)과 하늘과 땅에 대한 존경심이 경시되거나 비방당한다.

☆ **더 깊은 해석:** 많은 연구가들은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도덕적 쇠퇴는 일종의 ‘부정적인 에너지장’ 또는

거대한 ‘공동의 업력’을 만들어내며, 바로 이것이 우주의 인과 법칙에 따라 상응하는 재앙을 불러오거나 이끈다는 것이다. 인간이 신께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도덕 기준에 역행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예언가들은 이 인과 관계를 꿰뚫어 보는 듯하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경고라고 느낀다. 즉,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있다는 것이다.

➤ **천재, 인재, 그리고 비정상적 현상의 증가:**

예언들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 증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지진, 화산, 쓰나미, 홍수, 가뭄, 이례적인 폭풍, 만연하는 전염병. 그 외에도 인재가 있다. 즉, 광범위한 전쟁(세계 대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 민족 및 종교 갈등, 테러, 사회 불안, 범죄 증가이다.

✧ **더 깊은 해석:**

- ✓ **천재에 대하여:** 일부 해석은 지구가 살아 있는 실체로서, 인간이 야기한 환경 파괴

와 불균형에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질 변화, 극단적인 기후는 행성의 자연적인 정화 주기의 일부이거나, ‘하늘과 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경고의 적중일 수 있다. 에드거 케이시의 지구 지축 변화, 일부 지역의 용기 또는 침몰에 대한 예언이나, 일본의 난카이 해구 및 환태평양 조산대와 관련된 ‘2025 년 7 월 대재앙’에 대한 타츠키 료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지질학적 징후와 대조하며 관심을 갖는 예들이다.

나는 에드거 케이시나 타츠키 료와 같이 널리 알려진 예언가들의 예측 외에도,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의 초능력자, 신비 현상 연구가들—예를 들어 미국의 초능력자 브랜든 빅스, 태국의 모 플라이, 혹은 일본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야스에 쿠니오—로부터도 적지 않은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음을 발견했다. 이들 또한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대규모 지질 재해, 특히 지진과 쓰나미 발생 위험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담은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비록 이 출처

들의 검증 수준과 신뢰도는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명료한 정신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인들로부터 비슷한 경고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현상이다. 그것은 시대의 공통된 불안을 반영하거나, 잠재적인 지구의 변동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감응, 즉 아마도 일부 민감한 사람들이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진동’일 수 있다.

- ✓ **인재와 전쟁에 대하여:** 노스트라다무스는 여러 콰트렌에서 ‘세 명의 적그리스도’와 끔찍한 세계 대전들을 묘사했다. 많은 현대 해석가들은 우리가 전 지구적 지정학적 긴장, 핵 충돌 위험, 그리고 독재적이고 잔혹한 세력의 부상과 함께,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있거나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양의 예언서들도 ‘사방에서 병란이 일어나고’, ‘곳곳이 혼란스럽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 ✓ **전염병에 대하여:**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겁 시대의 ‘역병’에

대한 예언들을 떠올리게 했다. 유백온은 《금릉탐비문》에서 “역병이 언제 나타날지 묻는다면, 다만 구월 동짓달과 시월 사이를 보라(若問瘟疫何時現, 但看九冬十月間)”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위험한 다른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백온의 예언과 같이 일부 예언들은 역병이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특정 사람들을 겨냥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업력이나 도덕적 선택과 관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특별한 ‘징후’의 출현:**

천재, 인재 외에도, 일부 예언들은 천문학적 기이 현상, 하늘이나 자연 속의 기이한 징후들을 중요한 징조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혜성의 출현, 비정상적인 일식, 월식 현상, 또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다.

✧ **우담바라 – 희망의 전령사:**

우담바라(Udumbara) 꽃의 출현은 두드러진 예이다. 불경에 따르면, 우담바라 꽃은 3000년에 한 번 피며, 그 출현은 전륜성왕(轉輪聖王,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왕) 또는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옴을 알린다.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작고 하얀 꽃이 다양한 표면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보고가 수없이 많았다. 나는 과학이 이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음에도(예를 들어, 풀잠자리과 곤충의 알이라고 주장하는 등),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담바라의 출현은 여전히 깊은 영적 의미, 즉 길조이며, 말 겁 시대의 불안 속에서 희망의 신호로 여겨진다고 본다.

☆ **성스러운 눈물 – 성인(聖人)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울음소리:**

앞선 장들에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이미지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절박한 징후로 여기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종교적 성상, 특히 성모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리는 현상일 것이다.

때로는 향유, 때로는 검붉은 피 한 방울인 그 눈물들이 성상의 얼굴을 타고 길게 흘러내리는 모습은 뇌리에 박히는 상징이 되었고, 신성한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말 없는 ‘종소리’이며, 목메인 경고이다.

성모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알려진 일본 아키타의 외딴 마을에서부터,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들, 미주 대륙의 순례지, 혹은 아시아 가정의 작은 제단에 이르기까지, 이 현상에 대한 보고는 최근 수십 년간 주목할 만한 빈도로 나타났다. 비록 가톨릭 교회가 초자연성에 대한 어떤 선언을 내리기 전에 항상 매우 신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많은 경우가 자연적 요인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교회의 조사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 이 눈물들에 대해 성찰할 때, 아마도 성스러운 존재들이 인류를 향해 느끼고 있을 깊은 슬픔, 무한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물질과 갈등, 그리고 도덕적 쇠퇴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세상을 향한 비통의 눈물인가? 그것은 바로 눈앞의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가치에 여전히 미혹되어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박한 재앙과 대재앙에 대한 목메인 경고인가?

사랑, 순결, 그리고 자비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미지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이며, 가장 굳어진 마음을 뒤흔드는 ‘마지막 종소리’이자, 너무 늦기 전에 진정한 참회와 시급한 회심을 촉구하는 초대일 것이다. 그 눈물들은 나에게 단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에도 성인들께서 여전히 인간에게 베푸시는 광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간절한 초대이다. 그것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음을 말하려는 듯하다.

➤ **대재앙의 시점 – 숫자들과 숨은 의미:**

이것은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 중 하나이다. 일부 예언들은 시점과 관

련된 숫자, 이정표, 혹은 징후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 **노스트라다무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콰트렌에 나오는 숫자들과 천문학 용어들을 해독하여 큰 사건들의 시점을 특정하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1999 년 7 월”에 대한 유명한 콰트렌(제 10 권, 72 편)은 중국에서의 파룬궁 탄압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왔다.

✧ **마야 예언:** 비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2012 년 12 월 21 일 ‘세상의 종말’이 세계적인 변고 없이 지나갔지만, 마야 역사 연구가들은 그것이 단지 큰 주기의 끝이었으며, 과도기적 단계를 여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 **타츠키 료:** 앞서 말했듯이, 그녀의 “2025 년 7 월”에 대한 예측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중국 예언서들:** 종종 간지(干支) 체계, 상징적인 숫자, 혹은 연월과 관련된 글자 수수께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백운은 《추비도》에서 “토끼해의 시작, 닭해의 끝에 이를 때(時到

兔頭雞尾年)”를 언급하거나, “닭의 해 3 년, 개의 해 3 년(三載雞, 三載犬)”이 어려운 시기라는 구절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들을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해들과 대조하려 애쓰고 있다.

- ☆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 비록 숫자들과 시점이 언급되긴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위대한 예언가들(특히 신뢰할 수 있는 종교적 출처에서 온)은 전 지구적 대재앙에 대해 바꿀 수 없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시대의 징후와 도덕적 쇠퇴를 인지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 이러한 경고들의 주된 목적은 인간을 일깨우고,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며, 인간에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만약 모든 것이 경직되게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와 수양의 의미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아마도, 바로 현재 인류의 선택들이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정도와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일 것이다.

테일러의 사색:

왜 대재앙과 말겁 시대라는 주제가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의식 속에서 그토록 보편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이 단지 파괴와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인간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우주의 주기적 법칙, 즉 성(成)-주(住)-괴(壞)-멸(滅)의 끊임없는 움직임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혹은,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는 절박한 알림은 아닐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와 의미를 찾기 위해 이 경고들을 함께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더 깨어 있는 의식으로 미래를 마주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끝맺음 속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있다: 주기, 정화 그리고 부활의 열망

예언에서 오는 ‘격변의 메아리’를 들으며, 대재앙과 말갹 시대에 대한 묘사를 접할 때, 불안감, 심지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아마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 즉 종말에 대한 경고 속에 혹은 그 직후에 종종 숨겨져 있는 깊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주요 예언 전통에서 ‘끝’이 완전한 파괴, 영원한 마침표를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 그것은 종종 더 큰 주기의 일부, 필요한 전환, 고통스럽지만 정화적인 ‘대수술’로 여겨진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싹, 더 밝은 시대가 싹트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주와 문명의 주기에 대한 개념:

우주, 역사, 그리고 문명의 주기적 운동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 여러 고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상인 듯하다.

- **성주괴멸(成住壞滅):**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하나의 세계 주기(겁, 劫) 또는 우주의 네 단계를 묘사한다.

성(成): 형성, 창조의 단계.

주(住): 안정, 발전, 존속의 단계.

괴(壞): 쇠퇴, 붕괴, 해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멸(滅) (또는 공, 空): 완전히 파괴되어, 새로운 주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의 무(無)의 상태로 돌아가는 단계.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역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전 항목에서 이야기했던 말법시대는 ‘괴(壞)’의 마지막 단계로, 점차 ‘멸(滅)’로 나아가고, 그런 다음 새

로운 세계, 새로운 ‘성(成)’의 주기가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상은 거시적인 우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조의 흥망성쇠, 문명의 부침, 심지어 각 개인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

-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늙고 쇠약해졌을 때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서 몸을 불사른 뒤, 그 잿더미에서 더 젊고 강인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는 전설적인 불사조의 이미지는 불멸, 부활, 그리고 파괴를 통한 혁신의 강력한 상징이다. 이 전설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며, 끝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보여준다.

- **고대 문화 속 시간 주기:**

- ✧ **힌두교:** 앞서 언급했듯이, 네 유가(사트야, 트레타, 드바파라, 칼리)의 주기는 반복되며, 칼리 유가는 새로운 사트야 유가, 즉 진리와 덕의 ‘황금시대’가 다시 시작되기 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이다. 칼리 유가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새벽으로의 전환이다.

- ☆ **마야 달력:** 고대 마야인의 롱 카운트(Long Count) 달력 체계 역시 큰 시간 주기에 기반한다. 한 주기의 끝(예: 2012 년의 13 번째 박툼)은 전문가들에 의해 파괴적인 의미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특징과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시대로의 길을 여는 하나의 ‘세계’ 또는 ‘태양 시대’의 끝으로 이해된다.

나는 이러한 주기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변동 앞에서 더 넓고 평온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느낀다. 단지 상실과 파괴만을 보는 대신, 우리는 낡은 것이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고, 쇠락이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정화(淨化):

만약 끝이 주기의 일부라면, 그 끝으로 가는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종종 정화(purification)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무의미한 징벌이 아니라, 낡고, 퇴화했으며,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더 새롭고, 순수하며, 긍정적인

것들이 발전할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의 제거:**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것처럼, 한 사회, 한 문명, 심지어 행성 전체도 ‘암세포’—그것은 잘못된 사상, 불공정한 사회 구조, 도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 있다—를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변동과 재앙은 비록 끔찍하지만, 이러한 병원균들을 제거하는 강력한 ‘고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선악과 진위를 가리는 시련:** 혼란과 큰 변동의 시기,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고 진위가 뒤섞일 때, 그것은 바로 각 개인, 각 사상, 각 세력의 진정한 본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련은 ‘불은 금을 시험하고, 고난은 의지를 시험한다’는 말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는데 도움을 준다. 오직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선량한 것만이 굳건히 서서 정화를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전의 ‘산고(産苦)’:** ‘대재앙’이나 ‘말굽 시대’의 이미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전의 격렬한 ‘산고’에 비유될 수 있다. 고통과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은 또한 중대한 사건—더 나은 무언가의 탄생—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많은 예언들은 이 시기를 위대한 ‘체질’의 과정으로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오직 양심과 도덕을 굳건히 지키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수 있다.

나는 변동을 정화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성찰한다. 그것은 시련의 필요성과 깊은 의미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며, 각 개인과 인류 전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며, 더 위대한 전환을 준비할 기회로 삼게 한다.

● 부활과 새로운 ‘황금시대’에 대한 열망:

아마도 종말에 대한 예언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많은 위안을 주는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이 파괴의 암울한

그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재앙과 정화에 대한 묘사 후에, 대부분의 예언들은 더 밝은 비전, 즉 부활과 새로운 ‘황금시대(Golden Age)’의 시작에 대한 약속을 열어 보인다.

이것은 인류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듯한 열망이자, 기나긴 어둠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며, 그 빛은 이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묘사:**

다른 문화권들은 이 좋은 시기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계이다.

- ✧ **평화와 화합의 지배:** 전쟁, 갈등, 증오가 종식된다. 사람들은 인종, 종교, 국가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
- ✧ **공정과 도덕의 회복:** 거짓, 불의, 부패가 사라진다. 진정한 도덕적 가치가 숭상되고 사회의 기반이 된다.

-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지구가 치유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며, 자연이 아름다워진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 **정신과 지혜의 발전:** 인간은 더 높은 인식 수준에 도달하여, 우주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이 최소화된다.
- ✧ **진리 또는 성스러운 존재의 현현:** 일부 예언들은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깨달은 존재들, 성인들이 나타나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 **공동의 희망에 대한 다른 이름들:**

- ✧ **유대-기독교 전통:**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세워질 ‘지상의 천국 (Heaven on Earth)’,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일 수 있다.
- ✧ **불교:** 말법시대 이후, 미륵불이 출현하여 중생들이 안락 속에서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인

간 정토(人間淨土)’를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 **힌두교:** 칼리 유가가 끝난 후, 사트야 유가(또는 크리타 유가)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는 진실, 덕, 평화의 시대이다.

☆ **서양의 비전(秘傳) 학설:** 사람들은 종종 ‘물병자리 시대(Age of Aquarius)’를 깨달음, 형제애, 그리고 비약적인 영적 진보의 시기로 이야기한다.

☆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와 옛 세계의 파괴 후, 바다에서 새롭고 푸르며 비옥한 세계가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곳에서 살아남은 신들과 한 쌍의 인간(리프와 리프프라시르)이 더 나은 새로운 혈통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황금시대’에 대한 열망이 단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느낀다. 그것은 생명의 회복력과 비상 능력에 대한 내재적 믿음,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더라도 선과 아름다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깊은 낙관주의를 반영한다. 그것은 또한 인간

이 더 나은 미래에 걸맞게 자신과 세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촉구하는 강력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테일러의 견해:

우주 주기, 필요한 정화, 그리고 부활과 황금시대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같은 거대한 주제들을 성찰할 때, 나는 그것들이 단순히 예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들은 마치 인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두 감지하는, 생명의 보편적인 법칙, 우주의 리듬을 반영하는 듯하다.

끝과 시작, 파괴와 재창조, 어둠과 빛—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의 대립항이자, 만물의 끊임없는 운동과 진화의 원동력이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어야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애벌레가 답답한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화려한 나비로 변태할 수 있듯이, 인류와 문명 또한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변화하기 위해 상징적인 ‘죽음’, 고통스러운 정화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언 속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부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낡은 한계를 넘어 더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가능성,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미래의 생명의 싹이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아마도, 대재앙에 대한 경고 속에서 예언들이 끊임 없이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싹 중 하나, 가장 찬란한 희망의 빛줄기 중 하나는, 바로 인류를 어둠에서 이끌어 새벽으로 인도할 사명을 지닌 구세주들, 성인들의 출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함께 탐구할 주제이다.

3. 터널 끝의 빛: 구세주와 말겁(末劫)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

대재앙, 정화, 그리고 한 주기의 끝에 대한 그림들이 예언들을 통해 그려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종 큰 질문 하나가 생겨난다. 과연 인류는 그 끔찍한 시련들에 홀로 맞서도록 버려지는 것일까? 아니면 칠혹 같은 어둠 속에

서 길을 비추는 빛, 피어나는 구체적인 희망이 있는 것일까?

나는 말겁 시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종종 나타나는, 가장 큰 위안과 힘을 주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위대한 구세주(救世主), 성인(聖人), 깨달은 존재의 출현에 대한 믿음과 예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분은 인류를 이끌고, 도덕을 회복하며, 질서를 다시 세우고, 더 밝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것은 몇몇 문화권만의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종교와 영적 전통을 통해 울려 퍼지는 보편적인 열망이자 기다림이다. 역사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인간은 항상 신성한 도움, 더 높은 존재들의 개입을 향하는 듯하다.

● 여러 문화권에서의 구세주/성인/미륵불에 대한 기다림:

결정적인 시기에 성스러운 존재들이 강림하거나 사자를 보내 중생을 구원하는 것은, 예언들을 통해 드러난 우주 계획의 필연적인 부분인 듯하다. 그분들의 출현은 구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잊혀지지 않았으며, 신불(神佛)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다는 확증이기도 하다.

➤ **메시아 (유대교와 기독교):**

☆ 유대교에서 메시아(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현에 대한 믿음은 그 토대 중 하나이다. 그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며, 성전을 재건하고, 지상에 평화와 정의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다려진다.

☆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으며, 신도들은 그의 재림 (Second Coming)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묘사한다.

➤ **미륵불(彌勒佛) (Maitreya) (불교):**

불교에서 미륵불(마이트레야, ‘자애로운 분’ 또는 ‘친구’라는 의미)은 미래의 부처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

침이 쇠퇴한 후(말법시대 말기) 지상에 출현할 것이다. 그는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세 번의 설법(용화삼회, 龍華三會)을 통해 무수한 중생을 구원하며, 인간의 수명이 길고 도덕이 회복되며 수행이 더 쉬워지는 평화롭고 안락한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산스크리트어 ‘마이트레야’라는 이름이 다른 전통의 구세주 이름들과 음성적,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띤다는 점이며, 이는 깊은 연관성을 시사한다.

➤ **사오쉬안트 (조로아스터교):**

가장 오래된 유일신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에서 사오쉬안트(구원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 최후의 부활(프라쇼케레티)을 가져오고, 악을 완전히 물리치며, 세상을 정화할 인물이다. 마지막 세 천년 동안 세 명의 사오쉬안트가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 사오쉬안트가 전면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다.

➤ **칼키 아바타 (힌두교):**

힌두교에서 칼키는 비슈누 신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아바타(화신)로 여겨지며, 칼리 유가 말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는 흰 말을 타고 불타는 검을 손에 쥔 모습

으로 묘사되며, 악과 불의한 자들을 멸하고 다르마(진리, 도덕)를 다시 세워, 새로운 사트야 유가를 열 것이다.

➤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거 케이시, 그리고 다른 예언서 속의 성인들:**

노스트라다무스 또한 끔찍한 전쟁 후에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군주(Great Monarch)’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콰트렌들을 남겼다. 에드거 케이시 역시 예수의 재림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언했다. 짱썬, 유백온과 같은 동양의 예언서들도 세상을 구하고 태평성대를 열 ‘성인’, ‘명군(明君)’, 혹은 ‘진주(真主)’의 출현을 자주 언급한다.

나는 이름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시기에 신성한 사명을 띤 구세주, 성인이 출현하는 이미지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모티프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신의 개입, 고통과 불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지혜와 자비로 인도되는 미래에 대한 인류의 불타는 희망을 표현한다.

● **구세주에 대한 예언적 징후와 상징들:**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믿음은 단지 일반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예언들은 종교 경전에서부터 민간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장소, 시점, 특징, 심지어 이름과 관련된 세부 사항, 징후, 상징들을 드러내는 듯하다.

나는 여러 정보를 탐구하고 엮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러한 징후들 중 일부가 놀라울 정도로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수렴 현상을 발견했다. 나는 이것을 독자 여러분이 함께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절대적인 주장을 하거나 단일한 해석을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참고가 될 만한 ‘정보의 조각들’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 **강림/출현 장소 – 동방, 중토(中土, 중국)로부터의 부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여러 예언 출처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징후 중 하나는, 마지막 시기의 구세주, 성인이 동방에서 출현하거나 기원하며, 많은 구체적인 해석들이 ****중국(중토, 中土)****을 지목한다는 점이다.

☆ 성경에서, 마태복음 2 장은 동방박사(Magi)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찾아온 이야기를 전한다. 마태복음 2 장 1-2 절 (개역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것과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구세주를 향한 동방으로부터의 신성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 불교 전통 전반에도 미래에 미륵불이 말법시대 이후 동방에 출현하여 정법(正法)을 전하고 중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다.

☆ 더 구체적으로, 명나라 시대 **유백온(劉伯溫)의 유명한 예언서 《추비도(推碑圖)》**에는, 연구가들에 의해 미륵불(또는 이 시기의 구세주)이 세상에 내려오는 장소를 매우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추비도》제 2 권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대각자(大覺者)께서 허공을 꿰뚫고 남섬부주 세계의 중천(中天)에 이르시니, 중국 금계(金雞)의

눈에 있으며, 옥청(玉淸)을 받들 때 연갑이 다하고, 용화회(龍華會)는 호랑이해와 토끼해에 중천에 이르러, 목자(木子)를 성으로 삼는다. (大覺者『透虛到南闔浮提世界中天，在中國金雞目，奉玉淸時年劫盡，龍華會虎兔之年到中天，認木子為姓。』) ”

해석가들은 ‘중국 금계의 눈(中國金雞目)’이 중국의 특별한 위치를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 지도가 황금 닭(金雞) 모양과 같고, ‘목(目)’은 눈을 의미하므로, ‘금계의 눈’은 지도상 황금 닭의 눈에 해당하는 위치, 예를 들어 동북 지역 닭의 머리 부분에 있는 지린성(吉林)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중천(中天)’ 또한 중심, 중원(中原), 즉 중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중국의 또 다른 고전 예언서인 《추배도(推背圖)》(당나라 시대 이순풍과 원천강의 저작으로 추정)에도 중국에서 성인이 출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괘상(卦象)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 44 상에는 “일월이 하늘에서 빛나니, 못 음기들이 두려워 굴복하고, 온갖 신령들이 조회하러 오며, 두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발이 있네. (日月麗天，群陰懾服，百靈來朝，雙羽四足。)”와 같은 구절이 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일월러천(日月麗天)’이 광

명정대함을 암시하며, 이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 성인이 출현하여 사악한 세력의 굴복과 만물의 귀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도 ‘동방에서 온 사람 (Man from the East)’이나, 미래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큰 변동 후에 평화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동방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콰트렌들이 있다.

☆ 테일러의 사색: 동방,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중국 (중토)이 성인이 출현하는 장소로 강조되는 것을 보며, 나는 이 땅의 역사적, 영적 의미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과연 이곳이 수천 년간 지켜온 깊은 문화적, 정신적 가치 때문에 선택된 곳일까, 아니면 이 선택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성찰해야 할 어떤 ‘천기(天機)’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 **출현 시점 – 상징적인 숫자들과 간지(干支):**

구세주가 출현하는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종종 예언가들은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시간과 관련된 몇몇 징후들과 특정

간지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특히 동양의 예언서에서 그러하다.

☆ 토끼의 해(묘, 卯)와 관련된 간지들:

많은 예언들, 특히 미륵불이나 구세 성인과 관련된 예언들에서, 토끼의 해(묘년, 兔年)는 종종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유백온의 《추비도》에서,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는 “용화회는 호랑이해와 토끼해에 중천에 이르러, 목자를 성으로 삼는다. (龍華會虎兔之年到中天, 認木子為姓。)”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용화회(미륵불이 설법하는 시점)가 인년(호랑이해)과 묘년(토끼해)에 열릴 것이며, 묘년에 성인(목자)이 ‘중천’(중국)에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추비도》의 다른 일부 해석에는 “토끼 머리, 뱀 꼬리에 이르러 태평을 보리라. (時到兔頭蛇尾見太平)”와 같은 구절이 있다. 혹은 “닭의 해에 이르러야 평정되고, 원숭이해와 닭의 해에 이르러야 병란이 그친다.”와 같은 구절들은, 이 큰 사건의 여러 단계를 표시하는 데 다양한 간지가 결합됨을 보여준다.

연구가들은 또한 한국의 유명한 예언서인 ** 《격암유록(格庵遺錄)》 **에서도 한 성인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묘년’(토끼의 해)에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발견했다.

☆ **성경 속 숫자들과 주기:**

성경,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적 기간과 관련된 많은 상징적인 숫자들(예: 7, 10, 12, 40, 70, 1260, 1290, 1335, 2300)이 있다.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이 숫자들을 해독하고, 그것들을 역사적 사건 및 마지막 시기에 대한 예언들과 연결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록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이러한 숫자들의 존재는 어떤 신성한 ‘일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 ☆ **테일러의 주:** 위대한 깨달은 존재들과 예언가들이 종종 절대적인 날짜와 연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상징적인 이미지, 숫자, 간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믿음과 깨달음(悟)을 시험하기 위함일 것이다. 천기는 완전히 누설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선택이 진정으로 심성에서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미(迷)’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의 이름 또는 이름과 관련된 글자들 – ‘목자(木子) 이(李)’의 신비:

이것은 동양 예언 연구가들이 가장 깊이 관심을 갖는 측면 중 하나이며, 여러 출처에서 주목할 만한 수렴 현상을 보인다.

☆ ‘목자(木子)’ 이(李)씨:

유백온의 《추비도》에서, “목자를 성으로 삼는다 (認木子為姓)”라는 구절은 매우 명확한 지침이다. 위에는 ‘목(木, 나무)’자가, 아래에는 ‘자(子, 아들, 스승, 씨앗)’자가 합쳐져 ‘이(李)’자를 이룬다.

유백온의 《소병가(燒餅歌)》에도 명 태조와 유백온 사이의 대화에서 ‘목자 성인’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다.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예언가인 소옹(邵雍) 또한,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황극경세(皇極經世)》나

다른 작품들에서 미래의 성인이 이(李)씨 성을 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수백 년의 시간차를 둔 예언서들에서 이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드러난 중요한 천기(天機)라고 믿게 만들었다.

☆ 다른 칭호들:

구체적인 성씨 외에도, 구세주는 이미 언급했듯이 메시아, 마이트레야(미륵), 전륜성왕, 창세주, 만왕지왕(萬王之王) 등 여러 칭호로 알려져 있다. 칭호는 다양하지만 역할과 사명이 일치한다는 점은, 보편적인 진리가 각기 다른 문화적 렌즈를 통해 표현됨을 보여준다.

☆ 테일러의 성찰:

- ✓ 예언가들이 파자(破字)나 은유를 사용하여 성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천기를 지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지혜와 성심을 시험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오직 진심으로 탐구하고, 인연이 있으며, 깨달음(悟)이 있는 자만이 이 메시지들을 해독할 수 있다.

- ✓ ‘전륜성왕(轉輪聖王, 법륜을 돌리는 왕)’, 즉 정법(正法)으로 세상을 교화하는 왕의 이미지를 성찰할 때, 나는 개인적인 연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륜(轉輪)’, 즉 법을 돌리고 전파한다는 의미의 이 용어는, 내가 알기로 현재 전 세계에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심성 수양의 지침서로 삼는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이름의 책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고대의 칭호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성찰과 체험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일 것이다.

➤ 그의 사명과 품성 – 대법(大法)을 전하여 구원하고 선악을 가름: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들은 구세주/성인이 비범한 품성과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올 것이며, 특히 말겅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 **우주 대법(大法)을 전함:** 그는 단지 옛 종교들을 부흥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대법, 즉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 법은 매우 오묘하여, 사람이 심성(心性)을 높이고, 신체를 정화하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유백온의 《추비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미륵불이 보산에 앉아, 진법을 설하여 원래의 사람들을 구원하네. (彌勒佛坐寶山, 講說真法度原人。)”

✧ **사찰이나 수도원에 머물지 않음:** 많은 예언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성인이 전통적인 승려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사찰이나 수도원에 머물지 않으며, 일반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 일상적인 언어로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백온은 《소병가》에서 명 태조가 누가 마지막으로 도를 전할 것인지 묻자 다음과 같은 시로 답했다. “형상 없는 승려요 또한 형상 없는 도인이니, 네 냥 무게의 양가죽 모자를 썼네. 진정한 부처는 사찰 안에 있지 않으니, 그는 바로 근본 가르침의 미륵이라네.” 원문 한자:

「無相僧，亦無相道，

戴四兩羊皮帽。

真佛不在寺院中，

彌勒原來是本教。」

이는 그의 법이 사회의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될 것임을 시사한다.

- ☆ **선악을 가리고, 선한 사람을 구하며, 악한 사람을 도태시킴:** 그의 사명은 단지 법을 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정법을 믿고 마음을 닦아 선을 향하는 자는 대재앙을 넘어 구원받을 것이다. 거부하고 악을 따르며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선택에 기반한 ‘대심판’이다.
- ☆ **무한한 자비와 초월적인 지혜:** 그는 모든 중생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가질 것이지만,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악을 제거하고 선을 드날리는 위엄을 갖출 것이다.

- ◇ **테일러의 평가:** 이 시기 구세주의 사명은 전방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재건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우주 대법’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 성찰할 때, 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의 영적 배경과 수양 운동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지금이 정말로 그러한 진정한 법이 널리 퍼지는 시기라면, 우리는 분명 그 징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수행하는 도사들과 영적 스승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일부 유명한 도사들이 비록 자신들만의 완전히 새로운 법문을 전한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설법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1980 년대와 90 년대 초 중국에서는, 수많은 기공사들이 나타나 ‘공을 전하고 법을 설하며’ 건강과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천만, 심지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수련에 참여하

는 ‘기공 열풍’이 일어났다. 그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되어, 수련자 수가 엄청난 숫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법문들도 있었다.

나, 이러한 현상들을 전통적인 종교 형식을 통하지 않고 민중에게 널리 전파되는 대법에 대한 예언들과 대조해 볼 때, 수많은 연관성을 느끼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듯한 정황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각들’을 연결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마도 각 독자의 깨달음과 성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언이라는 강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탐험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귀한 보석을 찾도록 초대한다.

● 자연으로부터 온 신성한 징후: 우담바라 꽃의 출현:

문자로 기록된 예언들 외에도, 예언가들과 고대 경전들은 깨달은 존재의 출현이나 중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자연 자체에서 오는 신성한 징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두드러진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우담바라 꽃의 출현이다.

- **불경에 따른 의미:** 불경에 따르면, 우담바라(산스크리트어로 Udumbara) 꽃은 3000 년에 한 번 피는 신성한 꽃이다. 우담바라의 출현은 매우 희유한 길조로 여겨지며, 전륜성왕(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왕) 또는 미륵불의 강림을 알린다. 불교 사전인 《혜림음의(慧琳音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담바라 꽃은 상서로운 기이함으로 생겨나니, 이는 하늘의 꽃이며 세상에 없다. 만약 한 여래나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의 위대한 복덕으로 인해 이 꽃이 나타난다.”
- **특징과 출현 보고:** 우담바라 꽃은 매우 작고, 순백색이며, 줄기는 비단실처럼 가늘고, 은은한 향기가 있다고 묘사된다. 기이한 점은 그것들이 나뭇잎, 나뭇가지, 과일, 금속(독자께서 공유해주신 쇠계단 난간에 핀 우담바라 사진의 경우처럼), 유리, 불상 등 어떤 표면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미국, 심지어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우담바라 꽃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무수히 많았다.
- **다른 해석들과 테일러의 성찰:** 물론, 과학계는 이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풀잠자리 같은 곤충의 알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불교 신앙을 가졌거나 영적 징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담바라의 출현은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닌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신성한 전설과 연결된 희귀한 자연 현상이 같은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만약 그 상징적 의미를 믿는다면, 우담바라 꽃이야말로 희망의 전령사이자, 어쩌면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시대, 즉 성스러운 존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가운데 현존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이다.

● ‘간접적인 천기 누설’로서의 문화적 상징들: 부활절과 그 숨은 의미

때로는, ‘천기’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직접적인 예언 문서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존재해 온

문화적 상징, 전통 축제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마치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보존되고 상기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안배가 있는 듯하다.

- **부활절(Easter)과 그 상징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러나 많은 문화 및 상징 연구가들은 부활절의 보편적인 상징들이 더 깊은 의미의 층들을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 시기와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예언들의 세부 사항들과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 ✧ **부활절 토끼(Easter Bunny):** 많은 서양 문화권에서 토끼는 부활절의 상징으로, 아이들에게 달걀을 가져다준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논의했듯이, ‘토끼의 해’(묘년)가 많은 동양 예언에서 성인의 출현과 관련된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화적 상징 속에 토끼의 해에 대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한 가지 방식일까?

- ✧ **부활절 달걀(Easter Eggs):** 달걀은 새로운 생명, 부활, 번성, 그리고 시작의 고대 상징이다. 부활절에 달걀을 장식하고 선물하는 것은 부활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달걀의 이미지는 또한 동양 예언 속 ‘황금 닭(金雞)’의 형상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닭이 알을 낳는 것’은 생성과 기원을 상징한다.
- ✧ **‘부활’이라는 이름 자체:** ‘부활(Resurrection)’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남, 회생이라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말굽 시대와 구세주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맥락에서,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진리의 회생, 퇴색된 도덕적 가치의 부흥,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 하늘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나, 이러한 ‘우연의 일치’들을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대중문화 속에 ‘씨앗처럼 뿌려진’ 어떤 기이한 안배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은 마치 흩어져 있는 ‘조각들’처럼, 탐구하는 마음과 인연이 있는 자가 그 연결고리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상징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을 때조차도 희망과 부활을 알리는 즐거운 ‘종소리’일 것이다.

●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핵심 도덕 원리에 대한 예언: 세 글자 ‘진선인(眞善忍)’

예언, 특히 말겁 시대와 구세주 출현에 대한 동양 예언들을 탐구하는 여정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인상을 남긴 것 중 하나는, 일부 예언들이 인간이 재앙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될 핵심 도덕 원리, 보편적 기준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 유백온의 《추비도》 예언: 우리가 이미 언급할 기회가 있었듯이, 유백온은 작품 《추비도》에서 대재앙과 미륵불의 출현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따라야 할 원리들을 매우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가장 높은 하늘의 부처는 진선인 세 글자 부처요,

중하의 인민은 모두 세 글자 부처에게 귀의
하니,

세 글자 부처 앞에서 경계를 넘는 자는,

불국 선경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上上天皇佛 真善忍 三字佛,

中下人民 皆歸三字佛,

得在三字佛前 過邊境,

佛國仙境 樂無邊。)

이 예언은 ‘진선인(真善忍)’이 바로 최고의 불법
(佛法) 원리이며,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도덕적 기준임을 확증한다.

➤ **진선인(真善忍)의 의미:**

진(真): 진실하고, 성실하며,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으며,
마침내 진인(眞人)으로 수련해 이룬다.

선(善): 선량하고, 자비로우며,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측은 지심을 갖는다.

인(忍): 인내하고, 참을성 있으며, 관용하고, 고난을 견디며, 원망하지 않고, 도덕을 지키고 역경에 맞서는 데 있어 굳건한 의지를 갖는다.

나는 성찰한다. 600 여 년 전, 유백온과 같은 위대한 예언가가 ‘진선인’ 세 글자를 말갭 시대의 구원의 길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지 예측이 아니라, 인류가 돌아가야 할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다.

진위가 뒤섞이고, 인간이 물질적 유혹과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변동의 세계 속에서, 진선인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등대이자, 인간이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완성하며, 내면의 평온과 시대의 시련을 이겨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듯하다. 이것이 과연 많은 예언들이 언급했던 ‘우주 대법’, 즉 인간이 본래의 참된 자신으로 돌아가 우주의 더 높은 법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심성 수련의 길이 아닐까?

4. 테일러의 견해

이 장에서 우리가 함께 탐험한 여정—변동과 대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아리에서부터, 필요한 정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침내 구세주가 이끄는 부활과 황금시대에 대한 불타는 열망에 이르기까지—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거치면서, 저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우주의 기묘한 안배 앞에 압도감과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탐구하고 성찰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여러 문화, 종교, 그리고 예언가들로부터 온 거대한 주제들, 심지어 구체적인 예언의 세부 사항들(특히 구세주에 대한 징후, 그가 출현하는 장소, 그리고 그가 가져오는 원리들)이 놀라울 정도로 한데 모이는 것을 발견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마치 인류에게 점차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각본’,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듯하다.

이는 예언들이 단지 무작위적인 예측이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것들은 더 큰 그림의 조각들일 수 있으며, 우주의 법칙, 역사의 주기, 그리고 지구와 인간을 위한 신성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예언들이 재앙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구세주의 출현과 우리가 방금 탐험한 진선인(眞善忍)과 같은 핵심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통해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선택이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운명의 수동적인 꼭두각시가 아니다. 예언된 변동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향하기로 선택하고, 양심을 굳건히 지키며, 심성을 수양하고,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를 넘어, 자신을 구하고 세계의 긍정적인 전환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예언들이 가져다주는 희망은, 내면의 노력 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기적을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각 개인이 자신을 완성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며, 좋은 가치의 확산에 기여하는 책임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희망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힘과, 인류를 이끄는 구세주의 역할은, 우리 각자가 기꺼이 듣고, 변화하며, 양심의 부름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듯하다.

이 시간을 초월한 주제들, 이 경고들과 희망은, 과연 우리 현대 세계의 맥락 속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지며 특별한 의

미를 지니는 것일까? 무수한 갈림길 앞에 서 있고, 진실과 거짓 정보가 넘쳐나며, 인간이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이 세계에서. 과거로부터 온 ‘종소리’가 과연 우리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아직 남아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대 예언들이 적중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위한 ‘종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 * * * *

제 7 장: 현재의 종소리 – 선택 으로의 초대

예언적 메시지의 다양한 근원을 탐험하고, ‘적중성’ 해석의 매력과 도전에 직면하며, 특히 격변, 정화,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희망과 함께 부활을 갈망하는 시간을 초월한 주제들에 귀 기울였던 긴 여정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후, 저는 이제 이 성찰들을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가져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에서부터 환경,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빠르고 복잡한 변동의 시대이다. 정보가 폭발하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시대이다. 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고대의 예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종소리’가 날로 더 절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 제 7 장에서 내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고 싶은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이 정보의 시대와 끊임없는 변동 속에서, 예언은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천 년 전의 예언에서부터 현대의 예감과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을지 모를 ‘종소리들’은 과연 우리 시대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각 개인의 선택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가? ‘현재의 종소리’가 전하고자 하는 초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 예언의 특징, 그 영향과 도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아마도 예언이라는 강이, 시대와 시대가 교차하는 과도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각

자를 위해 마련한 더 깊은 의미,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 나설 것이다.

1. 정보화 시대의 예언: 특징, 영향, 그리고 도전 과제

오늘날 우리가 예언적 정보에 접근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디지털 시대는 미래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목소리'의 존재와 확산에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다.

● 예언적 정보의 폭발과 확산: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 양날의 검:** 과거에 예언은 주로 책, 구전 또는 공식적인 종교 채널을 통해 느린 속도로 어느 정도 통제된 상태에서 전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예언적 정보를 위한 '초고속도로'가 되었다. 클릭 한

번으로, 하나의 예언(고대의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든, 완전히 조작된 것이든)이 단 몇 시간, 때로는 몇 분 만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치 있는 정보와 경고가 전통적인 검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정보원의 다양성(과 혼돈):** 정보화 시대의 또 다른 결과는 예언의 제시와 해석의 '민주화'(때로는 '혼돈화')이다. 약간의 글썽씨, 이상한 꿈, 특별한 직감, 또는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언가'를 자처하며 자신만의 예측을 내놓거나 고대 예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예언적 정보의 '시장'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가짜와 모조품'으로 가득 차 있어 대중을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뜨린다.

- **현실적 영향과 세계적 확산 – 타츠키 료의 예언에 대한 사례 연구:**

정보화 시대에 예언이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특정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2025 년 7 월 5 일에 일어날 수 있는 '대재앙'에 대한 타츠키 료의 예언이다.

이 예언은 영적 포럼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많은 국제 언론에 의해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으로 보도되었다. 그 영향은 결코 사이버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우려 때문에 이 기간에 예정되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다.

불안감은 지질 데이터가 일련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기록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6 월 23 일부터 7 월 5 일 사이에 예언된 지역에서 1000 회 이상의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지진 활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우연의 일치하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7 월 5 일 이전의 소셜 미디어는 열띤 토론, 가설, 그리고 기도로 그야말로 들끓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 **예언의 '침묵'과 성찰의 물결:**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2025 년 7 월 5 일 오전 11 시 49 분(일본 표준시)이다. 오전 5 시에 일본과 필리핀에서 지진과 쓰나미를 동반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타츠키 료의 예언은 예측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예고된 순간의 자연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불안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찰의 물결을 일으켰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논의의 물결은 분명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두려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다. 한쪽에서는 회의론자들이 아마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이를 예언의 불합리함의 증거로 삼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더 깊은 설명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언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직면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생생한 사례 연구가 되었으며, 다양한 해석의 길을 열었다.

- **첫 번째 가능성: 예언이 시기적으로는 부정확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많은 고대 예언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세부 사항은 단지 상징적이거나 예언자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특

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에 기우는 사람들은 타츠키 료의 꿈이 임박한 큰 사건의 '에너지'를 포착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변경되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건이 정확히 오전 5 시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고는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준비와 경계는 필요하다.

- **두 번째 가능성: 예언이 완전히 틀렸다.** 이는 회의론자들의 관점으로, 그들은 이것을 아무리 생생한 예감이나 꿈이라도 틀릴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로 본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이 개인적인 꿈을 세계적인 규모의 사건으로 증폭시켰으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예측에 너무 많은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이것은 혼란스러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냉철함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교훈이다.
- **세 번째 가능성: 예언은 원래 정확했지만, 더 높은 힘에 의해 적극적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숙고하는, 매우 영적인 해석이다. 그들은 2012 년의 마야 예언이나 이

번 대재앙과 같이 예언된 종말론적 사건들이 낡은 우주의 신들에 의해 정해진 '각본'의 일부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한 창세주 - 즉 마지막 시대의 구세주 - 가 이미 인간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다. 그는 그 파괴의 각본을 실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생을 구원하고 선한 생각을 일깨우며 낡은 안배를 깨뜨리기 위해 대법(大法, Dafa)을 전하러 오셨다. 따라서 큰 재난의 연기는 그의 위대한 자비의 행위이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선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미혹 속에서 길을 잃어 깨어나 구원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기 때문이다. 만약 낡은 '각본'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허용된다면, 수많은 생명들이 낡은 우주 세력의 안배에 따라 비극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심으로, 창세주는 시간을 '연장'하고 재앙을 연기하여 인류에게 깨어나고, 정(正)과 사(邪), 선(善)과 악(惡)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예언이 틀렸거나 위험이 지나갔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기적이며, 시간이라는 은혜이며, 그리고 남은 시
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 각자가 마지막 기회가 달
리기 전에 서둘러 깨어나야 한다는 더욱 절박한
경고이다.

● 정보의 '바다'에서 진위를 분별하는 도전 과제:

앞서 언급한 정보의 폭발과 정보원의 다양성은 대중
에게 거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가치 있고 성찰을
유발하는 예언과, 단순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또
는 불순한 동기(예: 이익 추구, 공포 조장,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자칭 '예언가'의 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 **기회주의적 '예언가'의 위험:** 많은 사람들이 미래
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회에서는 '신비로운' 출
처로부터 지침을 찾으려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비옥한 토양이다. 그들
은 고대 예언에 의존하여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추종자를 모으고, 책을 팔고, 심지어 사기를 치기 위해 매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예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

- **검증의 복잡성:** 고대 예언을 검증하는 것은 이미 어렵다. 온라인으로 퍼지는 '현대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렵다. 정보는 종종 명확한 출처가 부족하고 쉽게 편집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기 쉽다. 누가 처음으로 예언을 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냉철한 마음, 정보 분석 능력, 그리고 때로는 특정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 공식 정보의 변동과 비전통적 '목소리'의 역할:

현 시대에 예언과 비전통적인 정보원이 '활약할 무대'를 갖게 된 또 다른 요인은 특정 상황에서 공식적인 정보 채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변동하거나 때로는 하락하는 것이다.

- 사람들이 공식적인 정보원(정부, 국영 언론, 대규모 기관 등)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편향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안적인 정보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 프리랜서 분석가, 그리고 물론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 사회적 불안이나 위기(경제적, 정치적, 역병 등)의 시기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설명, 지침, 그리고 희망의 빛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예언은 미래의 (비록 모호할지라도) 그림을 그려내고 종종 사건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그 심리적 필요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 * *

나는 이 현상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특히 혼돈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진실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것은 또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정보 채널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주류의 빛'이 충분히 밝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른 '빛의 원천'으로 눈을 돌린다. 비록 그 원천들이 검증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다.

정보화 시대의 예언의 특징, 영향, 도전 과제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에 더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어 진정한 가치를 걸러내고 찾아내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다.

2. 사건 예측을 넘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 예언의 깊은 목적

현대 정보화 시대에 예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의 특징, 영향, 그리고 도전 과제들을 함께 살펴본 후, 저는 개별 사건 예측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 특히 영적 수행자이자 성찰자로서의 관점에서 예언이 가져다줄 수 있는 더 깊은 목적과 의미를 찾아 더 깊이 파고들 필요를 느낀다.

과연 예언의 가장 큰 가치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는 데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예언서, 계시, 꿈속에 더 중요한 메시지, 초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 **저 자신의 체득(體悟)을 통해 (테일러 리드):**

데이터를 탐색하는 연구가이자, 내면의 미세한 진동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저는 많은 위대한 예언들의 목적이 단순히 ‘미래의 지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되었다. 그것들은 인간 의식의 전환을 지향하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의식의 각성 – 양심을 일깨우는 ‘종소리’:**

많은 예언들, 특히 대재앙과 말법시대의 쇠퇴에 대한 경고들은, 제가 느끼기에, 주로 두려움이나 절망을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강력하고 절박한 ‘종소리’와 같아서, 인간을 미혹(迷惑)함에서, 덧없는 물질적 가치와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핵심적

인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우려는 시도이다.

그것들은 삶이 단지 먹고 입는 것, 명예와 이익,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과 같다.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더 큰 법칙들이 있고, 우리가 인식해야 할 책임들이 있다. 도덕적 쇠퇴의 결과에 대한 경고들은 바로 인간이 제때에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양심과 선량함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인과 법칙 강조 – 미래는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다:**

예언 속에서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과(Karma) 법칙의 확증이다. 재앙, 전쟁, 혹은 왕조와 문명의 쇠망에 대한 묘사는 종종 과거 또는 현재 인간의 잘못된 행위, 도덕적 쇠퇴와 연결된다.

이는 미래가 통제 불가능한 완전히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님을 암시한다.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과거에 뿌렸고 현재에 뿌리고 있는 것의 결과이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善有善報 惡有惡

報)”는 단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언가들이 통찰하고 전수한 우주의 법칙이다. 이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해 더 의식하도록 도와준다.

➤ **자유 의지와 선택의 역할 확증 – ‘미(迷)’ 속의 기회:**

만약 미래가 바꿀 수 없이 경직되게 정해져 있다면, 삶과 노력, 그리고 수양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나는 비록 예언가들에 의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각본’들이 드러났을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자유 의지와 선택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많은 경우, 예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이 ‘갈림길’을 인식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보게 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개선할 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 있을 수 있다. 역사는 완전히 그려진 외길이 아니다. 그것은 ‘결절점’, 중요한 ‘교차로’를 가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인간의 선택, 특히 선과 악, 정(正)과 사(邪) 사이의 선택이 다음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신불(神佛)이 세상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천기(天機)가 전부 누설되지 않는 것은, 제가 느끼기

에, 필요한 ‘미(迷)’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바로 이 ‘미(迷)’ 속에서, 인간의 선택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지며,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은혜에 대한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본심(本心)과 깨달음(悟)에서 우러나온다. 온갖 유혹과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만이, 그 선택은 진정으로 귀한 것이다.

➤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 ‘끝’의 의미:**

제 6 장에서 논의했듯이, 한 주기, 한 시대의 ‘끝’에 대한 예언들은 비록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담고 있지만, 종종 필요한 정화와 부활, 더 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암시한다.

영적인 관점에서, 큰 변동과 시련들은 바로 우주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들을 ‘도태’시키고, 더 높은 심성(心性)을 가진 새로운 가치와 생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것은 선한 생각과 정법(正法)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기회이다. ‘끝’

은 마침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이다.

* * *

나는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통해 예언을 볼 때, 그 가치는 더 이상 한 사건의 예측이 맞고 틀리는지에만 있지 않다고 느낀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깨어나고, 자문하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기회, 일깨움, 그리고 교훈이라는 점이다.

3. “마지막 종소리”: 특별한 시대를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의 초대

영적인 관점에서 본 예언의 깊은 목적, 의식을 일깨우고 인과 법칙을 확증하며 자유 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 초대들을 함께 성찰한 후, 저는 모든 정보의 흐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종소리’들이 하나의 핵심 메시지, 즉 우리 각자를 위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이 결정적인 ‘과도기’를 위한 절박한 초대로 모이고 있음을 느낀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 특별한 ‘과도기’인가?

우리가 탐험한 것들을 다시 엮어볼 때, 즉 여러 문화권의 예언들에서 반복되는 변동, 정화, 부활이라는 거대한 주제(제 6 장), 말법시대와 칼리 유가에 대해 묘사된 징후들, 구체적인 특징과 사명을 띤 구세주의 출현에 대한 예언들, 우담바라 꽃과 같은 신성한 자연 현상의 출현, 그리고 곧 닥칠 큰 변동에 대한 현대의 예감과 ‘예언적 목소리들’(제 4 장, 7 장)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는 듯하다.

많은 예언 연구가들, 깊은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국에 민감한 일반인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인류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 즉 낡은 것이 스러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을 준비하는 두 시대 사이의 ‘과도기’에 서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예언들이 경고했던 ‘말굽 시대’, ‘마지막 시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대한 전환을 위한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천기(天機)는 본래 불확정적이고 각자의 깨달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독자 여러분

이 이 징후들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여러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현존하는 이 시대에 어떤 절박함,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기를 초대하고 싶다.

● “마지막 종소리”란 무엇인가?

“마지막 종소리”라고 말할 때, 저는 어떤 특정 예언이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예언이라고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기서의 “마지막 종소리”는 바로 우리가 이 책 전반에 걸쳐 함께 탐험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양심을 깨우며, 선량한 변화를 촉구하는 모든 메시지들의 총합이다.

그것은 고대 경전 속 도덕에 대한 가르침의 종소리이다.

그것은 쇠퇴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의 종소리이다.

그것은 인과 법칙과 우주의 순환에 대한 묘사의 종소리이다.

그것은 구세주의 출현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의 종소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각자의 양심에서 울려 퍼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이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도록 촉구하는 종소리일 수 있다.

“마지막 종소리”는 두려움을 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선택의 절박함,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손에 쥔 기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 개인적 선택으로의 초대:

만약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시대, 중요한 ‘과도기’에 살고 있다면, 이 “마지막 종소리”는 우리 각 개인에게 무엇을 초대하고 있는가? 제가 예언이라는 강에서 느끼고 성찰한 바에 따르면, 그 초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선택들에 집중된다.

- **선을 향하고 양심을 굳건히 지키는 선택:** 도덕적 가치가 뒤집히고,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변동의 세계 속에서, 마음속 선량함을 굳건히 지키고, 양심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며, 악과 결탁하지 않고, 세속적인 물질적

유혹을 좇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다.

- **도덕성을 높이고 심성을 수양하는 선택:** 단지 악행을 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족함, 집착, 잘못된 관념들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가 예언들 속에서 하나의 길로 드러난 것을 보았던) 진선인(眞善忍)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고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진정한 영적 가치를 찾아 나서는 선택:** 물질적 삶의 걱정과 분주함을 넘어, 삶의 더 깊은 의미, 인간과 우주, 그리고 성스러운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순수한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 진정한 가르침을 찾고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평온과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친절과 희망을 퍼뜨리는 선택:** 작은 선행 하나, 진솔한 말 한마디, 대가 없는 도움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켄 촛불처럼,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적인 선택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바로 그 선

택들이 곱해질 때, 공동체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중하든, 각 개인의 선량한 선택의 힘은 부인할 수 없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이 시대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4. 테일러의 견해

‘현재의 종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우리가 정보화 시대 예언의 특징들, 영적인 관점에서 본 그것들의 깊은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절박한 초대를 함께 돌아보았을 때, 저는 예언이라는 강을 탐험하는 여정이 결국 우리 각자를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소박한 것들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생각, 말, 행동 속에서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선택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와 세계 전체에 대한 각 개인의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인간은 항상 일어서고, 스스로를 완성하며,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예언은, 어떤 형태이든, 고대의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 아마도 우리가 미래를 털끝 하나까지 상세히 알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대신, 나는 이 ‘종소리들’의 더 숭고한 목적이 우리가 현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더 깨어 있는 의식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더 자각하며 사는 것.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사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주도적인 마음가짐, 열린 마음, 그리고 맑은 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언들은 갈 수 있는 길, 피해야 할 위험을 가리키는 고대의 지도일 수 있다. 하지만 항해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배의 키를 잡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각자이다.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종소리, 가장 중요한 종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우리가 본래의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초대하는 종소리일 것이다.

* * * * *

맺음말: 두 눈물방울이 만나는 곳

귀환과 고요한 마주함

나는 뉴멕시코 사막을 가로질러 차를 몰았다. 하늘은 지난
번과 같았다. 건조하고 높은 하늘, 멀리 보이는 산맥과 끝

없이 펼쳐진 적갈색 땅덩어리에 열은 황금빛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성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이 다시 보였다. 선인장 덩불 하나하나, 텅구는 돌맹이 하나하나,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의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오래된 꿈처럼 되살아났다.

나는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서두르지 않았다. 운전석에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운전대 위에. 눈을 감았다.

귀환에는 무언가 신성한 것이 있다. 옛 현장으로 돌아온 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긴 방황의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온 자녀의 모습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조용히. 사막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성당 문을 열었다. 낡은 나무 문이 익숙하고 희미한 소리를 냈다.

내부 공간은 처음과 똑같았다. 낡고, 고요했다. 아무도 없었다. 흐릿한 유리창으로 들어온 빛이 날리는 먼지를 비스듬히 비추며, 희미한 빛줄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중앙 제단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는, 나무 틀과 빛 가운데 고요히 서 있는 상아색 도자기 성모상이 여전히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더 이상 분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더 이상 조사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더 이상 기자, 테일러가 아니었다. 더 이상 단서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돌아온 한 명의 자녀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거기에 서 있었다. 조용히. 성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운 얼굴, 모든 시대를 조용히 꿰뚫어 보는 듯한 눈. 그 눈가 아래에는, 오래전에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거기에 서서,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함이 내 안으로 흘러들게 내버려 두었다. 공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오직 성모님.

그리고 나.

그리고 눈이 아닌, 가슴으로 보아야 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 * *

몰입과 공감의 순간

나는 성모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분석적인 시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침묵으로.

그리고 그때, 마치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 파도처럼, 온 여정이 갑자기 내 안에서 되살아났다. 말로써가 아니었다. 개념으로써가 아니었다. 마치 빠르고, 숨 가쁘며, 무겁게 짓누르는 한 편의 영화처럼.

나는 함성이 울부짖는 듯한 음악, 텅 빈 눈빛과 집단적인
혼미 속에서 뒤틀리는 육체들을 뒤덮는 화려한 조명 속,
그 대형 콘서트의 밤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벽에 붙인 바나나, 아무렇게나 던져진 물감
덩어리, 저속한 문구를 반복하는 것뿐인 ‘작품’을 감상하
며… 그것을 예술이라 부르는 현대 미술 전시회장을 지나
는 나를 보았다.

나는 소란스러운 도시 한가운데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무표정한 눈으로 짧은 동영상 조각들, 우스꽝스러운 이미
지들, 진부해질 때까지 반복되는 시시한 농담들을 스쳐 지
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단지 선량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타
당하고, 고문당하며,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형
장 한가운데서 고개를 든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고, 오직 단 하나, 믿음만이 있었다.

나는 군중을 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웃
고, 살아가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마
치 경고의 종소리가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것처럼. 마치 돌

성상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넘쳐흐르는 하나의 고통으로. 분리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고통으로.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고통이었다.

자녀들이 불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켜보는 한 성스러운 존재의 고통이었다.

강요할 수 없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랑의 고통이었다.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따뜻하면서도 옥신거리는 감정. 마치 누군가 안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팔로써가 아니라, 자비심으로 녹아내린 심장으로.

나는 속삭였다. 소리 없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어머니와 함께 한 번 울게 하소서. 아직 잠든 모든 영혼들을 위해…”

* * *

두 눈물방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길게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후회 때문에 흐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한 고통 때문에 흐른 것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다.

나는 살아가면서도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빛이 더 이상 없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심연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날아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인류를 깨우려 애썼던 이들을 위해—그들의 생명을 대가로—울었다.

나는 대부분이 싹트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씨앗을 뿌린 성인들을 위해 울었다.

나는 신을 위해—성모님을 위해—창세주(創世主)를 위해 울었다. 그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잠어지고 계시는 무한한 고독 때문에...

* * *

내면에서 울리는 각성의 종소리

나는 거기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마지막 눈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문득 정말로 고요해졌다는 것만 안다. 공간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리고 내 심장은—수많은 갈등, 수많은 질문, 수많은 이성의 소용돌이 끝에—이제…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초자연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똑똑히 들었다… 바로 내 안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그저 이렇게만 부를 수 있는 어떤 것. 바로, 각성(覺醒).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억지로 일어서기 위함이 아니었다.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책 속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예언 속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상징이나, 현상이나, 외부의 기적 속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는, 각 사람의 마음속 속삭임이다.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는, 작은 종소리.

나는 마지막으로 성모상을 다시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보지 못했다.

나는 아주 열고 희미한 미소만을 보았다. 어쩌면 그저 창문에서 비스듬히 비친 빛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무한한 감사함 때문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낡은 나무 문을 열었다. 바깥의 햇살이 내 눈에 똑바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탐색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이해한 것을 널리 퍼뜨리는 삶.

말로써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알기 때문에...

눈물은 이미 흘렀다.

마음속 종소리는 이미 울렸다.

나의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다.

* * * * *

맺음말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 이 페이지까지 오셨다면, 아마도 당신 역시—비록 희미하게나마—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종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물음표를 안고 이 책을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물 한 방울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고요한 침묵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이 페이지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때 길을 잃었다가 운 좋게도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를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썼을 뿐입니다. 오래된

약속의 메아리, 결코 사라지지 않은 사랑의 메아리, 그리고 여전히 열려 있는 한 문(門)의 메아리를.

우리는 중대한 시각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민족, 심지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곳에 단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실을 지키십시오.

선한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증오 없는 마음으로 모든 폭풍우를 인내하며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세 가지—진(眞), 선(善), 인(忍)—가
제가 거쳐온 모든 흠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유일
한 붉은 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실을 가지고 이 책을 떠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종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 작가

테일러 리드 (Taylor Reed)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자 소개

테일러 리드 (Taylor Reed) 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여성 등의 주제를 탐구하는 독립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일깨우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출발하며, 정직함과 감정적 깊이, 그리고 깨달음의 정신으로 기록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

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바로 이 책입니다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바랍니다.